금주 법구

그 어느 산의 그윽한 곳에
구름을 베개삼아 내가 잠들까
이 가운데 뜻을 얻으면
네거리에서 미친 듯이 살아가리라.

-경허 성우-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세심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법등대불

대표전화 02-737-0999 구독문의 02-737-099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4일 수요일(주간) 제 288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신행혁신을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신행세미나에서 발표된 불자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잘못된 신행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삼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25%에 불과했고, 팔정도에 대한 이해도는 23%, 오계는 34% 정도였다. 연기법과 사성제 등에 대한 믿음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처님 가피에 대한 믿음은 82%에 달해 부



신행

부처님 걸으신 길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 회향

처님 가르침보다 부처님가피력에 많이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신행행태는 한국불교가 기복교의 타력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로 해석되며 자칫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불교고유의 신앙구조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신행 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만 생각한다. 모두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고 공부인데, 달은 보지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열심히 보고 있는 꼴이다. 3천배 1만배를 자랑하지만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채우기에만 만족한다면 온 마음을 다한 1배만도 못할 것이다.

불자라면서 점을 보러 물려다니거나 심지어 다니는 절 스님에게 점을 봐달라거나 부적싸주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비불교적인 행위가 '방편'이라는 말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합리화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는 순간에서조차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강조하셨다. 스스로 부단히 닦고 수행해 해탈을 증득하기를 요구하신 것이다.

불자들은 자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태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로지 부처님법을 확실하게 믿고(信) 바르게 이해하고(解) 그 법에 의지하여 실천에 옮기고(行) 사회에 회향하는 것(證)이야말로 바른 신행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매년 2천만명 '절 구경만'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

❶포교는 없고 관람만 있다
②포교 '안하나' '못하나'
③투자없이 미래없다

전국 73곳중 28곳만 사찰소개 리플릿 비치

안내소 설치 동화사뿐 "관람객 포교프로 절실"

언제부터인지 '관람료사찰=관광사찰'이라는 등식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사찰 들머리의 당간에서부터 뒷산의 부도까지 지극한 신심과 예술혼으로 빚어낸 성보들이 있는 사찰의 품격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지금까지 수행처 사찰들은 관람료를 받으면서도 제발로 찾아오는 참배객들에게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관람료사찰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불교를 전하는 여법한 도량이라기보다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조계종 사찰은 70곳, 태고종 2곳, 법화종 1곳이다. 인천 2, 부산 1, 대구 3, 울산 1, 경기 4, 강원 7, 충북 2, 충남 8, 경북 15, 경남 8, 전북 10, 전남 12곳 등으로 고루 분포돼 있다.

99년 한해 동안 연인원 2천1백1만742명이 관람료 사찰을 방문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문화재 사찰을 다녀간 셈이다. 이에 따른 한 해 관람료 수입은 267억원에 이른다. 267억원의 30%는 문화재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12%는 종단 교육 분담금으로, 58%는 당해 사찰의 재정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관람료사찰의 경우 관람료 수입이 사찰 재정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람료 사찰이 포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포교에 소홀한 사찰일수록 관람료가 사찰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정신도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특별한 준비없이도 하루에 수십명, 수백명의 방문객들이 관람료를 내고 사찰을 찾아 오는데 굳이 '정보제공 서비스'와 '안내' '포교'라는 수고를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찰의 무성의는 곧바로 방문객들의 불만으로 폭발되고 있다.

우선 관람객들은 사찰 초입에 세워진 사찰 안내판을 보고 곤혹스러워하기 일쑤다. 사찰에 깃든 신앙과 문화이야기는 쏙 뺀 채 양식사 중심으로 계알처럼 적어 놓은 글씨는 끝까지 읽어내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그 뿐이 아니다. 사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어도 사찰 안내소와 안내원은 물론 안내 리플릿 하나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관람객들은 그저 박제된 전시품 감상하듯 둘러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 관광상품 또한 강원도를 가나 전라도를 가나 천편일률적이어서 식상하기 마련이다.

참배객들의 생각도 관람객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사찰을 찾아 불연이 깊어지기를 바라지만 스님을 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해사찰 신도가 아닌 경우 냉대까지 받기도 한다.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김정수씨(서울 은평구 신사동)

☞2면으로 계속

관람료 시찰(73곳) 포교현황

리플릿 비치 (28곳)	항일암 안국사 송광사(완주) 봉정사 표충사 월정사 대문사 선운사 송광사 금산사 통도사 범어사 불국사 은해사 동화사 직지사 마곡사 법주사 신흥사 낙산사 용주사 보문사 내장사 수덕사 화엄사 신륵사 심화사 동학사 신원사 갑사 분황사 기림사 불영사 탑사
안내원 상주 (13곳)	송광사(완주) 봉정사 대문사 선운사 불국사 송광사 금산사 해인사 동화사 직지사 운문사 분황사 동학사 구룡사
안내소 설치(1곳)	동화사
캐릭터 개발(2곳)	송광사(완주) 은해사
특화관광상품 개발 (11곳)	내소사 송광사(완주) 은해사 봉정사 동화사 불국사 보문사 수덕사 화엄사 분황사 운문사
포교프로그램 상시 운용	없음
포교 소임자 및 포교예산 책정 (18곳)	월정사 송광사 금산사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불국사 은해사 동화사 직지사 마곡사 법주사 신흥사 백양사 갑사 동학사 화엄사 수덕사 송광사(완주)

컴퓨터훈련소 대북지원 추진

진각종 방북단, 조불련과 5개항 합의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오는 12월초 베이징에서 남북불교도가 참가하는 통일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양에 북한불교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컴퓨터훈련소 설치를 추진한다. 또 금강산 사찰 복원이 본격화할 경우 장안사 복원에 적극 참여하며, 진각종조인 희당대종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02년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을 서울에 초청하기로 했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등 대표단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교환했다고 밝혔다. 〈관련인터뷰 3면〉

성초 통리원장은 "통일토론회의 주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로 정했으며 일정과 내용은 종단협의회와 협의해 10월초 북측과 예비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기간중 묘향산 보현사에서 북한대표들과 일반 불자 등 300여명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결의하는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한 것을 비롯 구월산 월정사 정방산 성불사 등 주요사찰을 참배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조불련 대표 올 세번째 친서교환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중앙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교환했다. 정대스님은 9월 19~26일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의 불교가 더욱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며,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태화 위원장에게 보냈다.

박태화 위원장은 답서에서 "우리 북남불교도들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흥무원장님과의 만남이 머지않아 실현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성운 기자





원효-의상대사 眞影사진 첫 공개

직지사 '한국고승 진영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15세기에 그려진 의상(사진 위)·원효 스님의 진영이 일반에 공개됐다.

1일부터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열리는 '한국 고승진영전'에서는 일본 교토박물관에 보관중인 15세기 의상·원효 스님의 진영이 실물 크기의 사진으로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은 1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20일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는 20일경 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한다.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은 9월 2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일쯤 원로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의장 탄성스님이 지난 6월 8일 입적함에 따라 의장 공석 상태이다. 정성운 기자

"공원구역 해제 신중" 조계종, 환경부에 요청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비계획(안)과 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자연·생태·문화환경의 훼손을 복원·관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공원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9월 18일 환경부에 보낸 '정비계획에 대한 조계종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신행정보-심층보도 강화

생활과 불교의 합일을 지향하는 현대불교는 창간 6주년을 앞두고 큰 폭으로 지면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지면 개편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끝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수행의 도반이 되는 길을 찾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신행면과 심층 보도 기능을 강화하여, 불자로 세상살기의 바람직한 모델과 그 구체적 방관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 형태의 진지한 모색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사의 자잘한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서도 말없는 행으로 불국토를 가꾸어 가는 불자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하다는, 끝내는 이 세상이 곧 정토로 바뀔 것이라는 불자들의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절치면 곧 법당'이 되는 신문이 되겠다는 첫마음을 잃지 않을 것을 밝히며,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3면에 '새 기획' 소개

TrekSta
고마우신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본 사:051)309-7000 •서울영업본부:02)3200-600
•동서울지점: 02)3200-620 •남서울지점 02)3200-780 •대전지점: 042)582-1892
•호남지점 : 062)956-2131 •대구지점 053)964-5476 •영남지점 051)309-7110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본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8-1 TEL: 051-309-3663(代)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 02-863-2566
http://www.treksta.co.kr


성불화-자비로

사 설

전통사찰 훼손 막으려면

지난 9월 23일 열린 한국정원학회 창립 20주년기념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다. 동국대 조경학과 홍광표 교수의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홍 교수는 이 논문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전통사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전통사찰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 및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의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99년과 올해에 걸쳐 환경분쟁을 겪는 전통사찰이 10곳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와 사업자들이 주머니 불리기 경쟁을 하듯 산 좋고 물 맑은 사찰 주변을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지경이니 다른 곳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홍 교수는 훼손을 막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 개발 억제를 위한 관련 법(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의 정비, 불사위원회의 신설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의 방안은 정부와 국민들을 향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개발업자와 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설득, 법적 미비점의 보완 등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불사라는 이름으로 전통사찰의 존엄을 해친 사례가 있고, 우리 스스로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남에게 보호해야 한다고 외쳐서는 안되겠기에 불사위원회 설치는 시급하다.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성소이며, 불교를 떠받치는 수행·신행의 핵심적인 공간이다. 또 사찰은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1600년 한국불교 역사가 우리 민족의 것이듯, 지금의 사찰과 불교문화는 모두의 것이며, 후세들의 자산이다. 따라서 전통사찰 주변에 사유지가 있다면, 사찰의 풍치와 수행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또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관리해야 할 때이다.

사면논의 활성화 하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겉보기의 안정과는 달리 그 밑바닥에 심각한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안의 요인은 98, 99년에 걸쳐 일어났던 분규 사태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화개혁회의에서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아직 6건이나 진행중인 채로 있다.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현 조계종단이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그 뿌리에 분규사태가 빚은 불화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사 소송이 현 종단의 안정을 흔드는 판결로 귀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바탕에 놓여있는 불화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은 항상 내부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힌 채 불법의 중흥을 위해 비상하는 종단으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화합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조계종의 앞날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조계종단의 분위기와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실종된 듯 하다.

지난 종회는 불미스런 유회사태로 인하여 멸빈자의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에 대한 보고조차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현 종단의 지도급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며, 안이하기 짝이 없는 종단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정화회의 쪽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조계종의 화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종단의 화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큰 원칙 아래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큰 자세를 지니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통성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정화회의 쪽에 대하여 사면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반성과 참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대의명분에 합당한 사면을 이룩하고, 그 화합된 힘으로 미래지향적 과업에 힘을 합하는 것이 지금 조계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다.

"재가자 종단운영 참여" 99%

청정교단-신행혁신-종단화합順 주요 과제

재가연대 500명 활동방향 의견조사

재가 지도자들은 재정투명화 등 건강한 교단 및 사찰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활동과제로 인식하고, 재가불자가 종단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7월12일~8월15일 재가 지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재가불자들이 해야할 중요한 활동과제로 건강교단을 위한 활동(24.6%), 신행혁신운동(14.7%),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한 활동(13.3%), 불교활동 인재양성 활동(10.7%) 등을 꼽았다.

특히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려 68%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부분적 필요'도 31.1%(상관없음 1%)에 달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조건에서 종단운영 참여에 가장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는 종단정책 자문기구 참여(26.1%), 사찰운영 참여(25%), 포교(신도)기관 참여(14.2%), 종회의원 참여(9.6%) 등으로 응답해 종단 자문기구·사찰운영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사찰재정투명화운동의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30.5%), 사찰 회계관리 투명화를 위한 입법추진(25.7%), 사찰재정 건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서명운동(각각 10.5%) 등으로 나타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한편 재가 지도자들은 재가연대의 사명에 대해 청정교단 만들기(47.1%), 재가불자 신행혁신(34.6%), 사회참여와 회향(18.3%) 등의 순으로 응답해 사회적인 활동 보다는 불교 내적인 혁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과 재가연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43.8%),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37.1%), 종단에 대한 비판감시 역할(24.3%) 등으로 단체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단 개혁에, 젊을수록 참여불교에 대한 열망이 높게 나타났다"며, "사찰재정 투명화 등 청정교단을 위한 활동이 서명운동 차원을 넘어 보다 현장 실천 지향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제도화·정책화된 틀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스님 1만명 추산

승려분한신고 8607명…환속도 많아

조계종 승려는 몇 명일까. 조계종총무원에서 4~10년마다 실시하는 승려분한신고를 통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총무원이 9월 18일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책질의 답변서인 '각 본사별 신고 대상 인원 및 신고 완료 인원'에 따르면, 신고 대상 인원 1만1875명(사미·사미니 포함, 90년 분한신고 결과) 가운데 신고를 완료한 인원은 8607명이다. 1227명은 기본교육기관 미입학, 사찰재산 미등록 등의 사유로 분한신고 처리를 보류했다.

보류자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승려증을 발급한다. 여기에 이번 분한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99년 사미(니)계 수계자 400여명을 합치고, 분한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1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성운 기자

전통사찰 정비 15억 지원

문광부 내년예산안

문화관광부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해 1조4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종무실 예산은 전년에 비해 10.3% 감소했다.

정부는 9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1년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종무실 예산은 55억9700만원 규모로, 올해의 62억3900만원보다 6억4200만원이 줄었다.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지원은 15억5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지원은 4억원을 책정했다.

문화재청 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 1200억원 등 2690여억원으로 올해보다 5.4% 증가했다.

정성운 기자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스님

승가원(이사장 정인)은 9월25일 상락원 2층 강당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공석중인 소쩍새마을 원장에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종회의원)을 임명했다. 〈관련 인터뷰 4면〉 그러나 보각스님의 사퇴로 공석중인 상임이사와 상락원 원장은 적합한 인물이 물색될 때까지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4급 승가고시 "계율·경전 중심 출제"

4일 송광사에서 치뤄질 4급 승가고시 출제방향이 확정됐다.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 고시전문위원들은 단순한 한문뜻풀이와 한글중심의 문제를 지양하고 계율과 경전의 대의에 충실한 문제를 9월 25일 출제했다.

4급 승가고시 시험과목은 불교일반 화엄 사미(니)율의 각 10문항, 자경 치문 사집 사교 각 5문항이다.

한편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는 최근 승가고시 합격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원우 기자

본사사령

임연태
명 편집국 편집위원
2000년 9월 26일

☞1면 '관람료 사찰'서 계속

"스님 친견 어렵다"
"관람객 서비스 부족"

는 "10여년간 가족을 데리고 국내 유수의 명찰들을 참배하러 다녔지만 괄플릿을 받아 보았다던지 사찰에서 법문을 듣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며 "타종교는 가가호호 방문하며 선교하기도 하는데 제발로 사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 전법에 나선 스님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전국 73개 관람료 사찰을 조사한 결과 40%에도 못 미치는 29곳만이 사찰 소개 리플릿을 비치하고 있으며, 관람객 대상의 포교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사찰은 한군데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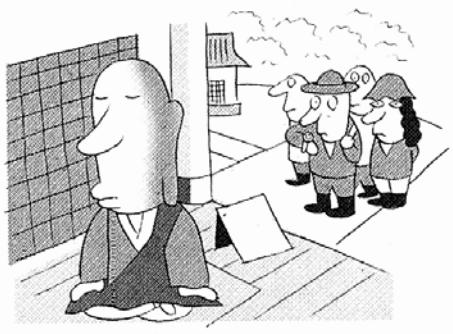
13곳에서만 사찰 안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안내해주는 사찰도 11곳에 불과하다. 또 안내소를 두고 있는 사찰은 대구 동화사가 유일하며,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사찰은 완주 송광사와 은해사 2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포교소임자 및 포교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사찰도 18곳에 불과하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관람료 사찰은 관람료를 일반 경상비로 고스란히 소모하고 있는 반면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관람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포교비로 의무화하도록 계도하여 관람객들을 위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관람료 사용내역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찰 특성에 맞는 안내원 배치, 사찰 홍보 및 포교공간을 마련, 문화재 안내자료 등도 제작하여 배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원우·도필선·김두식 기자 (ww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관람객들과 함께…

사이버 불교서점 '여시아문' 오픈

www.yosiamun.com

3만여종 불서정보 제공
클릭 한번 안방서 책구입

본사는 국내 최대 인터넷 불교서점 여시아문 닷컴(www.yosiamun.com)을 1일 오픈했다. 국내외에서 간행된 3만 여종의 불서정보를 제공하는 여시아문 닷컴은 신간정보는 물론 경전, 교리, 비교종교학 등 20여 분야로 상세히 분류해 원하는 불서를 안방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시아문 닷컴에서 눈여겨 볼만한 코너는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간한 한글대장경을 클릭 한번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글대장경 검색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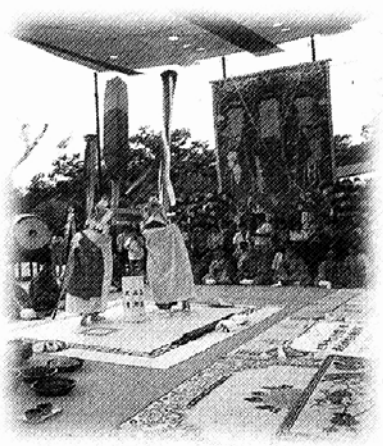
여시아문 닷컴은 도서정보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심함양과 불교계의 움직임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의 불교뉴스', '전설로 찾아가는 사찰', '오늘의 학술문화' 등을 마련,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자신의 글을 책으로'는 불교출판계의 작가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코너. 본사에서는 여기에 올려진 글들 가운데 엄선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다. 분야는 시·수필·체험수기 등.

한편 여시아문 닷컴은 자주 방문하는 네티즌들을 위한 각종 사은행사도 준비중이다.

호남 제일의 기도 도량

奉 전남 강진 남미륵사 영신 대재 行

■ 일시 : 불기 2544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터 ■ 장소 : 전남 강진 남미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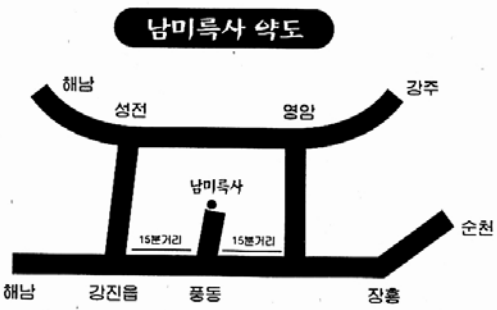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 두루 청안 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음력9월 9일은 중구(重九) 또는 중양절 (重陽節)이라 하여 옛부터 조상의 기일이 불분명 하거나 각별히 조상의 뜻을 기리고자 할 때 이날을 기일로 정하여 제를 모시는 길일(吉日) 입니다.

호남 제일의 기도 도량인 전남 강진 남미륵사에서는 매년 음력9월 9일 (重九節)에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산대재는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과 더불어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의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속에 선망부모와 일체 유주무주 고혼들이 다 함께 이고득락(離苦得樂) 하고 극락왕생(極樂往生)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지 법홍 합장

남미륵사 약도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80번지 / 전화 : (061) 433-6460

목어

가을의 마음

어느덧 가을이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햇볕이 어느 날 아침 찬바람에 한풀 수그러들었으니, 어느덧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가을이 성숙과 수확의 계절인 것은 아마도 가을의 마음이라 할만한 그 높푸른 하늘을 지녔기 때문이 아닐까.

북녘으로부터 내려오는 단풍은 자연을 화사하게 분장시킨다. 울긋불긋한 등산복과 나름대로 한껏 멋을 낸 차림의 사람들이 산사를 찾아왔다가 이내 산을 등지고 바람을 따라 저자로 내려간다.

그들의 등뒤로 노을이 번지는 높푸른 가을하늘이 유난히 돋보인다. 책을 읽다가 덮어두고 뜰을 거닌다. 걸을 때마다 풀 먹인 먹물옷의 사각대는 소리와 산사의 흙을 밟는 소리에 절로 마음이 빠져든다.

올 가을은 유난히 흐린 날이 많은 것 같다. 수확의 계절에 부족한 햇빛은 농민들의 애를 태운다. 이따금 불어닥치는 태풍은 두렵기까지 하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자연히 날이 개길 바라게된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궂은 삶을 너무 당연시하는 듯하다. 좀처럼 높푸르고 성숙한 가을의 마음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만큼 들면 가을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사들은 그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쳤다. 높은 지위나 재물, 고상한 말솜씨 따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나옹화상의 시 한 구절이다.

백년도 잠깐일러니
세월을 등한히 마소
노력수행하면 성불도 쉽거니와
이 생을 잘못 살면 업보 벗기 더 어렵네
두상한 죽음 그 누가 대신하랴
빚은 원래 제가 갚는 법이거늘
(百年只是暫是間 莫把光陰當等閑 努力修行成佛易 今生差過出頭難 無常忽到教誰替 有債元來用自還)

올 가을도 예년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다. 높푸른 가을답기를 잠시나마 연습할 겨를도 없이 또 그렇게 훌쩍 스쳐 지나갈지 고른다.

올 가을에는 가을마음을 낙엽처럼 쌓아갈 시간들을 많이 가져봄이 어떠할지.

도수(정업도량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타워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공원 사유지 국가서 매입"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 발족

국가공원 구역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 · 환경단체는 9월 2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국립공원시민위) 발족식에서 발표한 발족문을 통해 "정부는 국립공원 구역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 신탁 · 토지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가운데 해상면적을 제외한 육상면적(3824㎢) 가운데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44.7%(사찰 소유지는 8.3% 포함)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국 · 공유지 비율이 75.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공원구역 내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한 것일 만큼 국민 불편이 크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의 사유지 가운데 자연보호상 중요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공원구역 국유화와 관련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발족식에서 "자연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셔널트러스트운동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도 사유지의 국가 매입을 바람직한 공원 관리 방법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택지와 경작지를 제외하고 임야 등은 국가에서 우선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자 재산권 행사 자연환경 훼손 원인

이에 대해 환경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연공원과의 한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자연공원법 개정시 매수청구권 · 협의매수 조항 등을 명시해 사유지 매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시민위는 이날 발족식에서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조경학과)를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또 오구균 호남대 교수,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원 등 6명을 정책소위원으로 위촉하고 10월중 공원입장료-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제도에 관한 정책워크숍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발족식에서 공동대표 원택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토론회 합의 등 남북교류 한몫"

북한 다녀온 성초 통리원장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북한을 공식방문한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대정사는 이번 방북이 지난해 9월 가졌던 1차 방북성과의 연장으로서 남북불교 교류의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상호 의지를 담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다음은 성초 통리원장과의 1문 1답 내용.

-지난 1차 방북때는 북한측에서 합의서 채택을 크게 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합의서 교환의 의의를 말해주십시오.

▲이번 합의서에는 남북불교도가 같이 참여하는 통일토론회라든가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의 서울방문, 금강산 장안사 복원 등이 들어있어 남북 불교의 폭넓은 교류와 통일분위기 조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사항들이 장기적으로는 통일정책에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사회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방북때와 비교해 북한의 변화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를 대하는 평양시민들도 손을 흔드는등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라 마치 고향을 가는 듯 했고 안내를 맡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더욱 정성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12월 열리는 통일토론회의 주제도 '6 · 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로 정한 만큼 그쪽에서는 6 · 15선언 실천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을 계기로 더욱 우리 종단이 남북불교교류에 가교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보현사에서 합동법회를 했을 때 우리쪽에서 본존을 만들어갔는데 모시고 법회를 보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했으며 올 때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정책의 변화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조선불교도연맹에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연대별로 북한불교계의 계보를 최근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태화위원장의 서울 초청은 언제 이루어지는지요.

▲2002년이 우리 종단 종조이신 회당대종사 탄신 100주년입니다. 이때를 전후해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북한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는 성초통리위원(왼쪽)과 박태화 위원장.

현대불교 새 기획들

생활 속의 불교 6면
'생활 속의 불법 구현'은 현대불교가 추구하는 제1의 제작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 난에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 제시와 함께, 참된 불자로 산다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독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찾아갑니다.

주제가 있는 법문 6면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주제로 한 법문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면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놓치기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행 현장 6면
보살행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교계의 신행단체나 복지단체뿐 아니라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개인의 삶을 통해 불자로서의 긍지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기획은 단순히 미담을 발굴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바람직한 신행 모델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버려야 할 교계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기능도 겸합니다.

참 불자의 길 7면
'공부하는 불자상' 정립을 위해 새로이 마련한 면입니다. 기복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아도, 기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삶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된 길을 열어주는 목소리는 미약한 현실을 직시할 때, 뒤늦었다는 자탄마저 듭니다.
앞으로 이 면에서는 참선, 염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 방편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불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행위들, 이를테면 안거나 만행 혹은 출가 등의 의미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8면
가치 판단이나 선택의 기준이 모호한 사회적 문제, 혹은 병리 현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면의 의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읽는 재미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자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필진으로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에 현명한 조력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칼럼 '사부대중' 9면
누구나 알 듯이 불교 교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이루어진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면에서는 말 그대로 출 재가의 4부중이 번갈아 가며, 산문(山門) 안에서 본 세간과 세간에서 본 산문의 모습을 담백한 필치로 담아내며 공동체로서의 불교 교단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그려보일 것입니다.

불교와 과학 10면
종교 없는 과학은 위험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공허하다는 말처럼, 종교와 과학은 서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교는 이미 한계에 이른 과학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폐해를 치유하는 대안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철학을 전공한 최종덕 교수(상지대)는 과학과 불교가 만나 이룰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지구촌 불교 10면
해외 불자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면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불교계가 간과해서는 안될 다양한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승오 스님의 경전 읽기 10면
해인사 승가대 교수인 승오 스님이 독자 여러분을 경전의 세계로 이끕니다. 압도적 분량의 경전 때문에 갈피를 잡기 힘든 독자에게는 특별히 반가울 이 면은, 불자들이 편안히 읽으면서 경전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입니다.

사찰 선식 기행 11면
사찰의 선식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약선식 연구가 정세채 씨와 함께 떠나는 선식기행입니다. 불가의 음식철학과 비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야초의 효능과 활용 등을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달마 이야기 17면
원로 언론인 이규행 씨(현 중앙일보 고문)가 1500여년 전의 달마 스님을 오늘의 언어로 살려냅니다. 소설 형식을 빌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은, 달마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달마선법'이라는 단순 명쾌한 수행의 세계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화 '선재네 집' 17면
만화가 백우근 씨의 편안한 그림과 우리네 가정을 빼다박은 선재네 집 구성원들의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웃음과 감동 그리고 한번쯤 되새겨보아야 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백우근 씨는 1985년에 소년경향으로 데뷔한 이래 한겨레신문 만화 초대석에 작품을 게재하는 등 여러 매체에 만평과 4단 만화를 연재중 입니다.

건강 이야기 18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상식들을 부담없는 이야기 형식으로 버무려 독자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우리 몸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국제일가람 **직지사** 30년

重創 佛事 회향 5주년 기념 대법회

모시는 말씀

直指寺는 지난 40年 동안 옛 모습을 복원하여
禪學者의 수행과 **傳法敎育의 으뜸도량**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唱導**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30년 중창불사 회향 5주년 기념의 자리에
참석하시어 큰 **善緣**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0년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직지사 만덕전

東國第一伽藍 黃岳山 直指寺 會主 吳 緣 園
住持 柳 法 性

행사안내

가사불사
한가족 한 벌 동참금 300,000원

육법 공양

만등 공양
동참금 - 1인 1등 : 1만원

천불전, 천불연등 공양
동참금 - 1인 1등 : 3만원

고승진영 특별전시회
기 간 - 2000. 10. 1 - 11.20

신청 및 문의처
본 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종무소 ☎ 054) 436-6013 · 436-6174 · 2681
지 역 : 서울 연화사 ☎ 02) 962-6186
대구 포교원 ☎ 053) 588-3599
부산연화승복점 ☎ 051) 558-0408
온라인 우체국 702829-01-000143 (예금주 : 직지사)

일주문

봉암사 조실 추대법회



진제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스님은 구산선문 희양산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12일 오전 11시 봉암사 대웅보전에서 추대법회를 갖는다.

서광사 만등불사 입제 법문



도법 실상사 주지 스님은 15일 오전 10시 대구 팔공산 서광사 만등불사 입제식에서 법문한다.

통도사 성보예술제



범하 통도사 성보 박물관장 스님은 6일까지 '제2회 성보예술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1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불국사 총동문회장 재선



종후 노적사 주지는 최근 열린 불국사 총동문회에서 동문회장에 재선출됐다. 고문에는 상묵·도형·지욱 스님이, 부회장에는 종연·응각 스님, 사무처장에는 심우스님이 선출되었다.

변산 한울공동체 생태기행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은 7·8일 변산한울공동체 마을에서 '생태적 삶을 찾아서'란 주제로 생태 기행을 연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9월 28일 해인사 주지에 세민스님을 임명했다. 현 주지 보광스님의 임기는 11월 20일 만료된다. 1943년 대전 출생인 세민스님은 해인사 강원 대교과, 일본 교토 불교대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총무원 재무부장과 조계사 주지, 8~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한글발전 공로상 수상



이남덕 前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글발전 공로상을 수상한다.

한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9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 호류지(법륭사)를 주제로 '제4회 한·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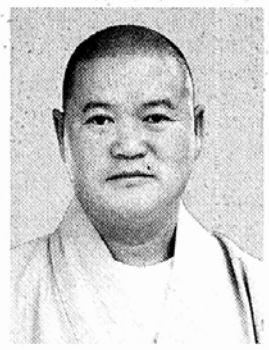
국제 서화대상 준대상 수상



곽한영 불교 서도가는 9일 오후 1시 30분 동경도 서예관에서 국제서화대상 준대상을 수상한다.

"수용 아닌 생활복지 지향"

소쩍새마을 새 원장 현각 스님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는 '수용'의 개념에서 '생활'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상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마을 식구들의 생활향상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소쩍새마을 새 원장을 맡게 된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은 시설확장 등 외형적 성장보다는 직원들과 마을 식구들 살림살이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26명의 직원과 190여명 수용자들의 생활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향상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소쩍새마을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 현각스님의 생각이다.

"몇 달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는 아직 못했지만 진실과 애정을 갖고 대화하다 보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용자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운영에 대한 소신과는 달리 몇 해 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강원도 횡성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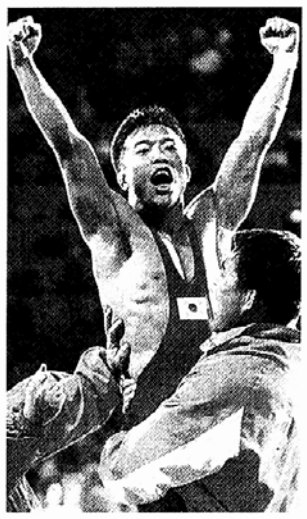
"복지타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만도 부지매입 등 35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쩍새마을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시기와 내부사정에 맞는 합리적 관단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현각스님은 강원도 원주 성불원을 비롯해 명륜사회종합복지관, 원주시립복지원, 원주성불신용협동조합 등 10여개 이상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 소쩍새마을을 맡게 된 것은 과도기에 놓인 소쩍새마을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싶었고, 이것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 때문이다.

"소쩍새마을은 한 차례 큰 시련을 겪었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각스님은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올림픽 2체급 석권 심권호

"삼천배 했어요"

어머니도 매일 새벽불공

"7년동안 태릉선수촌 자승전 법당에서 슬럼프에 빠질때마다 참선과 기도를 하며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9월 1일 시드니로 떠나가전 자승전 법당에서 만난 심권호 선수는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승부의 갈림길에서도 평소 참선을 통해 훈련된 냉정한 승부 근성이 빛을 발한 것일까. 9월 26일 시드니에서 승전보가 날아왔다. 심권호 선수가 한국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2체급을 석권하며 한국에 5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심권호 선수는 5월 단양 구인사에서 레슬링 동료선수 10여명과 함께 3천배 정진 훈련을 했을 정도로 한마음선수불자회에서 신심이 돈독한 선수로 꼽히고 있다.

심선수의 어머니 이화순(51)씨도 지난해 심선수가 체급조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은퇴를 결심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새벽불공을 드리며 지극 정성으로 금메달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법륜사 신도인 이씨는 "권호가 불·보살의 가피로 꼭 해낼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준 불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승무 명인 정경파씨 별세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의 기능보유자인 옥당 정경파 선생이 9월 28일 저녁 8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평생을 춤과 함께 살아온 고인은 화성 재인청의 마지막 도대방이었으며, 재인청이 있던 자리인 수원시 신풍동 화령전에서 우리 전통춤의 계승 발전에 힘써왔다.



불교지도자 백령도 통일환경시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25·26일 백령도로 '불교지도자 통일환경시찰'을 다녀왔다.

각 종단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역사관 관람에 이어 해병대 6여단에 라면 50박스와 축구공 10개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또 흑룡사를 방문, 금일봉 전달식도 가졌다.



대부도 자현사 삼존불 점안

대부도 자현사·동지청소년의 집(주지 법현)은 9월 24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종스님과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불갑사 주지 도성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명성여고 수재의연금 전달

명성여고(교장 이원주)는 9월28일 전교생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2백여만원을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에게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원택스님은 "학생들의 보시 정신을 되새겨 수재로 아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대표로 온 명성여고 학생회장 공예지양에게 말했다.



군불교진흥회 해병 무애원 위문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는 9월 24일 해병 2사단 군법당 무애원을 방문, 군 장병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비사 주지 혜정 스님과 군불교진흥회 부회장 혜명 법사, 이하전 예비역 군법사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김포 청룡사, 선원사지를 참배했다.

"기와와 전통문양 조화미 추구"

수복강녕전 연 이진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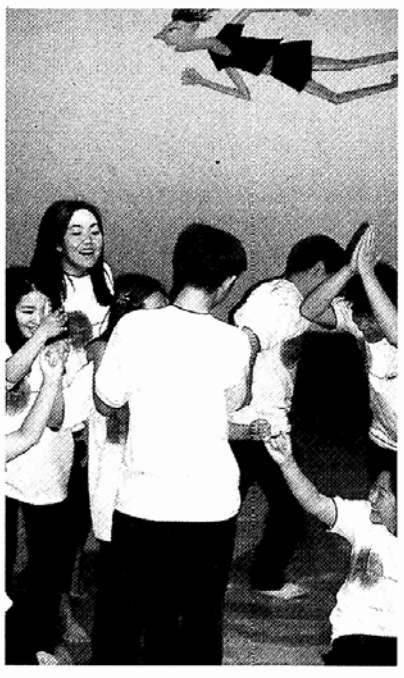
"다양한 전통 불교문양을 옛기와에 응용해 새로운 미술작품 창작에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젊은 불자화가 이진주씨의 말이다. 대구 계명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씨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4번의 개인전을 열 정도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씨는 9월 20~26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가진 '수복강녕전'에서 보상화문양, 연꽃문양, 동식물 문양, 십장생 등 우리 전통 민화와 불화 등에 등장하는 각종 문양들을 단청 물감을 이용해 고풍스런 옛기와에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이씨는 "수키와 암키와 등 다양한 기와들을 이용, 우리전통 조형미와 불교적 회화미가 가미된 작품을 내년쯤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종교벽 넘어 동심으로 '하나'

Focu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27일 저녁 서울 경동교회내 여해문화공간에 모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6개 종교 청년들은 모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30일까지 열린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문화축제'는 노래극, 영화제, 음악회 등을 통해 각 종교 청년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 새로운 종교문화 창조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권형진 기자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유마경 대강좌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큰스님께 직접 대승불교경전을 공부할 평생경전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져 합니다.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년)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용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11월 5일(일) 오후6시
4.개설경전 유마경·육조단경·금강경·선가귀감·원각경·천태학·법화경·화엄경등
5.입지수계 매과목 경전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 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6.입 학 금 50,000원
7.등록하신 모든분들께 유마경교재와 기념책가방을 드림

※ 유마경은 불이법문으로 유명하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한역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힐소설경입니다.

※ 유마경 보살품 제 4. (광엄동자와 도량)
그때 유마힐 거사는 성안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광엄동자가 인사를 하고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야"
광엄동자가 물었다. "도량은 어디입니까?"
유마힐거사는 대답했다.
직심(直心)이 도량이며, 심심(深心)이 도량이며,
보리심(菩提心)이 도량이니라".....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불심으로 어르신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는 질병의 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불심으로 모시기 위해 북한산 자락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하고, 입소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24시간 간병으로 어르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불심으로 모실 보살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십니다
▶ 입소대상자 : 60세이상의 치매, 중풍 및 기타질환 어르신
▶ 서비스내용 : 의료서비스 (한방과,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등) 물리치료, 정서 및 인지프로그램, 수지침, 발반사,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기 타 : 생활용품 일체제공 / 영양사의 철저한 식단관리, 위생적인 일상생활지원이 자랑입니다.

근무할 종사자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 자 격 : 자격증소지자 및 교육수료자등 관련자로서 30대~50대의 여성불자 우대
▶ 보 수 :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에 준함
▶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 / 자격증(수료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매
본인 내사요망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치매단기보호소/노인전문요양원 호암 마을)
문 의 : ☎ (02) 385-8205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

직장불자회 가을불심 달군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직장직능 연합불자회들이 무료의료봉사, 평화통일기원법회, 합동성지순례 등 풍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 불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 불자들이 연합회 구성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연내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 이하 연합회)는 1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로 무료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연합회는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해 6개 병원불자회 소속 의사, 간호사 20여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하고 내과, 치과, 안과, 한의과 등 4개과 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 부처님의 자비인술을 펼쳤다. 무료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어 불교포교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김주효 회장은 "무료봉사는 연합회 조직 강화는 물론 회원들에게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지정 수행도량인 경북 안동 홍은사 창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일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모시고 남북평화통일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국의 산악인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평화통일의 의지를 재 천명하고 다음날 인근 주왕산을 등반할 예정.

전국 공무원 불자들도 7~8일 제 4교구본사 월정사로 합동성지순례를 떠난다. 상원사 적멸보궁참배, 공직자 합동수계법회, 원주구룡사 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이번 성지순례는 감사원이 주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차체 및 정부부처 공무원 불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6월 속리산에서 열린 직장직능지도자 대회 이후 개별 공무원 불자 사이에 연합회 결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가 연합회 창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불자회 안홍부 총무는 "전국 공무원 불자들만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공무원 연합불자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연내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3~24일 김천 직지사에서 임원 연합 수련회를 갖고 지금의 협의회를 연합회로 전환, 미 창립 불자회의 창립을 유도하고 사내 통신망을 활용 사이버포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서울 경기 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 이하 연합회)는 9월 23일 포교원 4층 법당에서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임완숙 회장은 "교사불자연합회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우뚝섰다"며 "앞으로 불교기초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회를 통해 신심을 키워 청소년 포교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가을을 맞아 직장직능연합불자회들이 의료봉사, 합동성지순례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9월23일 서울경기 교사불자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모습.

병원불자련 강원도 홍천서 무료진료

전국산악인련 남북 평화통일 발원 법회

전국 공무원 불자 200여명 월정사 합동순례

우리모임에선

성불회 日서 위령재

예비역 장성 불교신도들로 구성된 성불회(회장 최영희 전 국방장관)는 9월 27~30일까지 일본 나가노현의 마쓰시로(松代) 지하호를 방문, 2차 대전 당시 지하호 건설과정에서 희생당한 7천여 동포들의 영령들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다. 이와 함께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상을 보내 건립된 선광사와 한국 사찰 금강사(주지 운산)도 참배했다.

구로승무소 학림사 순례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9월 26일 수락산 학림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이 참석, 108배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수락산 등반을 했다.

한일병원 반야회 정기법회

한일병원 반야회(회장 이영숙)는 9월 26일 병원 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선행 법사가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반야회원 및 환자 15명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네불동 대경모임 철야정진

네띠앙 불교동우회 대구경북모임(시샵 최종후)은 9월30일 영주부석사에서 철야 정진법회를 봉행하고 다음날 희방사를 참배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 참가자 20여명은 봉화 송이축제와 영주 인삼축제에 참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시청불심회 갑사 참배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정환)는 3일 성지순례를 떠난다. 40여명이 참가할 이번 성지순례에서 불심회원들은 갑사·동학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출발은 시청광장에서 6시30분 (02)3707-9287



◇통일정진 불교연대는 9월27일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발족 200일 기념 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통일 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찰복원등 남북교류 강화"

통일정진 불교연대 200일 기념 통일간담회

불교 NGO

21개 통일관련 불교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운영위원장 성태용)가 지난 3월 1일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는 원력보살이 되자"는 서원아래 발족한 통일정진불교연대는 신행운동이자 민족돕기·통일운동으로서 정토회와 우리는선우를 중심으로 24시간 철야정진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9월27일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발족 200일기념 간담회를 개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정세와 동향·전망을 논의하고 향후 불교계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식량등 인도적 후원 필요

화쟁사상 이념통합 방편

이 자리에서 성태용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0일 기도정진과 관련) "원효의 화쟁사상을 배워 온 봄자들이 기도수행과 통일운동의 체험을 바탕으로 통일불사에 나선 것은 불교적 이념과 수행과 연계된 바람직한 불교사회운동의 전형이었다"고 평가하고, "종단협이나 조계종을 중심으로 대북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불교단체들의 개별적인 통일운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은 '향후 불교계 통일운동의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북한이 개방·개혁을 본격화하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전통문화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찰복원 등 불교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도 북한에서 거부감이 없는 불교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문화 교류에 앞서 민족 상고사와 독립운동사 등 역사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천만 북한주민이 원하는 식량·약품·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시대불교포럼 노귀남 평화통일위원장은 "불교계의 통일운동도 이제 정부주도의 통일운동시대란 변화에 발맞추어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론 정립, 탈북자 심신수련, 북한문화재 복원, 통일 교육 등 특화된 남북교류에 나서야 한다"면서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남한사회의 통일논의 즉, 남남대화에도 앞장서자"고 말했다.

원불교 새삶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통일이후의 사상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민족종교인 불교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남한사회의 단군을 둘러싼 개신교-민족종교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불청 정우식 정책기획실장은 "조불련 청년불교지도자를 초청해 조계사내에 통일 보리수를 심는 등 청년불교문화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성오 인텔리서치 대표, 조성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 금강선원 강청작 이사, 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JTS 이지현 간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 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4일부터 수화교실, 서예, 사자고사성어 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한달에 한번 영정사진을 찍어준다. (02)421-6077

▲무료 간병인 교육=연꽃마을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후원으로 주부 준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인 취업대비 단기훈련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 훈련시기는 10월 16~20일 5일간이며 13일까지 접수한다. (02)363-7884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 수업은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1시까지이고 희망자는 7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02)817-8052

▲예식홀 무료 대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오후 5시 이후, 토요일 오후 12시 이후에 예식홀 및 턱시도, 드레스, 신부화장, 사진, VTR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식 한달전까지 대여신청를 해야한다. (02)2282-1100

강좌

▲불교기초강좌 =강남포교원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불교입문 초심자를 위한 기초강좌를 개최한다. 수업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30분까지이며 각성스님이 강의한다. (02)539-2631

▲대승기신론=법륜불교대학은 5일부터 6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서 대승기신론 강좌를 연다. 또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는 불교기초교리강좌도 개최한다. (02)733-5322

▲불교교리강좌=국청회는 6~12월 29일까지 무진장 스님을 강사로 국청회 법당에서 불교교리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02)730-1249

▲백련 불교아카데미=성철선사상연구원은 7일 오후 2시 '수행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 잡(雜) 다시 읽기'를 주제로 제16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영남대 최재록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대 박규태 강사, 불교신문 조병활 기자가 토론한다. (02)744-1541

모집

▲이미용 자원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두발 컷트, 파마 등 이미용 서비스를 해줄 자원봉사자를 급히 구한다. 봉사 시간은 월1회로 봉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02)365-3677

▲내소사 답사자=터사랑은 8일 내소사와 변산반도 유적순례에 동참할 답사자를 모집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가 안내하는 이번 답사는 부안 내소사, 개암사, 반계 유형 유허지를 순례한다. 02)725-1284

▲어린이교사대학 수강생=조계종 포교원은 현직 어린이 법회 교사 및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교어린이교사대학 수강생 60명(선착순)을 13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로, 불교의 기초, 포교방법 및 지도자론, 아동교육과 심리, 어린이 법회 지도의 실제 등의 과목을 배운다. (02)720-7060

▲삼화불교대 신입생=삼화불교대는 2년제 불교학과, 불교미술과, 중국어과, 신문방송과, 유아교육과 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교부는 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02)511-2026~8

화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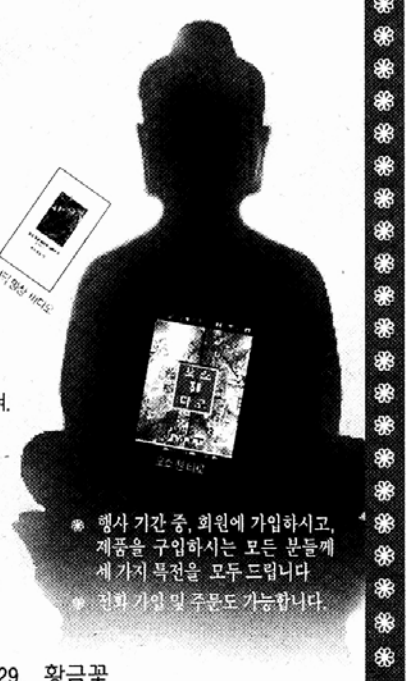
▲법보신문사 김형규 기자는 14일 오후 1시 견대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룸에서 김영현양과 화촉을 밝힌다. 02)725-7014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최대 50% 할인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② 무료로,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12박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외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 일정 : 12월 6일(수) - 12월 18일(월)

③ 투어 참가시, 투어 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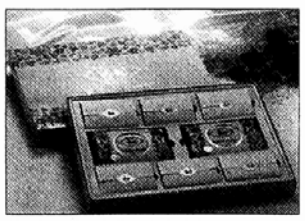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행사 기간 중, 회원에 가입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세 가지 특전을 모두 드립니다
※ 전화 가입 및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00세트 한정판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심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교수도 기업인도 '불교공부'

신행 현장 — 동국대 불교대학원 후기신입생들

2일 월요일 오후 6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서윤길 교수의 '불교학개론' 강의가 진행중인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서 교수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종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몰두하고 있는 중년의 우바새, 우바이들이 눈에 띈다.

모두 불교대학원 2000학년도 후기 신입생들이다. 이번 신입생들 중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많다. 타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물리학자를 비롯해 벤처 캐피탈리스트, 대기업 중견간부, 외국은행 지배인 등 전문 경영인과 지식인들이 23명의 석사과정자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을 차지한다.

전문 경영인과 지식인들이 불교대학원에 온 까닭은?

첨단 자본시장을 무대로 뛰고 있는 (주)다산 캐피탈의 대표이사 구병진씨(39). 그는 요즘 잘 나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다. 학부에서 공학을 공부하면서 자연과학 전반에 걸쳐 공부했고, 경영학 석사·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을 공부한 경영학 박사 출신 전문 경영인이다.

하루를 초단위로 나눠 산다고 할만큼 바쁘게 사는 구씨는 과연 어떻게 사는게 올바른 삶인가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불교학과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한다. 구씨는 "최근 우리 경제는 벤처 캐피탈 마켓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주체들은 정신적인 공허함에 시달리며 혼돈을 겪고 있다"면서 "나의 윤리관과 도덕관이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이었나 되돌아보고, 첨단 자본시장에 뛰어든 젊은이들과 기업가들을 위한 도덕적 토대를 불교를 통해 세울 수 있도록 연구해 집대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나경준 이사(47)도 가치혼돈의 시대에 기업경영에 대한 좌표를 찾기 위해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나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종지부를 찍고, 투명경영, 환경을 염두한 경영, 고객을 위한 경영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평소 불자로서 해보고 싶은 공부이기도 했지만 회사의 여러 부분을 조정·기획하고 경영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 보면서 '인연법'과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경영철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

불교사회복지학과 수업을 듣고 있는 뉴욕은행 서울지점 지배인 조미영(42)씨. 조씨는 인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선 관련 책을 탐독한게 계기가 됐다.

이미 6개월 과정의 조계사 불교대학을 수료하기도 한 조씨는 불교대학원에서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택할 예정이다. 인간의 삶 중에서 인생의 깊이를 맛볼 수 있고, '참사람'으로 돌아가는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에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정신세계를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할 목적으로 불교대학원에 등록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임헌화 교수(55), 동료가 권한 불교서적을 보고 삶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상신중학교 교사 양해산(46)씨, 사내 법우회 활동을 통해 불교공부에 대한 욕심을 키운 한국은행 조사역 정옥련(49)씨, 종단협 국제교류위원회 중국담당이기도 한 통역·번역 프리랜서 이인옥(42)씨, 쉼터공동체 농장장 정운봉(67)씨, 연세산업(주) 대표이사 조재완(41)씨, 수원 권선고 교사 심한수(34)씨 등이 불교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같은 전문지식인들의 불교열풍에 대해 서윤길 교수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보화를 리더하는 현대 신지식인들은 오히려 정신적인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며 "연기론과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불교는 그런 그들에게 평등과 조화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하고, 인간 내면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석사과정 23명중
전문직 종사자 11명



◇동국대 불교대학원 2000년도 후기 신입생 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문 경영인과 지식인들은 지위의 고하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지한 자세로 불교공부에 임하고 있다.

"정신안정 얻는 값진 시간 기대"

생활속의 불교 — 평생 두고 양식이 넉넉한 도리

어느 한 분야에서 우뚝 솟은 사람들, 흔히 일가(一家)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대개 20~30년을 외곬으로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체 사장이 되기까지는 입사 이후 25년쯤 걸리고, 은행장이 되려면 입행 후 30년쯤 걸린다고 한다.

학문의 길을 갈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족히 20년의 세월을 책과 씨름해야 한다.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도 모자랄 만큼 은통 눈물과 땀의 기록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만큼은 속성으로 알기를 원한다. 한두 권의 불서를 읽고 나서, 또는 스님들의 법문을 몇차례 듣고 나서 '불법은 어려워서…'라고 말한다.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만도 1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서 불법은 어렵다는 말만 되뇌인다. 평균 점수 몇점을 올리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던 그때의 노력은 다 잊고서 불법만큼은 단숨에 환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불법공부의 공덕은 세간 공부에 견줄 바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사구게(四句偈) 하나만 제것으로 만들어도 그 공덕은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다. 그런 큰 공부를 어찌 세간의 노력에 비할 것이며, 더욱이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노력으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세태가 아무리 '빨리빨리'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불법 공부를 하는 태도만큼은 소리를 저미며 흐르는 깊고 긴 강물의 흐름을 닮아야 한다. 칭찬에 미혹하지도 말고, 얻은 바 없음에도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건 섣부른 중생심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불법공부만큼은 따로 시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해 나갈 수 있다. 마음먹기 따라서는 천하에 쉬운 것이 불법 공부인 셈이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불법 공부인 것이다.

'불법은 어려워서….'라고 말하기 전에 불법 공부의 공덕을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평생 동안, 아니 세세생생 양식이 풍족한 도리는 불법 공부에 있다. ※ 龍眼

주계가 있는 법문

"본래 부처 마음인데 깨닫지 못해 중생의 삶"



지광스님 능인선원장

불교는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不二法門)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가 하나이며, 시간적으로는 한 순간과 영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하나이고, 마음과 몸이 하나이고, 고와 락이 하나이며, 현실과 영원의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잡다한 현상들은 이렇게 '하나'가 펼쳐내는 다양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리의 참된 성품은 참으로 미묘해서 고요한 본 모습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갖가지 모습을 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는 범부들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둘로 갈라짐의 세계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세계이며 시간이 성립하는 세계입니다.

한생각 어떻게 다스리느냐 따라 나의 운명 결정

그러면 어떻게 무차별의 세계로부터 차별의 세계가 시작되고,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고통에 찬 중생의 세계가 성립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생각 때문입니다. 한 생각 무명으로 인해 차별의 세계, 중생의 세계가 전개되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말과 같이 마음은 위대한 힘입니다. 마음이라는 위대한 에너지는 생각(念)을 타고 흘러나와 물질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이 한 생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즉 부처인 것입니다.

시공의 세계가 시공을 초월한 부처의 세계로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로 부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부처의 마음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수행의 길, 성불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요, 시공을 초월한 행로이며, 우리의 본성이 부처임을 투철히 믿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형극의 길입니다.

참선과 명상, 기도 등은 우리들의 부조리한 생각을 걷어내고 부처님과 하나되고 본질과 하나되는 경건한 작업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수행은 생각의 단속이며, 부조리한 염의 극복이며, 본 고향으로의 회귀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면 평안한가?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영험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명을 걷어내고 광명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정화를 통해 삼계육도가 갈라지고 중생이 부처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이 곧 나의 운명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이며 성불의 길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계속된 생각은 어떤 힘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습관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지요. 따라서 습관으로 굳어지고 업으로 고착되기 전에 한 생각 한 생각 점검해 나가는 길이 참선의 길이고 명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행과 수행도 신심과 원력이 발심됨으로써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중생들의 이익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바람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력에는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임을 확신하고 하나인 마음,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없이는 참된 수행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과 원력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초청 강연〉

신행캘린더

10월 4일 (수)

■ 10월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를 초청해 10월 다보법회를 개최한다.(02)703-0108

10월 5일 (목)

■ 강남포교원 전법일 법회=서울 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신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한 날을 기념하는 전법일법회를 봉행한다. (02)539-2631

10월 6일 (금)

■ 봉은사 정대불사=서울 강남 봉은사는 오전 9시 30분 관전(版殿)경관 보존을 위한 정대불사 및 소금씻이 행사를 펼친다. (02)511-6070~4

■ 봉림사 백고좌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을 모시고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0월 7일 (토)

■ 연화사 지역 노인 초청 경노잔치=대구 연화사는 오전 11시 법당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 1천여명을 모시고 제 6회 노인 초청 경노잔치를 개최한다. (053)766-3747

■ 공무원불자회 성지순례=감사원을 주축으로 한 전국 공무원불자들은 7, 8일 월정사로 합동성지 순례를 떠난다. (02)721-9229 안홍부

■ 우리는선우 창립법회=우리는선우는 오후 3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립9주년 기념법회 및 화엄십승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2278-8672

10월 8일 (일)

■ 관문사 낙성2주년 기념법회=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11시 4층 옥불보전에서 낙성 2주년 기념법회를 가진다. (02)3460-5300

■ 강남포교원 성지순례=서울 강남포교원은 경북 김천 청암사로 가을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한서병원앞. (02)539-2631

■ 영기천도 및 보살계 수계법회=파주 보광사는 오전 10시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31)948-7700

■ 호국 홍불사 봉불식=김포 석정부대의 호국 홍불사는 10시 30분 봉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02)418-2435

10월10일 (화)

■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경주 불국사는 오전 10시부터 국가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 28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산대재에서는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의식도 함께 열린다. (054)746-9598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3기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기타 교육자료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마감 : 2000년 10월 12일까지(현재 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 2000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염불禪 특별정진

삼매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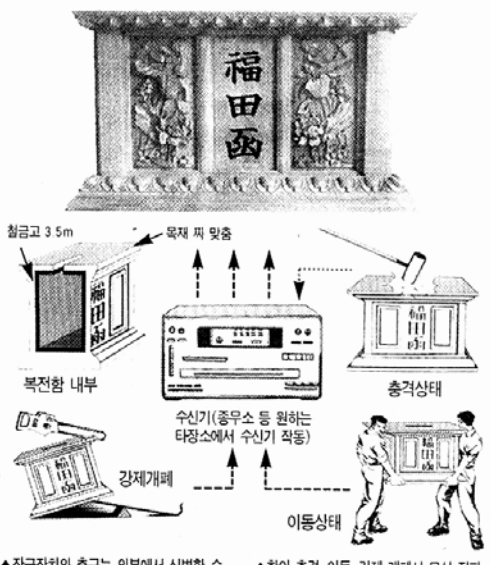
염불을 하지 않아도 염불소리가 들리는 공명 현상을 체험하고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저절로 염불이 되는 경지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석가모니불 자성염불, 행선염불, 와선염불, 고성염불, 미성염불, 수식관염불, 행주좌와 동정간에 염불 수행
■ 수행일정
법 당 : 5시~7, 10시~12, 오후 3시~4, 8시~10
행선코스 : 8시~9, 오후1시~2, 6시~7
■ 수련회비 : 1박 2일 (만원), 3박 4일(3만), 7,15,30,49,100일
■ 출가 예정자 수행체험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독경, 염불, 행선, 와선, 참선, 선체조 도인법을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체험하시고 출가하시면 출가 수행에 큰도움이 됩니다.
■ 매주 철야 정진 : 토요일 저녁 8 ~ 일요일 아침 7시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통불교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 771-7745
Fax (031) 771-6736

불 전 함

도난방지 장치 ◆특허 2000-0011559◆



◆잠금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작동 S/W전파와 개폐가 절대 불가함.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함의 충격, 이동, 강제 개폐시 무선 전파로 자체 경보는 물론 경비실및 원하는 타장소에 침입사실을 알려 줌.
◆본 함의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본 System에 대형 사이렌을 연결 중요시 설물에 방범용으로도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본 사	02) 737-8881
강릉지사	033) 643-5577
고성지국	055) 672-0078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부산지사	051) 463-5331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울산지사	052) 257-7737
진주지사	016) 585-2120
제주지사	016) 695-6885
중청지사	042) 527-0559
일본지사	031) 713-5111



박태원 교수의 6

불교로 보는 인생

'왜 사는가' 스스로 묻자

내몫 챙기기 급급 '사람의 보람' 뒷전

나는 가을을 심하게 탄다. 고운 단풍과 노란 감들을 정갈하게 담아내는 가을 하늘이 아찔한 유혹으로 다가설 때면, 차분하게 진행되던 일상의 패턴이 쉽게 동요하곤 한다. 특히 마무리와 쇠락의 기미가 선명해질 때면, 노을의 아름다움과 허허로움이 겹치면서 마음이 몸살을 앓곤 한다.

이 즈음이면 누구나 사색적이 된다. 인생에 대한 상투적인 질문들이 다시금 생기를 머금는다.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는 인생이 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부하긴 하지만 언제나 의미 있는 물음이다. 사회적 책무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던 학창 시절에는 제법 진지하게 되뇌어 보곤 하던 의문들. 그러나 벌어 먹고사는 현장으로 내몰린 뒤에는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미련 없이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잊었던 그 빛 바랜 질문들이, 불현듯 '나 여기 있소!' 하며 소매를 붙잡는다.

때 되면 재수 없이 도지는 난치(難治), 불치(不治)의 지병쯤으로 간주하고, 어물려 몇 잔 기울이며 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허전하다. 허세 아니면 열등감만 깊어질 뿐. 이런 사정을 통찰한 사람은 자기 변화에서 온전한 내 몫을 챙기려 한다. 소유물을 허덕거리며 쫓아가기보다는, 그 마음 그 주인공을 성숙시키는 일에서 인생의 가치를 확보하려 한다.

이 대목에 이르면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묻게 된다. 지난해의 주인공이 올해에는 어떻게 변해 있어야 든든하고 뿌듯할 수 있을까? 주인공이 인간 몸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이성(理性)과 사랑의 계발을 첫 손 꼽곤 한다.

이성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일은 아마도 인간만이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인생의 의미나 보람을 찾는 일은 인간만의 독특한 면모를 발전, 성숙시키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을 터. 그렇다면 이성이 발전한 만큼, 사랑이 성숙한 만큼, 인간 몸으로 사는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성에도 그늘이 있다. 이성이 분별지(分別知)에 그치면 오히려 자기 파멸의 함정을 판다. 그런 분별 이성의 그늘에서는 사랑도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 '지혜와 자비 키우기'가 부처님 해답이다. 이성의 분별마저 극복하는 통찰력(지혜), 그 지혜에서 저절로 발산되는 넓고 깊은 사랑(자비)의 능력을 동시에 키워 가는 것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사는 보람이란다. 지혜와 자비를 두 발로 우뚝 서려는(兩足尊) 노력이야말로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의미란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졌다면, 인생 제대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보람있고 가치 있으며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럴진대 소유물이 위협받는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런 사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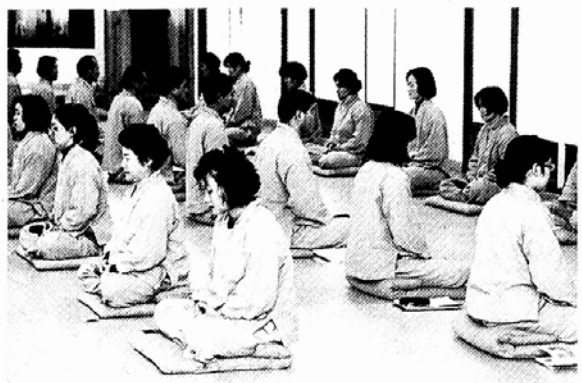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Q:수행 임할때 마음가짐은

A:믿음과 실천 하나로 흔들림없게

참물자의 길

초심자 수행, 이것이 궁금



◇요즘 참선 등 수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수행의 실제에 들어가기전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행법에 대해 살피는 것도 수행의 바른 길을 가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사진은 재가불자들이 참선하고 있는 모습.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으려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교 초심자인 변종호 씨(29·컴퓨터 프로그래머). 몇 권의 책을 통해서만 불교를 접한 변씨는 원력을 세워 수행을 하려하니 무엇부터 해야할 지 막연하고 궁금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변씨의 수행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에 대해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대답해 주었다.

—초심자들이 수행에 임할 때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신심과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라도 소홀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원력을 세운 사람들은 수행계획, 즉 언제 어디서 몇 시간을 수행할 것인지를 세워야 하고, 때때로 선지식들에게 수행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법에는 참선과 염불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참선, 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부르는 염불이 대중적이지요. 지은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포살, 일정한 기간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잠자지 않으면서 참선하는 용맹정진, 진언을 외우는 주력, 눈으로 경전을 읽는 간경, 석탈 동안

108배-1080배-3천배
절은 하심배우는 공부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연구와 정진하는 안거(安居)와 청소와 농사 등 사찰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일하는 운력도 있지요.

—염불과 주력은 어떻게 다른지요.

▲방편이 다를뿐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불에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를 생각(念)하거나 구체화된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리를 내어 부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지요. 주력은 문자 그대로 주문의 힘이란 뜻입니다.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는데 경전 문구중에서 함축 요약된 진언을 독송해 공덕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매일 108배를 하거나 1080배 3천배 등 절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수행인가요?

▲하심이 안되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이 바로 하심하는 수행법입니다.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집착을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몇 번의 절로써는 케케묵은 찌꺼기(번뇌)를 쏟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108배·1천배·3천배 등 수없이 절을 하며 업을 녹이는 것이지요.

—사경은 어떤 면에서 수행이 되는지요.

▲사경(寫經)이란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을 단순히 종이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해야 효과가 있지요. 사경을 하다보면 자연히 한자 한자에 마음을 쏟아 산란심이 없어지고 정신이 집중되는데 이럴 때 비로소 수행이 됩니다. 사경할

사경은 단순한 베낌아닌
경전의미 마음 새기기

때 성과에 급급해 많이 쓰거나 빨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경은 일심으로 정자체로 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흔히들 '화두를 잡고 참선에 든다'는 말을 하는데 화두는 무엇을 말합니까?

▲화두를 이야기 하기전에 공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공안(公案)은 원래 '관청의 공문서'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참선 수행에서도 절대적인 규범성과 관단의 준칙이 되는 핵심적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화두란 공안을 이루는 선문답 중에서 선사의 답변을 말합니다. 참선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안중의 핵심이 바로 화두이지요. 화두의 종류에는 대략 1천8백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널리 참구되는 것이 '무(無)'입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교육의 지향점 '앎과 삶의 회통'

㉘ 선과 교육(1)



서명석
외국어대강사
교육학

동양인인 우리들에게 동양의 전통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사유지평에서 무의식적으로 망각된 지 오래이다. 그 가운데 선의 전통도 예외일 수 없다. 예컨대, 선의 독특한 가르침과 배움의 양식인 선문답도 동양의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산사에는 아직도 살아 숨쉰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신비의 지대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동양인이면서 우리 전통에서 도망친 이방인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체감정도와 멀어져 있다해도 그것은 우리들 곁에 침묵으로 말 걸어온다. 왜냐하면 전통은 언제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범례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충원시키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것을 제쳐두고 남의 것 따라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나 보다. 이런 습성이 교육에도 그대로 묻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서 우리들의 서구추수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해방 후 근대화가 바로 서구화라는 도식으로 맞물리면서 교육의 근대화는 서구의 아이디어로 우리 교육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서 우리 것 즉 전통은 철저하게 미신 또는 비과학으로 평가절하 되면서 교육의 중심 무대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런 인식의 기저는 우리 것을 재평가하고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삭혀내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모두 직접 아니면 간접으로 교육의 수혜자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건강한가? 우리가 체험해 왔거나 지금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의 건강한 삶에서 일정 부분 이탈해 있다. 교육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핵심이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앎은 앎 자체를 넘어 우리들의 삶과 직접 회통하면서 우리들을 새로운 세계로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 교육이란 앎의 용적률을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라 앎이 바로 삶과 간격없이 만나면서 주체 실존의 장으로 이끌리는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이어받을 때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다. 그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을 앎의 장으로 이끄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육은 부족하다. 결국 앎은 교육에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우리 교육은 앎만으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기에 정확히 짚어보면 앎-중심의 교육서사이다. 이 속에서 삶은 앎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고집한다. 그러니 앎만으로 편입된 주체는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격조는 하락하고 존재는 허기진다. 이것이 심화되면서 주체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미끄러진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삶은 주체가 생존하는 거주공간이자 주체가 실존하는 체험의 장이다. 삶이 진공으로 처리되는 앎은 교육에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그런데 선은 주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 너머로 초월하며 주체의 실존을 문제시 삼는다. 이점 때문에 앎-중심의 교육서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로 선이 떠오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존재를 온택하게 해주는 작업이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주체의 승격을 촉발시킨다. 이런 공부의 축이 앎 중심의 교과공부에 의해 교육에서 지금 떠밀려나 있다. 이제 동양 전통의 한 자락이었던 선을 산사에서 속가의 세계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선의 현재적 소환이다. 그리고 나서 탈식민화의 여정으로 선이 전해주는 교육적 메시지를 진지하게 판독해야 하리라.

약력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박사
· 주요 저작:〈선문답의 탈 근대 교육〉(아름다운세상, 1999)
역서:〈선문답: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경서원, 1998)
〈동양의 인간과 세계: 물리에서 인리로〉(철학과현실사,2000)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0학년도

한국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에 나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동화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관허)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대종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종현대선사 취임
1988. 1. 10 제2대 대학원장 한정섭박사 취임
1997. 3. 1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한정섭 대법사 취임
1999. 10.30 제7대 학장 한정섭박사 취임
제5대 대학원장 석성륜스님 취임

1. 모집학과
(1)대학 :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학자격
(1)포교학과는 고졸이상 동등 학력소지자.
(2)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자 (2000.11.9. 입제식)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이력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반 명함판사진 3매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962-1666
(FAX)02-969-4981
(2)연수원(상락항 수도원) 031) 584-0657
(3)부산교육원 (051)703-7237 (4)대구교육원(053)743-1178
(5)구미교육원 (054)455-1068 (6)충북교육원(043)223-9026
(7)제천교육원 (043)646-3023 (8)안산교육원(031)431-4951
(9)포천교육원 (031)532-4565 (10)진해교육원(055)546-4186
(11)하와이교육원(808)550-4313 (12)수원교육원(031)244-4467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1)재학중 수업료 전액 면제(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3)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품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 (02)962-1666, 969-2410

한국불교예술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법무를 전수코져 제3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2. 모집기간 : 10월 24일까지 (24일 오전11시 입학식)
3. 교육과정 : 1·2학기 (1년) - 기본과정
3·4학기 (1년) - 연구과정
4. 동참회비 : 월 10만원
5. 특 전 : 1) 기본과정 1,2학기 수강자는 수료증수여.
2) 3,4학기 연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품수자격증을 수여함.
6. 문 의 : 02)962-1666, 969-2410 Fax : 02)969-4981
7.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 수
1년기본과정	1학기	육법공양 작법무·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2학기	천수바라 작법무·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1년연구과정	3학기	운심게 작법무, 사다라니 작법무·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4학기	삼귀의 작법무, 다게 작법무·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과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는 아직도 휴업중이다. 이에 시급히 처리해야될 민생 현안들, 즉 원유값 상승에 따른 물가의 불안정과 주식시장 붕괴 등으로 제2의 경제대란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이권을 앞세우며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함으로써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어록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치를 살펴보자. 〈편집자〉

이렇게 들었다

책임의식

내가 할일 어찌 태만하리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자신의 일에 태만하며 편하게 살지말라.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수행자가 중생을 돌봄에 있어서는 연민하는 마음,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을 내어 천지가 만물을 길러주듯 그렇게 중생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낱 개미라 할지라도 공포에서 건져 주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의무이다. 〈열반경〉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밤낮으로 게으름을 모르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 그를 일러 성자라 한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현재의 일에 충실하며 살고 있을 때 생활은 생기가 넘치고 맑아진다. 〈중대가전연일아현자경〉

▨통치자는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도 백성이 태평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통치는 불완전한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번영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력과 위엄으로 백성을 잘 보호해 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통치자만 백성이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벽암록〉

▨스님께서 평생동안 고상하고 절도있게 수행한 일은 형용키 어렵거니와 날마다 운력에는 반드시 남보다 먼저 나섰다. 일 맡은 이가 민망하게 여겨 몰래 연장을 숨기고 쉬기를 청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내가 할 일마저 어찌 남들에게 떠넘겨 수고롭게 하겠는가."

스님께서는 두루 연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공양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백장록〉

샴쌍둥이 수술 하나 살릴까, 둘 다 죽게 둘까

불자 세상보기

'조디'와 '메리'의 선택

하나의 삶속에 들어간 또 한 생명 두 사람의 삶이다

8월8일 영국에서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 '조디'와 '메리'의 분리수술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조디'는 정상적인 폐와 심장을 가지고 있으나 '메리'는 폐와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 조디의 핵심 신체기관에 의지해 살고 있다. 분리수술을 하면 조디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나, 분리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둘 다 죽게 된다.

영국 법원은 한 아이라도 살리자는 뜻에서 수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가톨릭 교회, 일부 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우리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며 두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느님의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다"며 분리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허덕이는 수준을 넘어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분만 중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병사의 희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 이런 죽음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도덕적 요소가 있다.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유대인 소피는 2명의 자식 가운데 한 명은 살릴 수 있다는 독일군의 결정을 받아든다. 그녀는 결국 한 명을 택하게 되고 남은 평생을 고통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한 몸뚱이 쌍둥이 여아의 경우는 다르다.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면 둘 다 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그럴 수 없다면 마땅히 한 아이라도 살리는 것이 차선이다. 아니 차선의 차원을 넘어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 두 생명 모두가 사는 거룩한 선택이다.

생명존중을 으뜸으로 여기는 불교에서는 '목숨있는 것을 제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생명존엄에 대한 최선이 가능한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둘 다가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라도 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하나의 삶 속에 또 다른 한 생명이 온전히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닌 두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다.

〈백유경〉에 독 속에서 머리가 빠지지 않는 낙타 이야기가 있다. 주인은 이 둘을 모두 구하기 위해 독을 깨뜨리고 낙타의 목을 잘랐다. 깨진 독은 붙이면 되고 자른 낙타의 목은 이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둘 다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마땅히 낙타의 목을 자를 것이고, 낙타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독을 깨뜨릴 것이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편적 '선(善)'이 낙타를 살리는 쪽이고 보면 당연히 독을 고집할 수는 없다.

물론 '보편적 선'이 누구에게나 절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조디와 메리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닌 두 아이 자신의 것이다. 부모의 선택이라 해도 사회적 윤리와 규범, 그리고 공리(公利)적 측면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술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구현가능한 '보편적 선'의 추구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열·린·마·당 동국대 불교대생의 轉科

동국대 불교대 학생의 전과(轉科) 문제에 대해 '허용·금지' 논쟁이 뜨겁다. 지난 6월 송석구 총장, 정용길 기획인사처장 등 동국대 주요 보직 교수들이 참여·발족한 불교대발전소위원회의 발전 방안 중 '전과 허용'에 대해 불교대 소속 교수 대부분은 조계종립인 동국대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위원회와 불교대 교수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허용 발전소위 입장

"교수충원·입학자격 조정 등 종립대 위상강화 모색"

학생의 전과는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 자유롭게 들어왔으니 또 자유롭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불교대 발전을 위해서는 '전과'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개혁과 발전의 주체는 불교대의 몫이고, 방안 역시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학교 행정력은 이와 같은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교수 충원' '입학 자격 및 응시 방법 조정' '대학원과의 연계' 등 불교대 발전을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수 1명당 11.2명의 학생 정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불교대의 경우 교수 1명이 3.6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법정 교원 수와 비교해 170%를 웃도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 행정은, 불교대가 동국대를 대표하는 단과대임을 감안해 3~4명의 고수를 더 채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불교학이라는 것이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 불교대 특별전형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추천 입학자 수를 2001년 1학기부터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학사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과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급변하는 교육 행정을 유념하지 않은 탓이다. 전과를 금지하면 당장 입학 정원 69명을 채울 수 있을지, 또 정원을 채운다 해도 성적 우수자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추천 입학 역시 20명을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불교대는 학생의 수의 감소보다는 현재 불교대 소속 학생들을 유능하고 심신 깊은 불자로 키우는 데 고심해야 할 것이다.

금지 불교대교수 입장

"학생·수강과목 둘다 부족 불교전공 졸업생 계속 줄어"

전과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불교대 학생 정원마저 줄인다면, 불교대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학교 당국은 불교대 소속 학과 현행 이수 학점인 70여 학점을 60여 학점으로 낮출 복안을 가지고 있어, 수강 과목 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학이 비인기 학문으로 추락하고 있는 데, 불교학은 부족한 '인적 자원'과 빈약한 '수강과목'이라는 두 가지 악재와도 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대 교수들은 전과 금지와 정원 충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의 전과는 교육법에 따라 허용해야 하고, 정원 확충은 타 단대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뿐 불교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유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BK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 '불교 특성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리어 '불교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대학원 중심제를 위해 단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학 없는 대학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정원 문제 역시 120여 명으로 늘어난 법대의 정원에 비추어보면, '형평성'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 불교계는 매년 젊고 유능한 청년불자들의 수혈을 기다리고 있지만, 불교대는 매년 69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모든 불자들의 불심을 지켜주고 또 일반인들의 발심을 돕기를 바라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불교대 교수들은 불교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전과 금지 ▲학생 정원 확충 ▲전공필수 부활 등의 학사 행정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기고

금메달 지상주의 우려하고 경계 땀흘린 모두에 박수



이우상 소설가

지구촌의 잔치인 올림픽이 끝났다. 청춘의 땀과 열정을 쏟아 금메달을 딴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기까지 그들의 뒤안에는 저마다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숨어 있을 것이다. 오로지 각고의 절제와 인내만을 강요당하며, 분투 노력만이 존재하는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숱한 괴로움의 역정은 잊혀지고 승리한 자의 기쁨, 이긴 자의 희열과 보상이 대기하고 있다. 그들이 치루어냈을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을 어찌 가볍다할 수 있으랴.

그러나 찬란한 금메달의 광채 뒤에는 덜 빛나는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 그리고 용마루 끝에 우뚝 선 금메달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거름이 되고 기둥이 되고 서까래가 된 무수한 무명 용사들이 있다.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닌 선수라도 혼자 달려서는 신기록을 수립할 수 없다. 함께 달려가는 동반자가 있을 때 신기록이 나온다. 이름이 가려진 동반자들의 노력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진정한 승리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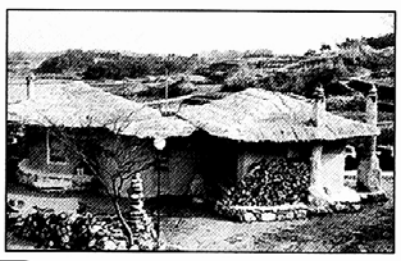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오만한 말이 있었다. 모든 노력은 금메달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금메달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육된 소수가 얻는 금메달보다는 건강한 다수의 기량과 지혜가 향상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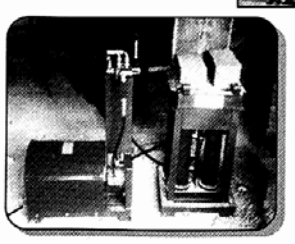
국가의 선진화란 건강한 다수가 함께 걸으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건강한 청년들을 금메달 한탕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금메달 획득 숫자로 종합 순위를 매기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통계학이라고 한다. 최선을 다한 이에게 보내는 격려와 박수가 금메달에게만 보내는 편협한 갈채보다 가치가 있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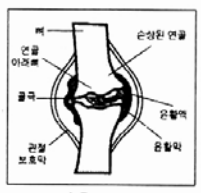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강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엎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정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괴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사·부·대·중

법다운 입산과 하산



주경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지금까지 살아온 세속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출가(出家)'를 위해 산사를 찾는다. 각기 결의와 사연을 가지고 입산(入山)한 사람은 '행자'로 불리며 반 년에서 1년 정도의 기초적인 학습과 수행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수가 넘는 행자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다시 하산(下山)의 길에 접어든다.

행자는 아직 스님의 계를 받지 않은 까닭에 오고 가도 서류상의 기록만 올리고 지우면 그뿐이다. 사람에 따라 자신의 출가 경험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일로 모두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하지만 사미(니)계나 구족계를 받게 되면 종단에 의해 승적이 만들어지고 부처님의 계법에 의해 공식 스님이 되는 것이다. '스님'이 되면 계율과 교단의 규칙에 의해 살아야 한다. 옷을 벗고 나갈 때에도.

부처님 당시 순타리 난다라고 일곱 차례나 스님의 계를 받은 분이 있다. 속가의 인연이 다하지 않아 일곱 번이나 재출가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교단은 스님이 환속하더라도 일곱 번까지 재출가를 허용하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남방불교의 단기출가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재출가를 위한 환속(환계)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에서 그 한가지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환속의 개념은 있어도 환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이다. 계를 받아 부처님의 법복을 입을 때는 법다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만 옷을 벗을 때는 아무런 과정과 절차가 없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삼 년쯤 보이지 않으면 '나갔나 보다' 하고, 나중에 입소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얼마 전 도반들과 환계에 대한 가벼운 분위기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환속하여 나간 사람들의 '승'도 '속'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익히 보아온 경험이 있는지라 어떤 형태로든 '환계법'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승려분한신고'가 혹 말없이 승복을 벗어버린 환속자나 환속을 해야 함에도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제대로 된 '환계법'의 시행으로 법다운 하산의 길을 여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목탁소리

불교미술대전 '유감'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일부 미술인들이 사찰 봉안 예정작을 출품하는 등 불미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순수한 차원의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상금에 작품구입비를 포함시켜 대상과 우수상을 종단에 귀속시키기로 했다."(조계종 문화부)

"작품 귀속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상금은 순수하게 상금 차원에서 주고, 작품은 작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값으로 주최측이 사들이는 게 진정한 의미의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다."(불교미술인들)

9월 28일 수상작 발표를 마친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여느 때보다 많은 과제를 던졌다. 논란의 발단은 작품귀속 문제였지만, 심사방법의 합리성과 공정성 문제, 주최자와 개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주최자인 조계종과 불교미술인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진정한 불교미술발전의 토대가 되지 믄한 채 왈가왈부의 수준에서 그친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30년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불미전은 그동안 일부 심사위원들의 인맥에 의한 수상자 선정, 공모 방침의 무원칙한 변경과 번복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 일부 불교미술인들 또한 창조적인 창작활동으로 불교미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전통작품의 모사에 그치거나, 영리목적을 위해 불미전을 이용하기도 해서 빈축을 샀다. 이번 불미전은 작품 귀속 문제로 일부 미술인들이 불참하면서 전통분야의 참가작품 수가 지난 17회 때보다 상당수 줄어, 결과적으로 수상작의 질적인 퇴보를 불러 오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측은 나름대로 공모방침을 확고히 준수해 운영면에서 내실을 다졌고, 진통속에서도 앞으로 이 방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불미전의 공신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 귀속 방침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켜, 응모작의 출품 수와 질을 떨어뜨리고 불교미술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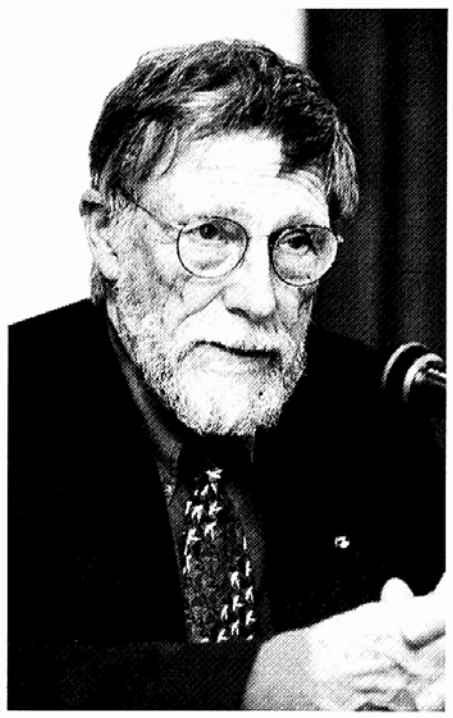
(ejlee@buddhapia.com)

"21세기 삶의 방식 바꾸는 불교"

인터뷰

한국 방문 개리 스나이더 교수

9월 27일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채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초청 연사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선한 눈빛의 미국인 할아버지가 세미나실에 들어섰다.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 · 70). 세간의 언어로 선(禪)을 노래하는 시인. 네바다시(市) 인근 불교생태마을의 촌장.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문명적 대안임을 노래하고 실천해 온 수행자. '선(禪)의 세계, 시(詩)의 세계'를 주제로 40여 분간의 강연을 마치고 강연장을 떠나는 그에게 불자로서, 시인으로서, 생태철학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물었다.



서구인들의 불교관
"소박하지만 깊은향기"

"불속에도 풀잎속에도 중생의 세계 있다"

—선생님은 시인이자 수행자입니다. 두 영역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요?

▲시를 쓴다는 것과 정신집중(명상)은 모두 인류의 7'원만큼이나 오랜 것이죠. 명상이 내적인 성찰이라면, 시는 외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명상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요,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입입니다. 전자는 깨달음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요, 후자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 어느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와 명상이 풀잎과도 같이 오래되고 평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와 불교는 반드시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이후 수많은 선지식들은 깨달음의 순간을 '게(偈)'라는 특별한 장르에 담아 노래해 왔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의 노래는 후대 수행자들에게 경탄과 사랑을 받습니다. 수세기 전 티베트 선지식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출판돼 적잖은 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사들과 수행자들은 늘 시를 써왔습니다.

—동양의 깨달음의 노래(悟道頌)가 서구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것은, 불교가 서구의 주류 문화에 들어서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에서 불교는 19세기말부터 동양의 선지식들에 의해서 강하게 어필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전에 스즈키 로시(일본 스님)가 있었다면 지금은 달라이 라마(티베트 스님)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인들이 불교에 주목하는 부분은, 예전의 전통으로 경험할 수 없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면입니다. 더욱이 이면에 다가서는 방법(수행)이 더없이 손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불교에 대해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매년 명상 캠프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다른 종교와 비교해 불교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명상과 같은)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관찰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서구인으로서 예전에 결코 맡지 못했던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짙은 향기의 꽃이라 해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꽃의 향기를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21세기의 대안(代案) 문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세간의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대안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세기를 반성하며, 변한 모습으로 21세기를 맞이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변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일종의 법계(法界)에 다가서는 일입니다. 옛 선지식은 "산은 나라에 속하나 실제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헌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이 실천과 통찰로써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맞추며 남들의 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불교. 이것이야말로 '불교는 21세기 대안 문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꼭 어울리는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어떤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틀은 정신적·물질적 영역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구의 틀의 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기는 하나의 틀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등을 하나로 엮은 인드라망을 가지고 있는 불교는, 세기의 요청에 따라, 모든 틀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리 스나이더 약력

193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생. 리드 대학, 인디아나·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문학, 인류학, 동양어문학 전공. 1960년대 대부분을 일본에서 선불교 연구. 1974년 〈거북섬〉으로 퓰리처상 수상. 1983년 〈도끼 자루〉로 미국우수도서상 수상. 現 미국 UC Davis 대학 문학교수.

주요 작품으로 〈신화와 텍스트〉, 〈파도를 바라보며〉, 〈끝없는 강산〉, 〈흙집의 은신처〉 등 13권의 시집과 〈오래된 방편들〉 등 2권의 수필집이 있다. 국내에는 〈무성〉과 〈야생의 삶〉이 출간됐다.

—선생님이 미국 네바다시 지역에서 '생태철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법계라는 틀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부처님의 중생관은 우리 주변 모든 것, 모든 곳에 투영됩니다. 구름 속에도, 불 속에도, 풀잎 속에도 중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태철학은 윤회와 같은 의미의 '삶과 죽음의 바퀴로 돌아가는 자정능력' 즉 '신진대사'의 존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의 신진대사에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육도중생이란 모든 정신적 생물적 존재입니다. 생태철학자로서, 나아가 불자라면 그 동물과 같이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계입니다.

—선생님은 불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있어 불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명상을 하며, 틈틈이 경전을 읽습니다. 신심을 놓지 않고 계속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심에 대한 실천이죠. 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배움에 대한 실천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출간한 〈우주의 한 곳(A Place In Space)〉은 수십 년간 경전을 읽으며 모았던 문구를 묶은 것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것 역시 부처님에게 배운 '보시'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은 시인이 본 스나이더

"삶의 주제 '공존공생'"

1997년 겨울 버클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가 불교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불교적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일찍부터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된 가치와 온갖 사물에 익숙해 있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상즉적(相卽的)인 일부로서의 인간 존재를 허용하고 있는 자연 그 자체가 그의 사상인 것이다.

그는 늘 생존과 상응, 합류와 일치를 향해 가고 있다. 공존공생이야말로 그에게는 오래된 삶의 주제였고 흑과 백, 동과 서의 각 종족들의 깊은 곳에 담겨 있는 문화들을 아우르는 무아무성(無我無性)이, 그가 도달한 경지이기도 하다. 그가 열어 보이는 무성(無性)은 자성(自性)이거니와 그것은 본질적인 것까지도 넘어서야 하는 근본으로서의 자연 그것이다.

정리=권형진 기자



◇9월27일 동국대에서 열린 개리 스나이더 초청 강연회.

2000년 10월 9일 배포!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 용 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윤문
4×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색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인조가죽 카바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아귀·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제불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관재구설·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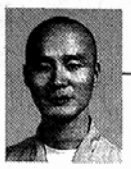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불사회향 · 회갑 · 진갑 · 칠순 · 49재 · 100재 · 영가천도를 위한 법공양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바로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447 (김정길)

문서포교에 앞장서는 弘法院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9-8745 / 734-7614 / FAX 735-2344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금강경 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법보종찰(法寶宗刹)로 불리우는 해인사다. 여기에선 매일 저녁 예불 후 〈금강경〉을 독송한다. 해인강원 학인들과 대중 스님들 100여명의 묵직한 목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퍼지니 또 하나의 장엄이다. 독경소리는 마치 저녁 햇살을 받아 너울거리는 나비의 날개짓 같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나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돈이 많아야 할까? 명예가 있어야 할까? 대체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다. 이러한 질문들을 속으로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질문에 답하는 부처님의 음성이 〈금강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잘 살고자 한다면 잘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먼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가 선결문제일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써도 다 하지 않는 것이며, 근심과 고통이 없는 것이요, 흥망성쇠의 변화가 없는 것이요, 해탈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누가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잘 살고 있는 이는 누구이며, 또 애써 몸소 행하는 이는 누구인가?

현대는 외부세계에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대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리다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며 '마음'으로의 회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 즈음 종교가 얘기된다. 모든 종교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대승불교도 마찬가지다. 종교의 가르침은 앞에서 물었던 물음들에 대한 체득에 다름아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의 가르침과 행위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금강경〉에서는 윤리적 실천을 공(空)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남을 위한 보시는 선행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집착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게 될 경우 흔히 어떠한 형태이든 그 흔적을 남겨서 어떤 보람이나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여 하신 말씀이 자취를 남기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그 대상과의 대립되는 감정을 공(空)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 혜능(六祖慧能)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은 무념(無念, 생각이 없는 것)으로 종(宗)을 삼고, 무상(無相, 모양이 없는 것)으로 체(體)를 삼고, 무주(無住, 머무름이 없는 것)로써 근본을 삼는다고 했다.

알되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내용 가운데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라는 말이 있다. 〈금강경〉의 핵심이다.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이 말은 곧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는 〈금강경〉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성숙되어지면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 사는 길인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곧 무념이요, 무상이고, 무주인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무념 무상 무주로 살면 집착없이 잘사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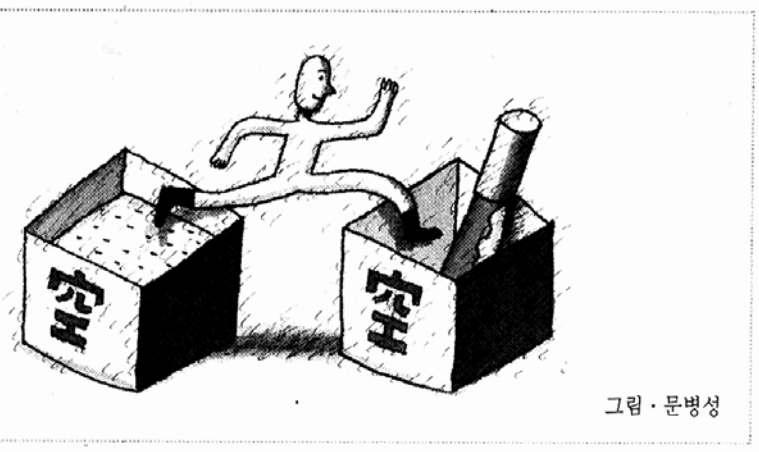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空은 허무아닌 존재의 다양성

불교와 과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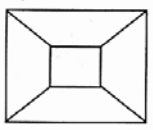
최종덕 〈상지대 교수〉

삶의 임상학

구름이 없다면 하늘의 깊은 맛도 느끼지 못한다. 가을 하늘에 먼 구름이 나름대로의 모양을 꾸미고 있으니 하늘의 장엄함이 비로소 꽃피게 된다. 구름 한 무리가 낮은 땅에서 높은 하늘에까지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한참 후에 보니 용의 형상은 간데 없고 흩어진 조각 구름만이 있었다. 용의 하늘 무늬를 이 쉬워한들 모두가 지나간 것이며, 잡히지 않는 흐름이었다.

무상함의 깨달음은 부정의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곽 차 있음에 대한 새로움의 깨달음이다. 구름무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원래 없었던 구름무늬를 없다고 느끼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구름무늬가 없다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을 새로이 고쳐먹고 원래 있는 것을 있다고 느끼는 일은 쉽지가 않다. 무상의 깨달음은 있음과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되는 것과 없게 되어 가는 흐름에 대한 깨달음이다. 결국 무상을 아는 일은 새로움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새로움을 내 몸의 언어로 발산시킬 수 있는 행위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용의 무늬가 없어짐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상이 무한히 그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바로 무상을 아는 일이다. 용의 구름무늬가 없어 졌다고 해도, 하늘은 다시 용궁이나 백두산, 혹은 새털이나 로봇 태권 브이의 구름무늬가 다시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로이 갖게 된 것이다. 무상은 있음의 지워짐이 아니라 있음의 다양성을 슬쩍 말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은 허무와 적멸의 실존논리가 아니라 새로움의 존재논리이다.



선재라는 사람이 있다. 선재는 이 그림을 터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선재는 작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 그림을 지붕으로 보게 되었다. 선재가 터널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지작용에 대하여 후회와 어리석음을 내뱉으면서 현상계의 무상함을 말했다. 어제 마시던 해골의 물이 오늘도 여전히 같은 물이거늘 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선재의 어리석었던 어제가 오늘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는 마음은, 터널이 지붕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을 보는 마음은 같은 대상이라도 터널로도 볼 수 있고 지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산출하는 마음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있는 없음'이며 '없는 있음'이다. 어렵게 말해서 이를 일러 공의 논리라고 한다.

칼녹여 쟁기 만들듯 무상은 없음과 달라

보통 말하기를 공이란 꽉 차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는 것도 고정된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빈 하늘만을 보고 하늘을 쉽게 눈치챌 수 없듯이, 공 역시 비어 있는 공만을 말하면 너무 어렵고 형이상학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공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아는 일은 단순한 형이상학의 깨달음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면 더 좋다. 공(空)은 대장간에서 무엇인가가 만들고 있는 일이다. 못쓰는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기도 하고, 쟁기를 다시 녹여서 문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칼은 있는 것이지만 칼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칼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녹은 쇳물은 여전히 있다. 대상을 말할 때 칼의 입장에서 말할 때와 쇳물의 입장에서 말할 때 공의 뜻은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는 현대라는 시간의 배를 타고 있다. 그 배는 과학, 이성, 기술, 소외, 자본이라는 몇몇 돛대를 달고 그냥 앞으로 항해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과학이라는 돛대가 가장 큰 휘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칼의 입장에서 과학과 공의 세계를 비유하는 일은 피상적이고 현상을 변명하는 일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쇳물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과 공의 세계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럴 때 불교는 고증학이나 박물관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임상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과학과 불교라는 지면공간을 앞으로 펼쳤으면 한다. 필자의 능력에서 그것이 가능하면 말이다.

수행과 울력으로 고국의 자유 지킨다

지구촌 불교 망명 티베트 비구니

91년 티베트 라사의 바코르 광장에서 '티베트 자유'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티베트 비구니들. 미국의 시사불교잡지 〈트라이시클〉이 인도로 망명해 현재 다람살라에 살면서, 티베트의 수행과 문화를 지키고 망명정부의 기금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이들 스님을 특집으로 다뤄 주목된다.

"동족이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광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내 삶과 가족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티베트를 방문해 이 광경을 한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20여 일간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히말라야를 넘어, 92년 인도로 망명했다는 린진 초엔이(Rinzin Choenyi) 스님. 바코르 광장 시위로 수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것도 부족해, 감시를 받는 게 싫어서 망명을 결심했다는 스님은 현재 다람살라 외곽에 있는 감비르 간지(Gambir Ganji)에서 수행과 울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곳에는 린진 스님과 비슷한 여정을 걸어 온 80여 명의 비구니가 있다.

감비르 간지는 다람살라의 아니콤파(티베트 비구니 사원) 중에서 규모가 큰 축에 속한다. 이 곳에서 자동차로 90여 분 거리에 티로푸르(Tilokpur)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도 60여 명의 망명객이 있다.

수행과 울력은 티베트 비구니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수행은 티베트 불교의 교학과 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고, 울력은 티베트의 자유를 되찾고자 앞장선 망명정부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가게일 돕고 거리 홍보 망명정부기금 조성 한몫



◇울력하고 있는 티베트 비구니.

티베트 불교의 교육은 매우 까다롭다. 교육은 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인데, 경전을 외울 능력이 돼야 비로소 사미니계를 주고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다. 이후 10여 년 동안 불교 논리학, 인식론, 중관, 구사론, 율장 등을 배우게 되는 데, 이때 비구니(티베트어로 '아니')라는 호칭이 주어진다.

울력은 주로 아침 · 저녁의 공부 시간을 피해 뜨거운 햇살이 나는 낮에 한다. 이 울력에는 사찰 일 이외에도 망명정부의 기금 조성 활동이 포함된다. 티베트 비구니들은 이 기금을 주로 다람살라에 있는 가게를 돕거나, 외국 관광객에게 '티베트'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성하는 데,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은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여성연맹'의 지원금과 함께 망명정부에 전달된다.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비구니의 삶을 조명한 〈트라이시클〉지 수잔 니콜라이 기자는 "망명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티베트 비구니로서,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불자들에게 티베트 비구니에 대해 관심을 두자"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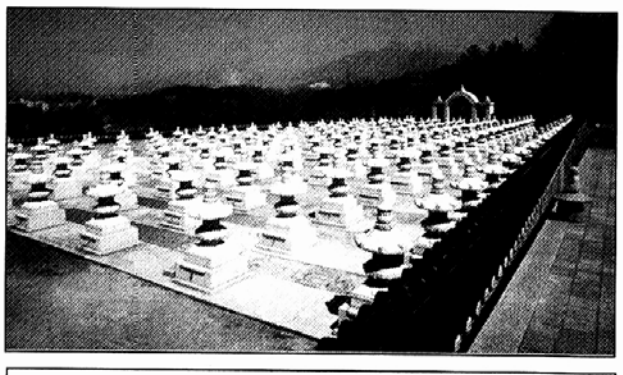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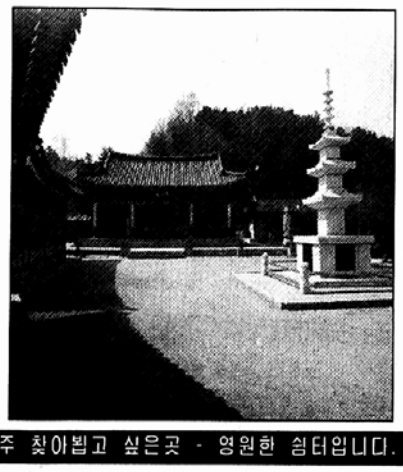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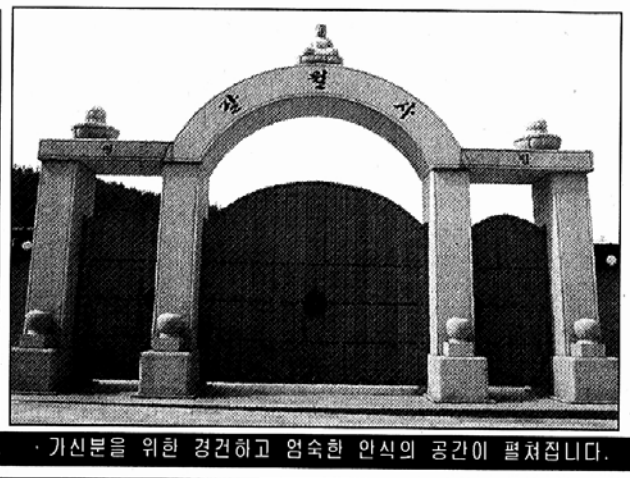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한불교예술원



◇강인한 생명력으로 철마다 다른 얼굴을 내보이며 분황사 경내를 장엄하는 들꽃들은 모처럼 고찰을 찾은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

분황사에 가면 '들꽃만발'

가을 햇살 받은 들꽃
모전석탑과 어울림 정겹다

주말이면 학생들 찾아와
자연 배우며 웃음꽃 활짝

천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온 고찰 분황사의 가을은 특별하다. 어디 가을 뿐이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다.

신라 최초의 석탑인 국보 제30호 모전석탑의 고색창연함이 분황사의 옛 모습을 오늘에 잇고 있는 가운데,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따라 향긋한 꽃내음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흩날리는 어여쁜 우리 들꽃이 분황사의 오늘에 또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철마다 다른 얼굴들을 내보이며 분황사 경내를 장엄하는 들꽃들은 지난 95년 주지 종수스님의 원력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관광사찰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모처럼 사찰을 찾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사찰과 들꽃의 조화 속에 무언가 다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약 40여종의 들꽃들은 철따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고, 언제 찾아가도 활짝핀 들꽃들이 오는 이를 반기는 경주지역의 명소 아닌, 명소가 된 것이다.

현재 분황사의 들꽃은 경주시 월성동사무소, 불국동사무소, 경주교육문화회관 등 관공서와 호텔을 비롯해 화랑초등학교, 흥무초등학교, 경주여고 등 곳곳에 퍼져나가 있다. 또한 스님은 소극적인 분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씨도 받게 하고, 분종도 자유롭게 허락한 덕에 경주 시내 곳곳에 두리 들꽃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벌개미취, 패랭이, 눈개쑥부쟁이, 용담, 할미꽃 등 다수의 들꽃을 분종해 나눠주었다. 종수스님은 주말이면 들꽃 자연학습을 나온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고생들에게 직접 우리들꽃에 대해 설명해 주며, 더많은 이들이 우리 들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9월 23일 토요일 오후에도 종수스님은 문화재 체험학습 숙제를 위해 분황사를 찾은 경주 근화여고 1학년 학생들에게 분황사의 들꽃에 대해 자상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층꽃나무는 7월~9월에 꽃을 피우는데 줄기 맨 윗부분부터 계단상으로 꽃이 피는 모습 때문에 층꽃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어. 층층이꽃이라고도 하지. 우리 분황사에는 보랏빛 꽃만 피어있지만, 흰색 층꽃나무도 있어. 성질이 강건해서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들꽃이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 종류의 나무와 들꽃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400여종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 특산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언뜻 보면 작고 볼품없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소박한 듯 화려하고, 화려한 듯 소박한 그 깊은 매력에 대해서도 무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산길을 떠나올 뿐 그 이상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들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름 모를 들꽃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지도 모르겠다.

반면 가을 들녘 곳곳을 장식하며 오가는 이들의 사랑을 받는 코스모스와 하루종일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 해가 진 뒤 달을 바라보고 꽃을 피우는 달맞이꽃은 각각 멕시코, 북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인 외국식물이다. 외국에서 들어와 정착해 우리나라 순수 들꽃보다 더 유명해진 이들을 귀화식물이라 부르는데 전국에 280여종이 분포돼 있다.

우리 들꽃보다 오히려 더 잘 알려진 이들 귀화식물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들꽃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분황사의 들꽃은 작아서 오히려 강한 저항의 몸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 우리 산천의 정기를 이어 그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들꽃들이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방금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모습으로 수만 년을 이어온 그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들꽃들은 해마다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겨우 한 해 혹은 두해를 살다가는 것도 많다. 하지만 들꽃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명을 이으며 오늘을 산다.

종수스님의 들꽃 재배비결은 따로 없다. 그저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게 놓아두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식물들도 생명이 있는지라 세력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의 영역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럴때면 세력이 강한 것을 뽑아서 다른 곳에 심어 주기도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천연재료로 만든 퇴비를 들꽃 주변에 뿌려주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지요. 나머지는 들꽃 스스로 요령을 터득해 가면서 분황사 주변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피고 지고를 반복할 뿐입니다."

한국불교의 대맥인 원효스님이 머물면서 〈화엄경소〉〈금광명경소〉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던 분황사. 그곳에서 수많은 외국식물들을 제치고 우리 땅 우리 문화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분황사의 들꽃들은 앞으로 분황사가 추진하게 될 중창복원불사와 함께 보다 넓은 지역에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글=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층꽃나무



◇섬기린초



◇도리지



◇부처꽃



◇초롱꽃



◇두메부추



◇벌개미취

대표적인 우리들꽃

▲섬기린초=울릉도 해안가 바위 위에 나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7월~9월에 황색의 꽃이 피는데, 줄기 끝에 20~30개의 꽃이 달린다.

▲부처꽃=7~8월경에 꽃이 피는 부처꽃은 초원과 산자락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줄기는 곧게 자라고 가지가 많이 벌어지며 꽃은 잎과 줄기의 겨드랑이에서 3~5개가 모여 핀다. 관상용으로도 좋다

▲도리지=산과 들에 나는 여러해살이 풀로 관상용이나 먹거리로 재배하는데, 40~100센티미터 높이까지 성장한다.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으로 7~8월에 피는데 줄기 끝에 한개 또는 여러 개가 위를 향해 피며, 끝이 다섯갈래로 갈라져 있다. 뿌리는 식용 또는 약용하는데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가래, 코막힘, 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

▲층꽃나무=키가 30~60센티미터에 달하는 층꽃나무는 전체에 잔털이 나있고, 7월~9월 원줄기 끝과 가지끝, 각 잎 겨드랑이에서 흰색 또는 보라색 꽃이 층층으로 핀다.

▲두메부추=여러해살이 식물인 두메부추는 5월~10월에 연분홍색의 꽃이 핀다. 꽃의 모양이 난상 타원형으로 독특하다.

▲초롱꽃=백두대간의 등줄기를 타고 백두산 지역에까지 분포하는 초롱꽃은 백두산 해발 1500미터 지역 숲 가장자리의 풀밭과 그 이하 산지에서도 자란다. 5월~7월에 꽃이 피는데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이다. 긴 꽃자루 끝에 길이 4~5센티미터쯤 되는 종 모양의 꽃이 달려 있다.

▲벌개미취=햇볕이 잘들고 습기가 충분한 계곡에서 자라는 벌개미취는 6월~10월 연한 자주색 또는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운다. 눈개쑥부쟁이와 마찬가지로 국화과에 속하는 벌개미취는 도로 주변이나 화단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다.

▲해국=바닷가에 피는 국화라 하여 해국이라 부른다. 중부 이남의 바위 위에서 가을에 연보랏빛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나고 줄기는 비스듬히 자란다.

들꽃 키우는 법

가을에 피는 들꽃은 봄에, 봄에 피는 들꽃은 가을에 심어야 하는데 특히 집에서 키울 경우 가장 햇빛이 잘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심어야 하며, 자주 물을 주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두뿌리식 따로 키우기 보다는 모둠으로 기르는 것이 훨씬 좋다. 도라지, 초롱꽃, 원추리, 비비추 등은 어디서나 잘 적응하는 들꽃으로 소형화분이나 화단에서 조경용으로 가꿀수 있다. 집단 재배용으로 좋은 벌개미취, 구절초 등은 토질도 별로 가리지 않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서 키우기가 쉽다. 온가족이 우리 들꽃을 가꾸다보면 우리 꽃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가까운 농원이나 야생화 전문 판매점에서 우리 들꽃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배죽



만성인후염·복통·변비에 효과

일반 대중음식과 구별되는 '선식'은 자연 그대로의 섭생, 그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선식의 특징은 수행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닦게 하기 위한 소식(小食), 소찬(小飯)이 전제로 되었다.

선식의 정점은 죽으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장려하신 것도 죽식(粥食)이다. 그래서 당시의 수행자들은 아침에 반드시 죽을 먹었다. 불가의 대표적인 음식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분율〉에는 죽의 5가지 공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공복감을 없애준다. 2. 갈증을 없애준다. 3. 소화가 원활해진다. 4. 대·소변을 잘 조절해 준다. 5. 풍(風)을 없애준다.

이밖에도 죽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넘쳐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몸과 마음을 함께 아우르는 아주 특별한 '선식단'인 사찰의 음식은 건강식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총명하게 돕는 지혜식이자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식의 의미까지 소복이 담겨져 있다.

월정사의 탄허스님, 해인사의 성철스님, 송광사의 효봉스님, 통도사의 경봉스님 등등 우리나라 고승들이 전하는 산사의 선식단을 순례하며 스님들이 즐겼던 음식과 그 탁월한 효능을 살펴보자.

먼저, 불교 최고의 학승으로 〈화엄경〉 120권을 번역하신 탄허스님은 배죽을 비롯하여 잣죽과 곤드레죽을 즐겨드셨다. 오대산의 배가 유명하여 오대산의 선승들은 배 달여 먹기를 즐겼다 한다. 또한 스님은 오대산 주변의 향토식인 올챙이묵이나 총떡, 노리대, 전오기, 콩품나물쌈들을 드셨다.

탄허스님이 즐겨드신 이 음식들은 수험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식으로 권할만 하다.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배 500g(중간 크기 2개) 현미찹쌀 100g(⅔c)

요리법 ① 충분히 불린 현미 찹쌀을 팔팔 끓이다가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인다. ② 배는 강판에 갈아 즙을 만들어 두었다가, 죽이 다 되면 함께 섞어 먹는다.

효능 만성 인후염, 변비, 영양불량, 발열, 복통, 감기, 말을 많이 하는 교사 등에 특히 좋다.

필자약력 약선식 연구가. 〈사찰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①

恭聞 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공문 인인지이도자 인지이기
離地求起 無有是處也
이지구기 무유시처야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미일심이기무변번뇌자 중생야
悟一心而起 無邊妙用者 諸佛也
오일심이기 무변묘용자 제불야
迷悟雖殊 而要由一心則離心求佛者
미오수수 이요유일심즉이심구불자
亦無有是處也 自妙年 投身祖域
역무유시처야 자묘년 투신조역
遍參禪肆 詳其佛祖 垂慈爲物之門
변참선사 상기불조 수자위물지문
要令我輩 休息諸緣 虛心冥契
요령아배 휴식제연 허심명계
不外馳求 如經所謂 若人欲識佛境界
불외치구 여경소위 약인욕식불경계
當淨其意如虛空等之謂也
당정기의여허공등지위야

삼가 들으니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난다' 하였다. 땅을 떠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마음이 미혹해서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고, 한 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묘용을 일으키는 사람은 부처이다. 미혹됨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지만 요는 마음이므로 마음을 떠나 부처를 찾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다.

나는 소년시절부터 조사문에 투신하여 두루 선방을 찾아다녔는데, 불조(佛祖)께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신 문을 살펴보건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반연을 쉬고 마음을 고요히 비워서 밖으로 구하지 않게 함이었다. 말하자면 경에서 "만일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허공처럼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凡見聞誦習者 當起難遇之心
범견문송습자 당기난우지심
自用知慧觀照 如所說而修則可
자용지혜관조 여소설이수즉가
謂自修佛心 自成佛道 而親報佛恩矣
위자수불심 자성불도 이친보불은의
然返觀我輩 朝暮所行之迹
연반관아배 조모소행지적
則應依佛法 裝飾我人
즉응의불법 장식아인
區區於利養之途 汨沒於風塵之際
구구어이양지도 골몰어풍진지제
道德未修 衣食斯費 雖復出家
도덕미수 의식사비 수부출가
何德之有 嘻夫欲離三界
하덕지유 희부욕리삼계
而未有絶塵之行 徒爲男子之身
이미유절진지행 도위남자지신
而無丈夫之志 上乖弘道 下闕利生
이무장부지지 상괴홍도 하궐이생
中負四恩 誠以爲恥 以是長歎
중부사은 성이위치 이시장탄
其來久矣
기래구의

무릇 보고, 듣고, 외고, 익히는 자가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마음을 찾아 스스로 지혜로써 관조하여 말한 것처럼 닦아간다면, 참으로 스스로가 불심을 닦고 스스로가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 무리들이 조석으로 하고 있는 행적을 보면 불법을 빙자해서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을 꾸미고 이해 득실의 길에만 매달리며 세속적인 일에만 골몰하여 도덕은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다시 출가한들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슬프다. 삼계를 여의고자 하나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이 없으니 한갓 남자의 몸일뿐 대장부의 뜻이라고는 없다. 그래서 위로는 큰 도를 어기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이 없고, 가운데로는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리는 꼴이니 참으로 부끄럽다. 내가 이를 장탄식하여 온 지가 오래였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한마음 미혹해 번뇌 일으키면 중생
한마음 깨달아 묘용 일으키면 부처

이번 호부터 지눌(知訥) 보조국사(普照國師 1158~1210)의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연재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당시 출가 수행승들이 수행은 하지 않고 세속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있는 것을 개탄하고, 나아가서 불가의 본분인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닦아나가자고 호소한 글입니다.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불교의 병폐를 피해친 것 같아 출가자나 재가자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주는 법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함께 발심하여 좀 더 부처님의 지혜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큰 스님과의 대화

운문스님

운문사 주지

이제는 절기상으로 완연한 가을이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아 삼각산 자락에 있는 운문사로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구슬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언제 아셨는지 주장자에 의지해 문밖까지 마중을 나오신 스님의 해맑은 미소를 대하니 산등성이를 오르던 피곤함이 눈녹듯이 사라졌다.

40여년동안 어린이 찬불가 포교를 수행이라 생각하고 전념해 오신 스님께 어린이 불음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여쭈었다.

운문스님은 "새싹불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천진불심을 잘 키워주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불사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건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노래지요"라고 말씀하신다.

찬불가란 이름조차 생소했던 60년대부터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를 만드시고 가르쳐 오신 스님은 찬불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하는 것도 기도나 염불 못지 않은 중요한 생활속의 수행이라고 강조하셨다.

"어린이의 맑은 불성 어른까지"



· 1928년 전남 장성 生
· 44년 망월사서 인곡스님을 은시로 득도
· 53년 해인사 전문강원 수료
· 63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87년 제1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 90년 2월 11일 제3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 현재 한국불교 음악협회 총재 겸 이사장
서울 구기동 운문사에 주석

—스님이 출가하신 1940년대만 해도 스님들은 참선과 기도 등을 통해 중생제도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수행자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이 어린이 찬불가를 포교 방편으로 삼으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6.25 전쟁이 끝난 1955년경으로 불교정화 직후였지요.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종단에서 속가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가 포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 도반들 4명과 함께 목포 정혜사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포교를 하다 나주 심양사 주지 소임이 맡겨져 나주로 거처를 옮겼지요. 선방에만 있다가 막상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신도들을 접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한 신도가 찾아와 스님은 점을 안봐주시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척 아팠어요.

신도들을 보내놓고 방에 앉아 곰곰히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중에서 배운 불교는 이런게 아니다 싶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두 정법과는 동떨어진 기복 신앙에만 빠져 있었지요. 이렇게 기복과 주술로 빠지는 것은 어릴때부터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기성세대는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려 할 수 없지만 어린이들을 일찍부터 포교하면 그런 생각을 안할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어린이 포교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 속에는 천진불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맑은 불성을 어른이 될때까지 계속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어린이 포교 방법이었어요. 지루함을 금방 느끼는 아이들에게 핵을 통해 딱딱한 불교 교리만을 가르치면 포교 효과가 적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음악을 통해 포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법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그 모임이 화합할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길이 '노래'라고 생각했지요. 특히 부처님 말씀을 흥겨운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면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어 포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그때 30년 어린이 찬불가 포교불사의 원을 세웠습니다.

—스님이 어린이 찬불가 포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찬불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찬불가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포교를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60년대 초반 목포 정혜사에 다시와 어린이 법회를 만들 때만 해도 불교 노래는 거의 외국곡에 가사만 바꿔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분명히 불교것인데 멜로디는 찬송가인 것이 많아 어린이들이 혼란스러워 했지요. 지나가다 만나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곡들이랑 똑같은 것들이 많아 어느 것이 진짜 불교 노래냐고 물어오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당시 목포에 있는 중학교 음악교사인 김재민 선생에게 가사를 4곡 정도 써주면서 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창작 찬불동요가 바로 '경배하세'입니다. 이 곡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학교 교가를 죽 모아 가사만 찬불가로 바꿔 부르곤 했지요.

나도 초창기에는 노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작곡에 대한 개념이 없어 교회 곡중에서 오래되고 안쓴 것들만을 골라서 가사만 붙여 부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교회 성가곡들은 일본곡들을 표절한 것이 많아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 초기의 찬불가는 일본 성향의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요즘 작사가들 처럼 내 작품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널리 보급해야 겠다는 마음뿐 이었지요.

이러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찬불가 제작에 들어갔던 것은 대구 관음사 주지로 있을 때 기타 전문가인 추월성 선생을 만나면서 부터입니다. 추월성 선생을 모셔다 관음사내에 방을 마련해 주면서 내가 가사를 쓰면 바로 곡을 짓게 하는 등 열심히 찬불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구 관음사에도 어린이 법회가 있었는데 마을 애들이 절에 와서 법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만든 찬불가를 부르며 즐거워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노랫말을 만드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의 길이라 상당한 고통이 따를 텐데요. 스님께서는 대략 6백여곡이 넘는 찬불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곡들을 어떻게 만드셨는 지 알고 싶고요. 창작이 잘 안될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나는 가사를 짓는데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잘 옮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선 노랫말을 짓기 전에 경전과 게송을 갖다 놓고 뒤져봅니다. 이러다가 감명을 받은 조사 스님의 게송을 인용해 지은 곡들도 많지요.

경전을 오래 읽고 그 의미를 곱씹다 보면 노랫말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입속에서 계속 맴돌던 말들을 종이에 붓가는대로 적어 놓으면 노래가 돼요. 하지만 가사를 쓰는 것도 창작인지라 안써질 때도 많습니다.

갓바위 소원성취 달마도

스님의 채색 전신 달마도!!!
소장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신비의 달마도!!!



▶ 사업 실패, 가정불화,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부동산 매매
▶ 수능시험, 국가고시, 자격시험, 승진시험, 답답하고 초조하신 분 망서리지 마시고 전화 하십시오.

지 장 선 원
(053)982-4976 / 011)813-3679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 이 민택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퍼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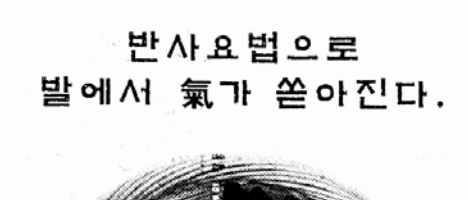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남 여	130,000
누비 (上,下)	남 여	180,000
방한복 (上)	남 여	130,000
바랑	大 中	30,000 25,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건강 숯 양말 특허상품



반사요법으로
발에서 氣가 쏟아진다.

◆ 건강숯 양말
· 피로회복, 혈약순환, 향균발생
· 원작외선 차단, 음이온 발생
· 무좀방지, 피로회복

※ 건피부(발이 갈라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숙취해소
· 원적외선 차단



◆ 특별할인 전시 판매가격
男 10컬레 35,000
女 10컬레 30,000
(타지방 부쳐드림)

숯양말 신으면!!
장뇨에는 장이 안오름

올추석 선물은 건강 숯 양말로!!

대구 문화의 거리에서 2000년 신바람 150인 부채 그림전에 특별 아트 기획 상품으로 선정
◆ 전시판매장소 :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대림당화랑 (053) 424-0115 2000년 7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취급점 모집 상담문의 053)983-4976 / 011)813-3679

"좋은 찬불가 한 곡 기도와 법문 못지않게 어린이 포교에 중요한 역할해요"

그럴 때면 화두인 '이뭣고'를 잡고 참선을 합니다. 화두는 바로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지요.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할때만 던지는 물음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문제라든가,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단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화두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어쨌든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맑아짐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연을 감상하거나 경전을 암송하면 또 가사가 떠오르곤 합니다.

—어린이 불음 포교에 대한 이해가 적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나는 평생동안 이곳 운문사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찬불가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불음 포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스님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모습이 신도들에게 별로 바람직하게 비쳐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돈이 생기면 사찰 불사보다도 곡을 만드는데 온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신도들과 스님들의 불만이 많았지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주지직을 그만두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럴때면 혼자 외로운 고행을 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찬불가 제작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불교성전을 펴낼 때 많은 도움을 받은 불화가 석정스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러 김해 포교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포교원 앞마당에서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부르는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자 어린이법회 시간에 스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펴낸 불교성전 말미에 목포에서 만들었던 '경배하세' '관세음보살의 노래' 등 10여 곡을 첨가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자 재미있게 배우더라고 하더군요.

또 한 번은 진주 연화사 주지로 있을 때 고무줄 놀이를 하는 애들을 보고 고무줄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불교 노래로 만들어 오면 상을 준다고 하자 '어린이회가'와 '우리절 종소리' 두 곡을 만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다듬어서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진주 시내에 불일이 있어 나갔다가 '우리절 종소리'를 부르며 고무줄놀이 하는 애들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절에 다니는 어린이들일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노랠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연화사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때 내가 찬불가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곡의 좋은 찬불가를 만드는 것이 기도나 법문 못지 않게 어린이 포교에 중요한 불사란 걸 깨닫고 다시 용기를 냈지요.

그 때 골목에서 찬불동요를 부르고 놀던 아이들이 커서 '마하보리합창단'과 '불교방송 합창단' 등 여러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김해포교당과 연화사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 잡았지요. 또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은 마음이 앞장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본 마음 자리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그 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찬불가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진리가 녹아 있다는 점에서 어떤 법문 못지 않게 우리 불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찬불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불경만 가지고는 불교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노랫말로 바꾼 찬불가를 자꾸 그 의미를 되새기며 부르다보면 불경을 독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불가 그 자체가 부처님말씀이 들어 있는 경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불가는 무대나 법당에서 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불려져야 합니다.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일반 대중가요와는 달리 항상 부처님의 품안에서 부처님과 함께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일반 노래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찬불가를 부를때도 기도나 참선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심을 내서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나 참선만이 신행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릇된 생각이지요. 참다운 불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이므로 기도나 참선, 불음 포교 모두다 매 한가지로 중요합니다.

찬불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상업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신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불음 포교가 오히려 다른 포교 방편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다보면 마음도 차분해 지고 법열도 느낄 수 있는 장점때문에 불자들의 호응이 점점 높아져 요즘에는 각종 불교음악회가 많이 열립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나 참선, 염불 등을 불자들이 열심히 하는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른 신행을 하기 위한 공부처럼 찬불가를 한 곡 부르더라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의미를 새기면서 불러야 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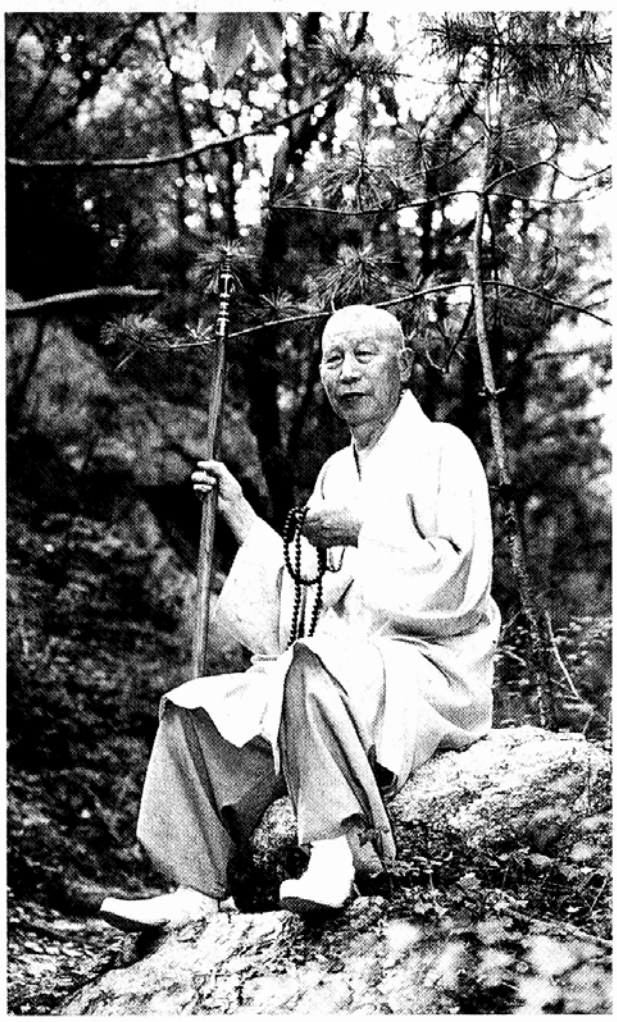
▲물론이지요. 단순히 찬불가를 부르는 것은 물론 수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찬불가 내용을 음미하면서 생활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나도 경전을 인용한 찬불가를 만들면서 몇 번이고 다시금 내용을 되새기며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몸소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글귀를 많이 외워도 이익될 것이 없고 훌륭한 것이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찬불가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일반 가요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 찬불가를 부를때도 용맹정진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른다면 참선할 때 처럼 선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 지고 법열과 발심이 생겨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경전을 음미하며 독경하듯이 찬불가를 부르면서 그 메시지를 생활속에서 꾸준히 실천 수행 한다면 기도나 염불 못지 않게 좋은 수행의 방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담=김주일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찬불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속에서 실천 수행하는 것도 기도나 염불 못지 않은 중요한 수행방편이라고 강조하시는 운문스님.

"노래로 배우는 교리 이해쉽고 찬불가 부르다보면 신심 절로"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고송 노스님

팔공산 파계사(把溪寺) 내원(內院)에 주석하고 계시는 고송(古松)노스님은 내 마음속의 영원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봉은사에서 당시(1925년경) 조실로 계셨던 방한암(方漢岩) 큰스님을 만나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세수가 95세(법납 78세)인 지금까지 한평생 선림(禪林)에 계신다.

한암스님은 봉은사 다래헌(현재의 봉은선원)에서 몇 철 안거를 보낸 후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홀연히 상원사 중대암으로 들어가셔서 단 한번도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오대산에서 입적하셨다. 봉은사에서의 인연으로 한암스님의 법제자가 된 스님은 내가 다래헌에서 조실이신 석주노스님을 모실 적에 가끔 들르셔서 한암스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곤 하였다. 조실스님과 함께 금강산 마하연에서 함께 정진하시던 말씀을 나눌 때 두분이 그렇게 정겨워 보일 수가 없었다.

몇 년전 병상에 계신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줄곧 침대에 엎드려 계셨다.

"눕지도 못하시고 많이 힘드시죠"라고 문안드리니 첫 말씀이, "병원에 있으니 왜 이리 시간이 잘가노" 하신다.

한암스님 법맥 이어받아 한평생 禪林에 계신다

나도 척추를 다쳐 며칠 병상에 누워 있어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던지 평소에 며칠이고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는 꿈은 하루만에 깨어졌었다. 이틀째가 되자 왜 그리 시간이 지루하고 힘이 드는지 등짝이 배기고 몸이 꼬여 입원기간의 절반을 앞당겨 퇴원했던 적이 있다. 90이 넘은 노구에 그것도 누워있는 시간보다 엎드려 있어야 하는 병세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잘 간다. 금새 아침이고 저녁이니 큰일났다"라니, 내 속을 꿰뚫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님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다.

병원에 누워 있어보니 지루해서 혼났다고 말씀드리자 "이놈아, 지루할 시간이 어디있어" 하신다. 담당의사가 하는 말이 골절상인데도 회복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빠르다고 했다. 노구에는 뼈에 아교질이 없어 잘 붙지 않는데 스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간혹 스님을 모시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차안에서 한번도 조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눈은 항상 창 밖을 응시하고 계셨다. 옆자리에서 누가 조는 모습을 보이면 "이 좋은 시간에 졸기는 왜 졸아. 젊을 때 부지런히 봐야지, 좋은 때에 열심히 공부 안하면 시간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강산(江山)을 많이 부지런히 봐야 심안(心眼)이 열리는 법이다" 하시면서 깨우곤 하셨다.

스님의 말씀을 들다보면 묘한 향기가 난다. 그저 무심히 하시는 말씀인데도 활구(活句)가 되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아는 데서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 공부다. 중이 너무 아는게 많으면 못쓴다. 제 얼굴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누가 믿나."

젊은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몸에 신경을 쓰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은 법이다. 그런데 스님은 좋은 음식보다는 부지런히 움직임으로서 건강을 유지하신다. 그런 모습에서 스님의 철저한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노인이 너무 몸에 연연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치를 보여 주시기라도 하듯 아침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거르는 법이 없다. 환화공신(幻化空身)이 법신이라 했던가. 이 몸뚱이가 비록 현재는 고통 덩어리이고 번뇌 덩어리이지만 또한 이 몸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저 중국의 영가스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철저히 운동을 하시는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탄허스님께서 지병으로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을 가셔서 누워 계신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림 · 문병성

"야! 이 사람아 부처 되겠다고 온 사람이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려고 절에 왔나, 어서 일어나서 부처 찾아야제." 하시면서 많이도 안타까워 하셨다.

예전에 함께 했던 주변 노스님들의 입적 소식을 들으면 거침없는 활구를 쏟아놓으시고는 이내 쓸쓸한 어깨를 추스리신다.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불교도 앞으로 많이 변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자,

"그래 요즘 사람들 다 석사고 박사야. 모두 똑똑해. 이 늙은이가 말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네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때 먹던 밥을 지금도 그대로 먹고 있다는 거야. 저 계곡 물 흘러가는 소리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 본래자성은 불변인 게야." 하신다. 딴데 신경쓰지말고 먼저 자신을 위한 공부먼저 마치고 남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설명하라 하신다. 생전에 계실 때 사진이라도 제대로 남겨 놓으려고 간혹 카메라를 불쑥 스님 앞에서 꺼낼 때가 있다. 그럴때면 이 늙은이 뭘 찍을게 있냐고 하시면서 남의 얼굴찍지 말고 네 얼굴이나 올바로 찍으라고 하신다. 손주 상좌놈 하는 짓이 늘 철없는 짓으로만 보이는가 보다.

※봉은사 포교실장

다음호부터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가 연재됩니다.

▶ 49재 및 각종 불사의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

혜국스님의 천수경 강설집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
이 경 속에 깃든 심오한 뜻을 이해하십니까?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경전입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일평생을 참선정진에만 몰두하신 혜국스님께서 선적인 안목으로 그 뜻을 풀이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보십시오.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 천도법, 49재, 낙태아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6 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방법은?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불자의 기본 필독서 ◀

불교신행의 주춧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지침서. 신행에 있어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하게 엮었다.
우룡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재미있게 엮었다.
일타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다.
일타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관음신앙의 길잡이.
김현준 지음/ 4×6판 / 값 3,500원

기도
총 52편의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일타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일타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대승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육바라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을 위해 이 책을 자신있게 권한다.
김현준 지음/ 4×6판 / 값 3,500원

오계이야기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다.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필독서.
일타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불자의 기본예절
합장 · 절 · 사찰예법 · 법문 듣는 법과 절집안의 생활예절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엮었다.
일타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지장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었다.
김현준 편역/ 신국판 / 값 5,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교신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김현준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 사물 · 석등 ·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사찰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김현준 지음/ 신국판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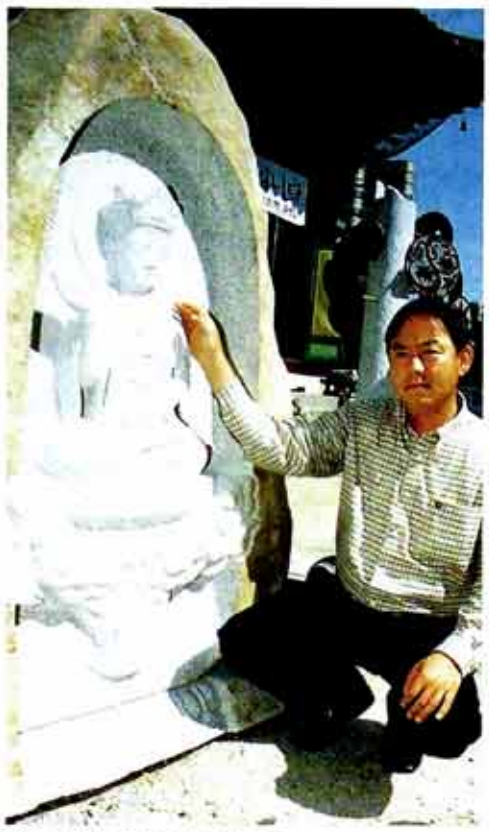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불미전 대상 정용성씨 조각 '願'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경주 남산의 돌에 관세음보살좌상을 조각한 전통조각작품 '원(願)'을 출품한 정용성(42세)씨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전통과 현대부문으로 나눠 총 6개분야 193점이 접수된 이번 불교미술대전에서는 대상 외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특선 16점, 입선 25점 등 총 4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대상과 우수상 수상작의 종단 귀속 방침과 규격외 작품 접수 불가 등 공모방침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237점의 작품이 출품된 지난 17회 때보다 응모작이 다소 줄었으며, 특히 전통부분에서의 응모작품수가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수상작 '원'은 전통적인 마애불 형식과 현대적 창조성을 적절히 가미한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6개분야 수상작 49점 선정

총 20명의 심사위원단(위원장 송영방 동국대 교수)이 돕은 대상수상작 '원'은 전통적인 마애불 형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등을 돌리고 앉은 수행자의 표현과 밖으로 뻗은 관세음보살의 수인 등 현대적 창조성을 가미한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대상수상자 정씨는 "'원'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수행자가 삼매에 든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하단부분 나신(裸身)의 단순화된 수행자는 본능에 의한 번뇌와 모든 것을 일탈한 상징적 표현이며, 자성의 일깨움을 통해 관세음보살을 관할 수 있다는 나의 원이다"면서 "밖으로 뻗은 관세음보살의 손은 불교가 보다 더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92년 부산 해동 용궁사 약사여래, 97년 경남 양산 천불사 마애미륵반가사유상, 98년 부산 감로사 마애 삼존불 등을 조성했으며, 현재 문화재조각수리기능인 1864호다.

우수상은 현대평면분야의 회화작품 '사계'(이인, 42세)와 서예분야 '불경구대련'(장순욱, 43세)이 선정되었다. 회화작 '사계'는 성(性)과 속(俗)의 다양한 현실세계를 불화가 갖는 강렬한 색채를 이용해 조형적 실험정신을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예작 '불경구대련'은 〈화엄경〉에 나오는 '看曼陀華莊嚴絶妙 證菩提樹色相皆空(만다라화를 보고 그 장엄함과 절묘함을 알게 되고, 보리수로써 색과 공의 참뜻을 증거하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구절을 광개토대왕 비문 서체로 표현한 작품이다.

우수상

회화 '사계'

서예 '불경구대련'

장려상은 오진규씨의 현대평면 '진리를 찾아서', 손진수씨의 전통회화 '미타경 극락도', 권지은씨의 전통회화 '산신도', 민승기씨의 현대입체 '번뇌·무념·해탈', 윤기현씨의 전통공예 '염주합' 등이다.

이번 불미전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의 상금에 '작품구입비 포함'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공모방침으로 인해 불교미술인들 사이에 비관이 끊이지 않았으나, 스님을 배제한 전문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일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의 접수 불가 등 4월 발표한 공모방침을 철저히 지켜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도제 불교미술인들의 불참으로 인한 질적 퇴보에 대한 우려와 심사방법의 문제, 귀속작품의 보관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3층에서 진행되며, 20일까지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순수 아마추어 국악 동호인 모임인 '구음회'가 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창립연주회를 갖는다. 사진은 9월 국립민속박물관 초청 연주회 모습.

'영산회상' 정악연주 무대

국악동호회 '구음회' 7일 국립국악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기린 영산회상을,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정악으로 연주하는 무대가 열린다.

순수 아마추어 국악 동호인들의 모임인 구음회(회장 전승희)는 7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창립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 선보일 영산회상은 원래 '영산회상 불보살'의 일곱자에 곡을 얹어 불렀으나 노래는 없어지고, 지금은 모두 아홉개의 기악곡으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느린 곡인 상령산과 중령산을 제외한 7곡이 무대에 오른다. 영산회상 외에도 정악 천년만세, 단소독주, 거문고·대금 병주와 민속악인 가야금 산조, 성악에 해당하는 정가 2곡도 연주한다.

구음회를 이끄는 불자 전승희(47) 씨는 "영산회상은 언제 끝이 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이어지는 곡으로 부처님 품처럼 깊고 권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며 "처음 듣는 사람들에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음악속에 자신을 놓아두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선정에 젖어들게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앞으로 영산회상 중간에 도드리를 넣고 마지막에 천년만세를 덧붙인 70분짜리 가진회상의 완주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리뷰

오페라 '직지'를 보고

음악치중…드라마 요소 빈약

최초의 한국적 오페라임을 표방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9월 22~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됐다. 이번 공연은 작품성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오페라로 무대에 올린다는 기획자체가 많은 화제를 모았다.

세계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데다 그것을 한국적 정서에선 아직 비대중적인 오페라로 연출한다는 점, 거기다 국악을 바탕으로 판소리, 범패, 아리아, 합창이 한데 어우러진 한국적 오페라의 터를 닦겠다고 한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일단 서양 음악의 정수라 할 오페라에 우리 음악을 접목시킨 노력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매회 공연마다 2천명 이상의 관객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메웠다. 특히 바라춤으로 막을 내린 3막에서 보여준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은 우리 음악으로도 오페라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음악전공자가 아닌 관객들로선 우리 음계로 만들어져 음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음악과 드라마의 조화와 균형은 11월 청주 공연과 이후 순회공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음악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드라마적 요소가 빈약하다. 장면 장면은 볼거리로 충분하나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직지를 간행하게 된 배경부분인 1·2막과 주인공 묘덕이 출가해 직지 간행을 걸심하는 3막,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를 제작하는 4막 사이에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때문에 관객은 독관으로 간행된 직지를 '왜' 금속활자로 다시 찍어냈는지에 대한 궁금점을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연중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성숙하지 못한 관람태도는 오페라 수준을 훨씬 밑돌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연잎 촛대

연잎 응용한 문화상품 나왔다

황꽃이·촛대 등 9종 개발

젊은 불자 최용근씨(28세, 서울산업대 도예학과 대학원)가 연잎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화제다.

경소 연꽃을 좋아했던 최씨는 연꽃을 관찰하다가 연잎의 선에 매력을 느껴 자신이 공부하는 도자기에 어떻게 응용할까를 고민하던 끝에 향꽃이, 촛대, 벽걸이, 브로우치, 열쇠고리, 목걸이, 수저받침대, 팬던트, 접시세트 등 9종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냈다.

최씨는 이 연잎 문화상품으로 지난 9월 23일~10월 3일까지 목포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목포국제도예공모전'에서 문화상품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잎 벽걸이

최씨는 "연잎의 풍만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단순하면서도 특징적으로 살려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기로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적 정서가 담긴 소재를 응용해 일반인에게 친근한 생활도자기로 표현해 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사이버 문화

능화스님 무용사이트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물아오는 것은 교화를 뜻하며,

원을 그리며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은 원만,

손을 모았다가 폈다가 하는 것은 자비,

몸을 급혔다가 폈다가 하는 것은 귀의를 뜻한다."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사이트(http://www.buddhistdancing.or.kr)에 들어가면 불교 의식무용인 법무를 신업공양(身業供養)이라며 이렇게 설명한다.

바라춤의 세계로

불교무용은 단순한 춤사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도 부처님에 대한 일심의 기도가 깃들어 있다. 소리로 작법하는 범패와 몸짓으로 작법하는 법무는 다르다는 것이 능화스님의 설명. 합장으로 시작하는 불교무용의 춤사위와 절차는 다양하다.

이 곳을 방문하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바라춤, 요잡바라, 나비춤, 법고 등 불교의식무용의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딛는 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어 동작 하나하나를 왜 신업공양이라고 하는지 느낄 수 있다. 능화스님이 작법무 추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각 동작의 이름과 뜻을 풀이한 것도 이 사이트를 돋보이게 하는 매력이다. 영산재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접할 수 있다.

고이 접은 하얀 고깔모자 위로 고아한 선율이 느껴지는 사이트. 올 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교무용의 세계에 빠져보자.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철학박사 慧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박 혜강 —

값 : 8,000원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왕생발원인 천도재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고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뼛속 깊은 곳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울성!
지장보살님이시여!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액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려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욕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학장 혜강 박영옥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헬빌딩 3층
TEL : 02)3672-7181~5
FAX : 02)3672-7186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99년도 합본집 (1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 잔여분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0,000원 (발송비 별도/지역별 실비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이책 저책

삶과 죽음에 관한 중국인 단상

중국의 종교문화 박미라 옮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제로 불사(不死)와 영원을 추구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역사적 실례를 들어 생생하게 조명한 책이 우리말로 나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 위앤양 씨가 쓴 〈중국의 종교문화〉(박미라 옮김, 길)는 중국 전통의 종교문화 속에 담겨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상을 드러내어, 중국인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고대 중국의 생사관이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게 하는 책이다. 그렇다고 불교, 도교, 유교 등 종교의 생사관만 기술하지는 않는다. 원시의 귀신신앙과 고대의 신화를 각각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고, 문인들의 초탈적 생사관을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김중근 기자

안락사·낙태를 보는 불교의 눈

'불교와 생명윤리학' 허남열 옮김



안락사 문제는 현대 의료윤리학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의학은 뇌 기능의 정지라는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둘러싼 의학적·윤리적·법률적 논쟁의 불씨를 끄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는?

〈불교와 생명윤리학〉(불교시대사)은 오늘날 의료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들, 이를테면 안락사, 인공유산, 태아실험, 뇌사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은 초기불교인 상좌부 경전 및 주석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책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지식으로서의 불교와 윤리학 및 의학간의 밀접한 관계를 새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10년간 티베트 불교문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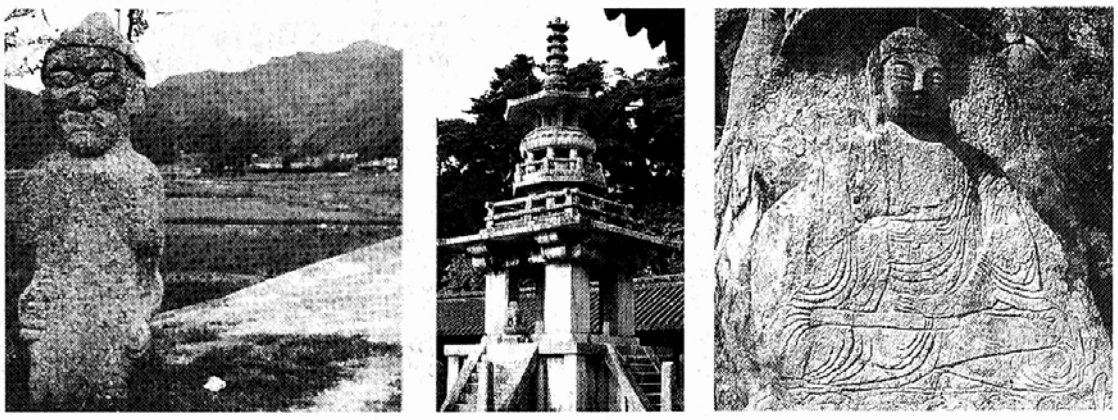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김규현 지음



티베트문화연구소를 설립, 티베트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규현 씨가 10년 동안의 티베트 문화체험을 담은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도서출판 도피안사에서 내놓았다.

만다라의 도시 라싸, 태초의 땅 창탕고원, 지구상의 최고봉 쪼모랑마를 돌아보는 여정을 큰 줄거리로 하여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인도문화를 기행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가 주로 찾아가는 곳은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 조캉사원, 불교문화의 보고 샤카사원, 수미산 등 티베트 불교의 현장들이다. 티베트 문화의 현주소부터 티베트인들의 정신까지의 문화와 사상을 중심으로 소개한 이 책은, 티베트 신비를 알게 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진리로 나툰 바위 속 부처

'돌의 美를 찾아서' 곽동석 등 5人 공저



불상을 조각하는 석공들은 바위 속에 부처님이 살아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석불을 조성하는 것을 돌 속의 부처님을 모셔온다고 말한다.

진리가 영원하다면 부처님을 조각한 불상도 영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고성 등의 차원에서 돌보다 더 적절한 불상의 재료는 없을 것이다. 석불이 주는 조형미와 입체미야말로 진리를 형상화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꽃핀 중국 돈황 석굴의 화려한 불교미술도 흙이라는 재료의 한계 때문에 파손되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돌 조각의 우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나라에는 유난히 석불과 석탑이 많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석재가 풍부하고 또 견고하여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산 정상에서 세간을 지긋이 내려다보는 원각상으로, 깎아지른 절벽의 얕은 미애불로, 때로는 지금은 없어져 버린 절터를 홀로 지키는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 산천 곳곳에는 여러 모습의 석불들이 부동의 자세로 우리를 맞이한다.

곽동석 국립공주박물관장,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등 소장 연구가 5명이 쓴 〈돌의 미를 찾아서〉(다른세상)는 우리 나라 돌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살핀 책이다. 글쓴이들은 돌과 인간이 만나 만들어낸 예술과 문화의 흔적인 석불, 석탑, 암각화, 돌장승 등 5개 분야로 나눠 돌 문화의 미학을 찬찬히 훑어간다. 석불에서 우리의 숨결과 정서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석탑은 인간의 염원이 담긴 초월적 미학으로 접근하고, 암각화를 통해 수천 년을 건너온 인간의 역사를 읽어낸다.

석불·석탑의 미학

사진 곁들여 쉽게 해설

돌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뿌리이다. 그래서 생활문화에서 정신문화에 이르기까지 돌 문화 속에는 인간의 삶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글쓴이들은 조상들이 돌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구현하고자 했는지 그 정신적 발자취를 찾아간다.

우리 민족은 부처님이 되든 탑이 되든 돌마다의 성정대로 합당한 조형물을 만들었다. 때로는 초월적인 상징물이나 웅장하고 세련된 조형물로, 더러는 질박한 표현기법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을 이 땅에 남겼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인간을 닮은 우리 돌 문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민속학과 미술사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풀어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담아 일반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미덕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부처 깨닫는 과정 눈에 보듯 생생

다카하시 신지 영적계시록 '붓다'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불서들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해탈,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룬 책은 거의 없었다.

최근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논픽션 〈붓다〉(김해석 옮김, 해누리)가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글쓴이는 영혼의 존재 이유를 밝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된 7가지 이유〉로 국내에 알려진 일본의 명상가 다카하시 신지.

그가 부처님의 계시에 의해 썼다는 이 책은, 싯다르타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내면의 심리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부처님이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뇌와 극복과정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살아 있는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게 이끌어 준다. 이와 함께 이 책은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생활을 비롯 경전의 의미와 인도사회의 풍습 그리고 제도 등도 수록돼 있어 부처님 입멸전의 시대상도 알게 해준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부처님과 예수의 만남이다.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가 아무도 자신의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 이처럼 이 책에는 부처님과 예수의 영적 대화로 가득하다.

승산 스님(화계사 조실)은 추천사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불경의 의미와 부처님께서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며 "특히 출가와 득도 부분을 기존의 다른 부처님 일대기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정확하게 다룬 점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구름 없이 내리는 소나기 1·2(오쇼 지음, 강애나 옮김, 황금꽃)= 우리가 아는 깨달은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여성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일까. 이 책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아온 여성들도 '사랑과 헌신'을 통해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꼽〉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인도의 명상가 오쇼가 18세기 인도의 깨달은 여성 사하조씨의 저서 〈사랑의 경전〉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담았다. 값 7천5백원



▲배가 고플 때에는 마음껏 먹어라(프란츠 메카프 지음, 박윤정 옮김, 도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너무도 평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부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지혜를 제시한다. 즉 부처님이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설명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값 6천9백원.



▲인연(서종원 지음, 연꽃마을)= 전쟁이 남겨 준 상처 속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비구니로,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수녀로 만난 어머니와 딸. 그들에게 남겨진 업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휴전을 되었으나 6.25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 땅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그린 소설이다. 값 8천원.



▲묘법연화경(혜능 스님 역, 부다가야)= 대승경전의 정수로 꼽히는 〈묘법연화경〉 한글독송서. 불자들이 독송 및 사경에 용이하도록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을 새롭게 번역했다. 부록으로 도림 스님이 지은 '법화경 예찬', 〈법화경〉을 바탕으로 참회와 발원이 정진이 원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천태지자 대사의 '법화삼매보참'도 옮겨 놓았다. 값 2만원.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동아일보 출판국 엮음, 제3공간)= 인도의 고대 경전 〈베다〉부터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닥터 지바고〉까지 사상, 역사·지리, 사회, 자연,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주요내용과 글쓴이의 행적, 역사적 가치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인생관 내지 세계관의 바탕이 됐거나 그것의 변혁을 초래한 책, 인간지혜의 계발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한 책, 사회변동과 정치적 발전에 직접 자극이 된 책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심천사혈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3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낱 한	지혜의 나무
4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5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6	아난존자의 일기1	원나시리	운 주 사
7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8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9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10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	탐 구 사	탐 구 사

도서 안내:(02)737-0695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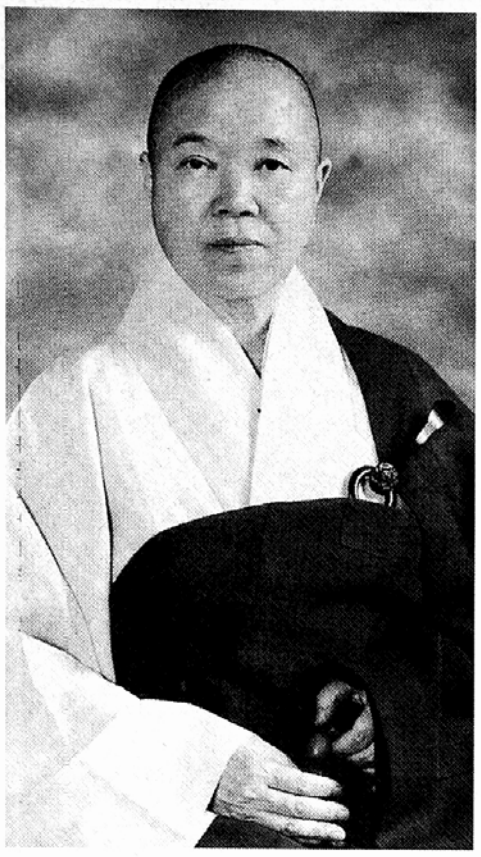
· 영혼결혼식, 그 질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젖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오늘밤 나는 알몸이 되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의 시린 가슴을 받아주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고 싶다

*Home Page address: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303-0024)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를 받습니다.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6-0478
도서출판 청어람 빠빠



명성스님 학문세계 '후학의 모범'

고희기념 '불교학 논문집' 발간

비구니 위상·선 등 다룬 논문 26편 수록



칠십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몸바쳐 왔던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사진〉의 고희를 맞아, 스님의 덕과 학문세계를 기린 〈불교학 논문집〉(운문승가대학출판부)이 나왔다. 스님은 지난 98년 동국대에서 유식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끝없는 학문에의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수십년동안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수많은 학인을 지도하며, 〈초기유식의 연구〉〈구사론대강〉〈불설삼천불명경〉 등의 저서와 역서를 발간, 후학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번 논총에는 국내 원로 및 중진 불교학 학자들의 논문을 비롯해 모두 26편의 논문과 2편의 번역문이 실려 있다. 특히 명성 스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비구니 위상 문제와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과 선 · 화엄 · 천태 · 수행 · 불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게재됐다.

운월(동국대 강사) 스님은 '보리달마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와 선종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외별전 · 불입문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수행의 단계와 차례를 무시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스님에 따르면 불수문교(不隨文敎)란 교학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행에 들어가서는 경구를 생각하여 분별하지 말라는 것. 따라서 운월 스님은 "강원에서 〈능가경〉〈유식론〉〈금강삼매경〉 등 수행의 참 모습이 담겨 있는 경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까르마 렉시 쏘모(하와이대 박사과정) 스님은 '비구니 율장은 성차별인가'란 논문에서 비구니를 차별하는 일부 계율들은 성적인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비구 · 비구니 승단을 보호하려는 당시 사회 상황이 초래한 부득이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불교계의 차별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구니 팔경법'은 계율도 아니고 그와 같은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성(스리랑카빨리불교대 한국분교 교수) 스님의 '포살과 팔재법(八齋法)에 관한 고찰'은, 포살은 교단의 규율과 질서 유지는 물론 사회 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계율임을 강조한 논문이다. 스님은 "한국은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포살의 본래 의미의 팔재법의 전통을 잃고, 오히려 지계와는 정반대의 축제 행사로 변질됐다"며 "불교의 이상 사회는 제도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들이 불가의 훌륭한 전통을 되살릴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17일 운문사 만세루에서 열린 논문집 봉정식에는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명성 스님 고희기념전도 함께 열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㉒ 석전의 화엄사 · 금산사 편액



◇화엄사 산문 편액



◇금산사 대적광전 편액

석전 황욱(石田 黃旭/1898~1993)은 전라북도 고창 출생으로 5살 때부터 한학을 익히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여, 1920년부터 10여 년 간 금강산 돈도암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하였고, 1930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신위(申緯 1769-1845)를 사숙하며, 육예(六藝: 禮·樂·射·御·書·數)를 익혔다고 한다. 이후 석전은 나이 70이 넘은 1973년에야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는데, 그는 60대에 서예가로는 치명적인 오른손 수전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붓을 잡고 쓰는 악필(握筆)을 시작하여, 마침내 독창적 경지를 이루어냈으며, 85세부터는 오른손의 악필도 곤란하여 좌수서(左手書)로 마지막까지 창작에 대한 열정을 굽히지 않았다.

석전은 일체의 기교를 멀리한 심법(心法)으로 글씨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망백에 이르도록 고향에 은거하면서 오로지 선비로서의 인품을 지켜온 서예가였다. 석전이 사찰에 남긴 글씨는 많지는 않지만 구례 화엄사 일주문〈지리산대화엄사〉, 〈해동선종대가람〉,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편액 등 주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찰에 남아 있다.

구례 화엄사 산문에 걸린 〈지리산대화엄사〉 편액에는 액판 좌측에 '석전 구십일옹 황욱(石田九十一翁 黃旭)'이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은 1988년 사역 입구의 산문을 신축하면서 뒤쪽에 걸린 〈해동선종대가람〉 편액과 함께 석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석전이 오른손의 심한 수전증을 이겨내고 왼손으로 써낸 담백한 행서로, 기교를 넘어선 웅건(雄建)한 글씨이다.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편액은 흔하지는 않지만 4자로 된 전각의 편액에 더러 있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액판 좌측에 한 줄로 '금강산인 구삼옹석전황욱(金剛山人 九三翁石田黃旭)'이라는 관지와 '황욱장수, 석전(黃旭長壽, 石田)'이라는 도서가 찍혀 있다. 이 편액은 1986년 전각이 전소된 후 전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1990년에 석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역시 노경의 선비를 연상하게 하는 웅건(雄建)한 좌수(左手), 악필(握筆)의 행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화 엄 사 왼손으로 쓴 석전 행서
대적광전 정방형 4자 전각 편액

"미륵사 3금당은 평화 상징 황룡사 9층탑은 통일 의지"

노중국 교수 '엑스포 학술대회'서 제기

백제가 미륵사에 3개의 금당을 짓고, 신라는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9월 29일 개최한 제2회 경주문화유산EXPO 학술회의에서 노중국(계명대) 교수는 "백제는 평화적 공존을, 신라는 현명적 통일을 기원했다"는 대답을 제시해 주목된다.

3금당의 미륵사를 세운 백제 무왕은 고구려 · 신라 · 수 · 당 · 왜 등과 실지양단의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는 데 주목한 노 교수는 "실지양단 외교정책은 주변 국가와의 세력 균형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미륵사는 무왕이 세운 호국사찰인 만큼, 그의 정치철학이 충분히 반영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특히 미륵사의 3금당이 하나의 회랑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고고학적 발굴을 강조하고, "이것은 주변 국가와의 공존과 세력균형 즉, 융화세계의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룡사 구층탑을 지었던 선덕여왕 역시 말갈 · 왜 · 고구려 등에게 빈번히 침략당했고, 급기야 642년에는 미후성 등 40여성을 빼앗기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신라는 종래의 세력균형 의식을 버리고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이른바 '통일의지'가 형성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홉 개의 이러한 의지의 종교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9층탑은 당시 백제를 위협했던 일본(1층), 중화(2층), 오월(3층), 탐라(4층), 응유(5층), 말갈(6층), 단국(7층), 여진(8층), 예맥(9층) 등을 뜻하며, 9층탑은 9개 주변국의 항복과 천하통일의 의지인 셈이다.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동아시아 역사와 21세기 문화교류'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7세기의 신라서역 구법승 고찰'(김상현 동국대),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노중국 · 계명대), '신라승을 통해 본 신라의 국제관계'(권기현 위덕대), '삼국유사-설화에서 테마파크까지'(이정옥 위덕대), '문화교류와 관광의 역할'(정원일 · 김규호 경주대) 등의 논문도 발표됐다. 연구소는 이들 논문을 모아, 〈경주세계문화EXPO 논총〉 제2호를 발간했다.

오종욱 기자

동화사 성보박물관 개관

대구 불교계를 대표하는 팔공산 동화사가 20일 성보박물관을 개관한다. 1998년부터 15억8천여 만원을 들여 통일대불 앞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박물관을 세운 동화사는 제1507년 개산대제(開山大祭)를 맞아 90여 평의 전시실을 공개한 것.

이 전시실에는 대구시문화재자료 제26호인 사명대사의 영정을 비롯해 소형금동불상, 대형 수저, 도장류, 불교의식용구와 '영남치영아문(嶺南緇營牙門)' 현판 등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대사의 유품을 중심으로 5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 가운데 높이 1.3m 내외의 나무로 만든 인왕상 한쌍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데다 조각솜씨도 뛰어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개관을 준비해 온 혜성스님(동화사 재무)은 "현재의 전시실은 동화사가 갖고 있는 주요 유물의 30%도 전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80여 개의 말사 소장 유물까지 들어 올 경우 전시실 규모가 크게 부족하다"며 "전시실 규모를 더 넓히는 한편, 지하1층은 탱화 전문 전시실로 꾸밀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사명대사 유적 홍제암-부도·석비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9월 28일 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 홍제암과 사명대사부도 및 석장비를 보물 제1300 · 130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300호로 지정된 홍제암은 1614년(광해군 6년) 혜구 스님이 사명대상의 진영을 봉안하기 위해 가야산 해인사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건립한 영당(影堂).

영당은 인법당(人法堂)형식의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인법당과는 달리 사명대사와 관련된 조사전 · 영각 · 홍각 및 지장전 등 여러 기능의 공간이 추가로 집합되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의 공자(工字)형 건물이다.

보물 1301호로 일괄 지정된 사명대사 부도는 조선 후기의 조형미를 물씬 풍기는 석종형 부도. 또 석장비에는 "만력사십년십이월립(萬曆四十年十二月立)"이라는 기록이 있어 사명대사의 부도에 딸린 탑비로 1612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종욱 기자

"의천스님 탄생지 궁중 아닌 인천 외가"

이형석 박사 주장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탄생지가 '외가 인예태후의 생가(현 부천군 관교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9월 28일 '대각국사 의천 탄생지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이형석(미추문화연구회장) 박사는 "스님의 어머니인 인주이씨 가문 출신의 인예태후의 생가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인천 외가 탄생설'의 근거로 〈인천부사〉〈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을 들고 있다. 〈인천부사〉에는 "인예왕후 이씨의 고향을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 대각국사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이 박사는 〈고려사절요〉에서 고려의 왕들이 외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기록을 토대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외가인, "인천 경원군의 별궁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각국사의 탄생지는 대국국사비문에 따라 궁중으로만 추정될 뿐, 정확한 장소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백련불교아카데미

성철선사상연구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수행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잡(雜) 다시 읽기'를 주제로 제16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최재목 교수(영남대 철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박규태 강사(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등이 토론한다. (02)744-1541

논문집 '석굴암 신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는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21집을 발간했다. '토함산 석굴암의 신연구'을 다룬 이번 논집에는 '석굴암 건립의 정치 · 사회적 배경', '석불사의 건축 원형', '석굴암에 대한 연구사 검토' 등 10여 편이 실렸다. (054)770-2502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 공모대전에서 준대상 당선

용맹정진 이천년 대운맞이 제59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에 동참하시어 자성보아 도인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경신년 경신법회 새천년의 천지 창조이래 태양의 순년의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심연을 하늘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인 해인도법으로 새천년부터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 옹조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자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10월 28일 10월 29일, 자시와 오시에 360세까지의 증상대운을 공개하오니 도통군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중운 180세 하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지구촌 일그러진 법도로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족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 · 形 · 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지각이 변동되었는데 하늘이 아무나 떠들어 대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육십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악병과 사람답게 사시는 진인육경신 도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발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는 천문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 병과 도통군자들과 수명이 늘어나고, 먹는것 자유자제하며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통할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여 소원성취하시고 도통군자, 사명자, 진힌도통하시어 일류의 스승 되소서.



진인육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은 언제보아도 눈과 몸이 보는이를 따라 다는는 신줄괴물한 비법은 새태양의 운기로써 흥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곳과 흥한터,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지상 지니시여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소서.

● 입 제 : 양력 10월 28일 밤10시부터 10월29일 亥時시까지
●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토요일 밥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일요일밤 해제
● 전 화 : 02) 821-6622 / 야 923-3110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새천년, 미얀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들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빠알리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부처님의 숨결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

"달마선법 참모습 널리 알리고 싶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①

'달마이야기' 쓰는 까닭은

나는 소설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다. 더군다나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처럼 어떤 깨달음을 얻은 처지도 아니다. 그저 글을 즐겨 쓰는 한 사람의 언론인일 따름이다.

다만 인연이 있어 달마를 찾아 무수히 헤맸다. 마침내 환영 속에서나마 그 옷깃의 바람소리를 알아 차렸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것이 내가 달마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의 한 가닥이다.

흔히 달마의 한자표기는 두 갈래로 쓰인다. 達摩와 達磨가 그것이다. 앞의 마(摩)라는 글자는 '연마한다'는 뜻이고, 뒤의 마(磨)는 '숫돌에 갈다'는 뜻이다. 그러나 두 글자의 근본적인 뜻은 '갈다'는 점에서 같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앞의 '마'는 손(手)으로 '갈다'는 뜻이고, 뒤의 '마'는 돌(石)로 '갈다'는 정도이다. 어쨌거나 '갈다'는 행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을 터이다.

물론 손과 돌은 전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손과 돌이 별개가 아니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부터 비로소 '참'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오늘의 우리가 '달마'라 부르는 이름은 범어 보디 다르마(Bodhi Dharma)의 한자 음역을 우리식으로 적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의 한자 표기를 모두 쓰고 있다. 오히려 돌(石)을 가는 마(磨)자가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 실존인물이냐 상상의 신비존재냐

이것은 어쩌면 일본 불교의 영향일는지도 모른다. 일본말사전에 보면 어김없이 달마 곧 達磨로 쓰여 있다. 일본말사전이 그처럼 고집해서 쓰는 까닭을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달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풀이에 따르면 어떤 '마'자를 쓰느냐의 문제는 결국 달마관(觀)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달마에서 마(摩)를 쓰는 쪽은 달마를 역사적인 실존인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서 마(磨)를 쓰는 쪽은 비실존적인 신비스런 존재로서 달마를 내세운다.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의 글을 보면 달마에서 마(磨)자를 쓴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있다면 일제강점기 이후의 일이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맥의 굴곡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나는 어떤 한 글자가 지니는 뜻의 크기가 작게는 미세한 먼지보다도 작고, 크게는 전 우주를 뒤덮을 정도로 크다고 여긴다. 또한 전혀 다른 세계일지라도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고 넘나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는 글자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중시한다. 그것은 그대로 수행 또는 마음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달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단편적인 것에서 그친다. 일관되고 체계있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른바 소설의 경우일지라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일반독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달마의 진수(眞髓)를 알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소설일 터인데 우리 주변에선 그것조차 찾기 힘들다.

달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의 원형은 명(明)나라 때 청계도인(淸溪道人)이 지은 달마조사전(達摩祖師傳)이 손꼽힌다. 이 소설은 달마가 동토(東土)로 건너오기 이전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양무제(梁武帝)를 만난 것이라던가 소림사(小林寺)에서의 행적은 끝머리에 약간 다루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소설의 구성은 당시의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의 전개를 청계도인의 그것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련자의 처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달마의 생애와 깨달음의 세계를 그려보고자 한다.

달마가 출생한 남인도 지방은 우연하게도 가락국의 허황후가 태어난 곳과 같은 지역이다. 구태여 우연이란 말을 썼지만 나는 마음 속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남인도 지방의 말과 뜻은 우리말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이 많다고 한다.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증이나 논거를 펼칠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말에 공통요소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을 시사해 준다. 하나는 문화의 공유성이고 또 하나는 뿌리의 공유성이다.

달마는 스승인 반야다라(般若多羅)의 가르침에 따라 동토로 왔고 오늘날 중국의 광주성에 도착했다. 반야다라는 서천(西天) 27대조이고 달마는 28대조라고 일컬어진다. 반야다라는 달마에게 이르기를 "동녘에서 받아온 하나(一)의 진법(眞法)을 다시 동토로 회귀시키라"고 했다. 그 '하나'의 진법은 물론 만교귀일(萬敎歸一)의 그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하나가 천부경(天符經)에서 일컫는 하나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반야다라는 이른바 독경(讀經)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간경(看經) 즉 경전을 보는 것은 독경 즉 경전을 읽는 것만 못하고, 독경은 전경(轉經) 즉 경전을 굴리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경전을 읽는 것과 굴리는 것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르다. 읽는다는 것은 글자와 말뜻을 읽고 키우는 것인데 비해서 굴리는 것은 읽는 것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경전을 단순한 읽기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행(行)까지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전경이다. 따라서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전경이고, 그 사람은 한권의 경전 그 자체가 되는 셈이다.

보리다라는 전경을 일러 "숨을 내쉴 때 뭇 인연에 간섭받지 않고 숨을 들이쉴 때 오음(五陰)과 십팔계(十八界)에 있지 않으니 백천만억권(百千萬億卷)의 경전을 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훗날 달마의 이른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의 근원을 이룬다. 달마가 이입(二入) 즉 이입(理入)과 행입(行入) 나아가서 사행(四行)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별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누어 생각하면 할수록 진법과 거리가 멀어진다. 진법은 오직 하나이고 이입의 일치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반야다라 가르침따라 동토로 온 달마

달마는 심지어 흰 것은 종이이고 검은 것은 글자일 뿐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광(神光)이 경전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한데 대한 대답이었다. 달마는 종이 위에 떡을 그려 놓고 그것을 먹어 보라고 신광에게 내밀었다. 경전을 보고 깨달았으니 그 떡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광은 농락당한 분풀이로 달마를 내리쳤다. 그 신광이 바로 혜가(慧可)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신광은 소림사 뒷산의 석굴에 은거한 달마를 찾아갔다. 잘못을 빌고 자기의 왼쪽 어깨를 계도(戒刀)로 베어 버렸다. 신광의 법기(法器)를 일찍부터 알아차린 달마는 신광을 거두었다. 혜가라는 법명을 주고 법통을 잇게 한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고사(古事)이다. 한데 정작 달마가 9년 동안 면벽(面壁)했던 석굴의 정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 이 석굴은 '달마동굴'이라고

구년 면벽 유명한 달마동굴 잡목에 가려

불린다. 그러나 이 동굴의 본래 이름은 '치우(蚩尤)동굴'이었다. 그 옛날 치우 황제가 수행했던 동굴이라는 이야기다. 달마가 치우동굴을 찾았을 때는 잡목과 흙더미로 가리워져 있어 아무도 몰랐다. 그곳을 달마가 찾아내 면벽수행하며 아홉해란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동토에서 시발한 하나의 진법과 치우 황제의 진법은 결국 하나인 것이다. 그곳에 달마가 좌정하여 동방선종의 초조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달마의 일생은 비록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진법은 단순명쾌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 달마의 가르침이다. 소설 달마에선 이야기가 복잡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른바 달마선법의 참모습을 알리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달마는 이른바 '부활(復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달마의 주검은 웅이산(熊耳山) 기슭에 묻혔다. 그러나 무덤에는 짚신 한짝만 남았고 본래의 몸은 되살아났다. 이것이 지니는 종교적 의미는 엄청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달마는 생사불이(生死不二)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수행자에 주는 의미는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돼서는 안된다.

내가 소설 형식을 빌려 달마이야기를 쓰는 참뜻은 바로 달마의 새로운 부활론을 엮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나의 달마이야기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들 터이다. 시공(時空)을 초월해 하나(一)의 진법을 펼치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마이야기의 삽화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달마 그림과 조각들을 사진에 담아 대신할까 한다. 나는 이 그림과 조각 하나하나를 범상스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엇인가 와 닿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는다.

달마 찾아 무수히 헤맨끝에
동방선종의 초조 만났다
이제 소설로 나마
그의 깨달음 풀어본다



좋은 잠자리의 참이 보약입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 쾅쾅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목단 902
봉황 201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벼룩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 조
101 싱글보료
리빙스톤
(옥스톤)
☎ 02)424-9427/2203-7821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 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여성교육 전문화 앞장"

◇조계종 포교원은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열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을 앞두고 사업내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제2차 워크숍을 23~24일 봉은사에서 가졌다.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 2차 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인자)는 23~24일 봉은사에서 제2차 여성불자 워크숍을 열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되, 향후 여성불자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화·체계화하고, 사업 및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는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옥선 전남대 강사, 정미숙 경원대 강사, 김정희 이대여성연구원 상임연구원, 김명숙 정신과 전문의, 이봉순 동국대 강사,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용숙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장, 이내자 포교사 등 불자여성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불교와 여성(이창숙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인간관계의 소통과 교류(김남선 참교육상담소 소장)'에 대한 강의와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의, 참가자 소감 나누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개최된 1차 워크숍이 불교여성을 위한 종단차원의 사업을 고민하고 개괄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사업내용 및 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사업·활동영역 확대 공감
중앙-지방 교류 가교 역할

이날 참석자들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조계종 포교원 산하 여성단체로서 대중적 신뢰성을 확보해 중앙조직이 확립되면 지방조직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연구·교육 분과, 환경분과, 가정분과, 복지분과별 토의를 통해 여성불자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론개발과 교육사업, 중앙과 지방 여성불자들의 정보 교류와 전문인력 교육 및 자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에 역점을 둘 것을 기대했다.

특히 가정본과에서는 '가정 바로 세우기'를 목표로 한 불자가정 실천 지침보급, 부모교육 기회 제공, 가정에서의 수행방법 개발·보급 사업을, 복지분과에서는 간병인 호스피스 상조회 봉사전문 교육 및 활동 장소 연결사업과 사찰내 탁아방 설치 사업 등을 제안했다.

한편 포교원은 애초 28일 여성불교개발원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11월 18일로 연기해 창립 총회를 열고, 내년 봄에나 창립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백일홍 나무처럼 ②

나의 마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죽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아련한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제가 큰아들 주민등록증 찾는 날인데 오늘 죽으면 나의 제삿날은 큰아들 주민등록증 나오는 날이 되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어 기가 막혔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너무도 아름다운 나의 집.... 아, 다 어쩐단 말인가... 갑자기 내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흐뜨러지고 다리의 힘은 점점 없어져 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끝없이 밀려왔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다면 어머니의 뜻 모양이야" 하시는 거였다. 그 순간 우리의 앞에 청평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그래! 너희들 고생했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듯이 엄마의 포근함으로 부처님은 우리를 맞아주셨다.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려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그 순간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무서움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끝없이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올 생각도 못하는 길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형님 손을 꼭 잡고 내려왔다. 처음에 내 다리가 빠졌던 다리 앞 그 자리에 자가용 한 대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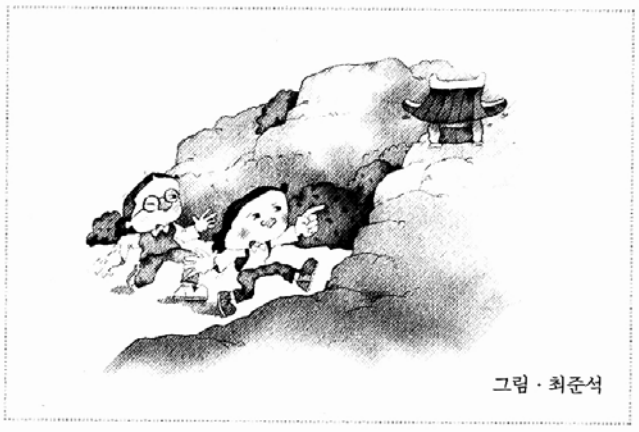


그림 · 최준석

집착·아상속에 산 지난날 반성

대로 조카를 내 자식처럼 돌보며 사랑하겠다고 말씀드릴걸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고집을 부렸을까.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없이 속으로 외쳤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의 슬픔을 어쩌나...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친정에서도 외동딸인데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생각나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삶보다 죽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형님 손에 의지하며 폭우 속을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으며 청평사를 올라갔다. 순간! 여지껏 에어컨 바람처럼 차가운 공기만 있던 계곡에서 가습기의 훈기같은 훈훈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형님! 왜 이렇게 훈훈한가요?" 하니까 형님께서는 "곧 절에 도착할 나는 그 자리를 하나도 무섭지 않게 건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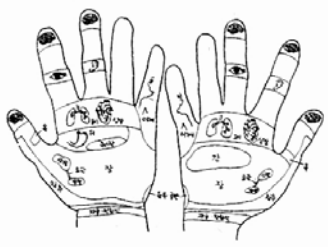
그날 너무나 힘들게 청평사 참배를 마쳤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낀 날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지난해 청평사 참배는 나를 올 여름 대원사 수련회로 이끌었다. 불교를 좀더 알고 싶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평소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성격좋다고, 좋은 친구들 많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살았고 그렇기에 내 삶은 아주 소박하면서도 예쁜 삶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당연하게 살았던 지난 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집착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아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계속〉

서회순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3동〉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①



문명이라는 것을 이루어 냈다는 얘기일 텐데, 이는 손의 구실이 단순히 뇌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운동을 주관하는 대뇌피질에서 손을 관장하는 부분이 매우 넓다는 사실로도 확인이 된다. 이 점은 손의 활동이 두뇌의 발달을 촉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단순화해 보면, 인류의 진화라는 것은 '직립 — 손의 해방 — 손놀림의 고도화 — 두뇌의 발달'이 되겠다.

이렇듯 손은, 인간의 사고나 운동을 제어하는 두뇌활동의 적극적 표현기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점 때문에 인체의 다른 모든 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손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내장 기관의 축소판 혹은 거울로서의 손과 주요 내장기관과의 관계는 위의 그림과 같다.

앞으로 연재를 이어가면서, 손과 건강 그리고 손과 사람 살이의 얽힌 얘기들을 형식에 얽매임 없이 풀어볼까 한다.

■손은 몸 밖의 뇌

내장기관 축소판
건강의 바로미터

"손은 또 다른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는 말이겠다. 피아니스트의 손과 농부의 손이 다르고, 의사와 자동차 정비사의 손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손은 몸밖의 뇌"라는 말도 있다. 칸트의 말이다. "손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진화론의 차원에서도 인간의 '인간다움'은 직립(直立) 즉 '손의 해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도구의 조작으로부터

건강식단 사찰음식이 뜬다

선재·적문·홍성 스님 강의
사이버 요리방도 4곳 등장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 자연히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짜지도 맵지도 않고, 인공조미료와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 채식위주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0월 한달에만 3개의 사찰음식 요리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다.

사찰음식전문가 선재스님은 11월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동국대학교에서 '사찰요리 속에 깃든 불교정신과 조리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02)2260-3056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0일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가을철 산사의 별식'을 중심으로 강좌를 연다. 연구소는 또 사찰음식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위한 창업연구반을 개설, 사찰음식에 대한 기초이론과 조리 실습은 물론 창업과 창업이후 성공에 이르는 경영기법 등을 교육한다. 02)355-5961

대구 보현사도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홍성스님의 사찰요리 강의'를 진행한다. 053)254-6966

최근에는 인터넷에 사찰음식 전문 사이트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밥 종류에서부터 국, 김치, 나물 무침, 잡채, 튀김 등 가정에서도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과 사찰마다의 독특한 음식 등이 소개돼 있다.

△http://www.sanchon.com : 산중음식전문점 산촌에서 개설한 사이트. 여천흥국사, 구례 화엄사, 합천 해인사 등 각 사찰의 독특한 음식과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hyangbang.com : 가산스님이 전통 사찰음식을 안내한다.

△http://kkk0531.hihome.com/main.htm :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개발한 김연식씨가 만든 한국사찰음식과 '사찰음식의 외식 상품화 방안' 등에 대한 강연 내용이 소개돼 있다.

△VEGENET-Vegetirian Network :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채식이 조망돼 있다.

도필선 기자

불교만화연구소 개원

사이트 'okbuddha' 개설

만화를 통해 보다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달 할 교계 최초의 불교만화연구소가 개원한다.

영남불교대 부설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는 1일 개원식을 갖고 불교만화 인터넷 홈페이지(www.okbuddha.pe.kr) 운영, 만화인력 양성, 만화출판, 월간 만화잡지 발행, 애니메이션 창작등의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과 함께 시험가동을 거쳐 2001년 공식 개통할 불교만화 홈페이지는 모든 만화가 순수 창작품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청소년 뿐 아니라 청·장년들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교만화작가들과도 연계하여 불교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고 토론하여 불교만화출판과 월간 불교만화잡지도 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만화연구소는 사이버포교를 위해 에니메이션물을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분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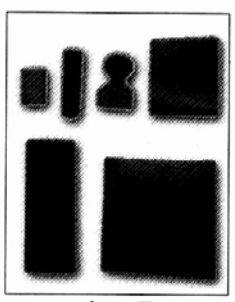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8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벽 조 목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등 안 거 선 방 안 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사원 모집

새천년 한국 전통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위한 길라잡이로 거듭날 (재)선학원에서 불교개혁 마인드를 가진 신심있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사무행정
▶ 인 원 : 1명 (나이, 성별 제한없음)
▶ 특기사항 : 컴퓨터 능숙자 우대
▶ 학 력 : 전문대졸 이상
▶ 전형방법 : 1차 서류면접
2차 면접(추후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2차 면접시 지참)
▶ 접수방법 : E-mail(jaedan@nownuri.net)
FAX, 우편
▶ 서류마감 : 2000년 10월 14일
▶ 문 의 : TEL. 02)734-9654~6
FAX. 02)734-3410

재단법인 선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고정시켜둔 '나'를 놓아가는 것이 '관'

깨달으면 '나'는 사라집니까

문 궁극적 깨달음 후에 개체성이 남습니까? 가아(거짓 나)가 사라지고 진아(참 나) 또는 불성이 드러나면 너와 내가 없고 모두가 하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깨달은 이가 현생의 업이 다하여 육체를 버리고 죽으면 그는 진아 또는 불성과 합일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이든지 개성 또는 개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만일 수행의 결과가 문자 그대로 공이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의식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업에 의한 가아가 사라지는 것과 나라는 개체성이 보존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답 생멸과 불생불멸이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나무를 베어 없앴다고 해도 나무 그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을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멸이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부서지고 변하고 하면서도 진리는 끝이 없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쉴 사이 없이 돌고 도는 까닭에 우리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가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삶에겐 죽고 사는 게 있으며, 한 번 잘못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떠한 곳인지도 가리지 못한 채, 까치등우리든지 돼지우리든지 마구간이든지 개미소굴이든지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 소굴에서 그 모습으로 태어나 거기의 습에 배여 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 닦아 깨달으면 세세생생에 끄달리거나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나와 둘이 아닐 것이고,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툴 것이고, 나투는 까닭에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고, 보살도를 행하는 까닭에 부처와 부처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가 수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깨달으면 모습은 다르지만 다 하나가 되며 궁극에는 그 하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나라 할 수도 없고 많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어서 엉거주춤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도 확연하게 '무(無)'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마음 안에 하나의 부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결단코 믿고, 만물과 둘이 아닌 이 확연한 도리를 다 깨치시기 바랍니다.

키우는 개 인도환생 바라는데

문 저는 요즘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늘 생각은 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에 관한 생각입니다. 13년 전부터 개 한 마리를 키워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동물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 개를 키운 후부터는 동물의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사실 제가 지옥이나 아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현상 중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삼악도는 실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에 불과합니까. 동물에게는 깨알만큼이라도 성불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억만겁을 살아도 구제될 수 없습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키우는 개를 향해 이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발보리심하라고 매일 빌어줍니다. 제가 어리석은 것인지요?

답 짐승들 중에서도 몇 되지는 않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돼야만이 벗어날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네들은 인간처럼 두 발로 걷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항상 사람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생명까지 겁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울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생명과 몸을 다 바쳐서, 때로는 그 식구가 다 죽을 거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여러분이 보실 땐 무심코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애가 생기지 않아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새끼를 가졌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 밴 개를 보면서 주인이 '너는 이렇게 새끼를 뱄는데 나는 어째서 아이가 없이 대를 잇지 못하느냐'고 항상 눈물을 흘렸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항상 같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새끼를 놔 놓고는 죽더랍니다. 그래서 새끼를 놔 놓고 죽었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우유를 먹이면서 그 새끼들을 길렀는데 그 개가 죽고 나서는 바로 그 주인집 부인에게 애가 들어섰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 애를 기르는 데도 그렇게 영리하고 착하고 의리와 도의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름을 빛내더랍니다.

그 개는 순간의 모습이 개였지만 순간에 바뀌어서 사람으로 그렇게 탄생을 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이나 소도 식구들이 다 죽게 되면, 예전엔 산사태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소들이 그냥 막 뛰고 말이 뛰어나와서 문을 들이차고 그래서 식구들이 나갔는데,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뭐가 벽력같이 소리가 나서 돌아다보니까 산중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논이고 집이고 하나도 없이 그냥 덮었더랍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저놈의 강아지 왜 저렇게 짖는 거야' 하면서 듣기 싫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돌멩이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도둑만 알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와 사람을 해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 개는 수년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자꾸 막고 짖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잠도 못 자게 짖는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는데도 뛰어 달아나갔다가 와서 그러고 또 와서 그러고, 그러더니 개가 그냥 피를 토하고 죽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그 광경을 보시고 "어허, 이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는 모습을 벗었구나. 허허, 그것 참 기특하구나." 이러시면서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 잘 배우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른 개를 거둬다가 믿어줬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거쳐야 부처가 되는 까닭에, 아니, 모든 걸 벗어버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은혜도 갚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너그럽고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다 지켜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인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눈물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탐이 되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습을 다 버리는 그것이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중천세계에서 상세계로 오르느냐 아니면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서 나온 것도 벗어버리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왜 또 짊어지려 합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보셨겠지만, 그게 단순히 전설이·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앞과 뒤를 모르기 때문에 화면 속의 일이라 생각하시지만, 과거에 살았던 것이 현실이고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극하게 마음을 내주신다면 전체에 전달이 돼서 인간으로 몸 받아 진화하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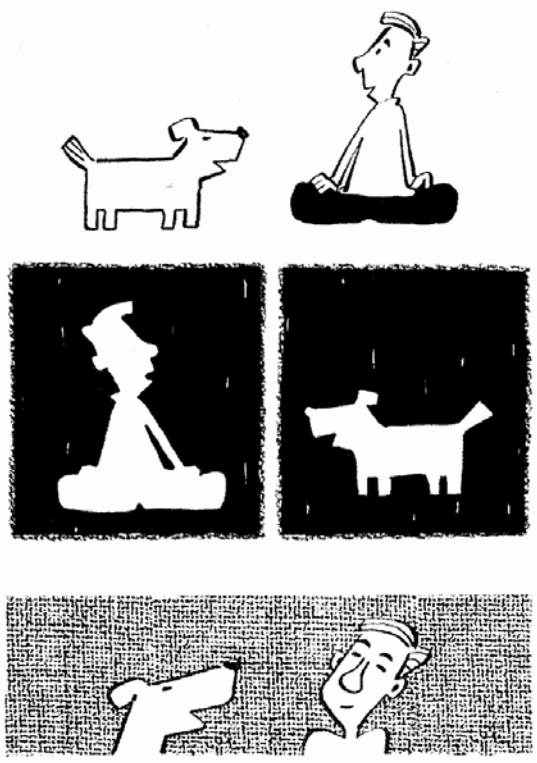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근본에 둘 아니게 맡겨서
나와 남 이익되게 실천하면
'나'라 할게 없는걸 알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 차원 높이려면

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나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서 차원 높은 곳으로 올려 줄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좋았을 것을 하구요. 작년에 저의 큰누나가 몸을 벗었습니다. 차원대로 만나서 악연을 만난 것이 원인이었지요.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나들을 공부시켰으면 누나들도 좀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과 연이 되었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항상 남는 것은 허탈감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것을 인연하여 나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앞으로 어떠한 과를 낳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닌 망상인지요? 하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생각조차도 그냥 나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앞서 한 발짝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도리와 같이 우리 생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고정되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걸 보면 저걸 봐야 하고 이걸 들으면 저걸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 길도 걸어야 하고 저 길도 걸어야 하고, 갔다 하면 와야 하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었대요. 너무 어렵게 찌들리며 살다 어느 날은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들이 다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조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뭘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들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영령들이 나왔다가 다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나 보니까 연기처럼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뛰어 왔더라구요. '연기처럼 변하더니 전부 자한테로 들어왔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구요. 그래서 '허허, 아무리 연기처럼 해서 들어왔어도 그게 영이라면, 영에다 영을 합쳤는데 그게 몇 개나 되겠느냐?' 하니까 '영이 아무리 많아도 영은 그냥 영이죠.' '그러면 됐지 않느냐?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생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정말이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자손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러 다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말을 안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그냥 고마워서 따라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이 다 건져지는 도리입니까. 한 사람의 속에 몇 생이나 들어 있겠습니까. 수천 생이 됩니다. 이 몸 속에도. 그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껏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에너지로 그냥 자유스럽게, 때로는 이 모습으로도 되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녀도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조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이유가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을 많이 했지요. 삼세가 공했다구요. 삼세가 공한 반면에 자기조차도 공했다구요. 고정됨이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나도 공하고 전체가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같이 포용된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목이 말라서 내가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신 거겠습니까, 누가 마신 거겠습니까? 개별적인 누가 마셨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 공식(共食)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경계가 닥쳐오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내게 부딪혀 오는 모든 것이 나의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재료라 생각하고, 근본에 모두 맡겨놓고 지켜보세요. 더 위로 올라가서 알려하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가 모르지도 말며, 오직 근본 그 자체에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으로 모든 고가 소멸되어 위로는 조상들을 제도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생일을 맞는 자세

문 저는 이제 스물 다섯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마음공부에 진전이 없을 때마다 '주인공!' 하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한 삶 속에 이생에 태어나 벌써 스물 다섯해를 살아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에는 어떻게 마음 내어 정진해야 하는 지요? 또 중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실한 중용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알음알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스님, 이런 공부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답 여러분의 스승은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 또 법의 부모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해야지' 이러지도 말고 '안 해야지' 이러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것이 중도이자 중용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나서 길을 걸으면서 또 길로 갑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부처님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육의 부모도 자식과 둘이 아닙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내 생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와 육의 부모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지극하게 관하면서 촛불을 켠다면,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고 안으로는 정성이 되어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신의 생일이 다가왔다고 하면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 생일이겠습니까? 부모의 아픔을 밀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일이 돌아오면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맛있는 걸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잡숴 보세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관' 할땐 되고 안 되고를 다 놓아야죠

☞ 19면에서 계속

저는 이날까지 생일이 돌아오면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는 생을 살아오는 동안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낳을 때는 부모가 돼 주고 또 내가 자식이 돼 주고 이렇게 바뀌어서 인연이 되어 돌아가니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죠. 부모로도 헤아릴 수 없고 자식으로도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부모님의 배를 아프게 했으니…, 그렇지만 내가 자식이 됐다가 내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됐다면 역시 또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를 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의 은혜를 둘이 아니게 갚기 위해서 항상 각자 마음에 진실하게 관하고 놓고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요

문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나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면 울음이 나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면 괜찮다고 하셔요. 그래도 안 괜찮아서 큰스님께 글을 올리고 있어요. 큰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 우리 어린이가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고 죽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근본의 입장에서는 죽고 살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저 들에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너도 보지? 그러나 그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 뿌리가 아주 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라 모두 알고 있지?

그와 같이 나무에 있어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몸이 죽는 것과 같단다.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뿌리 채 죽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란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둘이 아니다', '본래 태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다' 하는 것이야. 물질에는 반드시 생겼났다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도 없고, 보이라고 해도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뿌리는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무들이 한철 지나 잎이 낙엽되어 떨어진다고 해서 결코 울지를 않는 거야.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해도 봄을 기다리는 인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추운 눈보라를 견뎌내는 것이지. 나무줄기나 잎사귀가 뿌리에 의지하듯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면 나의 근본, 영원한 나의 조상이자 스승인 주인공을 믿고 살 수 있어야 죽고 사는 것에 걸림이 없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이 육신이라는 물질과 나 이외의 상대만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러니 수 억겁을 거쳐서 나를 이끌어온 나의 근본, 영원한 나의 친구인 주인공을 믿고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 근본에 놓아 가는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기 바래. 알아듣겠지?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거야. 궁금한 것이 또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편지하렴.

어떤 것이 베푸는 것인지

문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는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베푸는 것인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답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엾고 안됐는데 영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내 공부이니까,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게 하라고 관하고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만날 술에 절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툴툴 털고 와서는 취직할 데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면서 술집에 왔더랍니다. 이제는 다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또 한생각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애들하고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할테니까, 저 사람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둘이 아닌 까닭에 취직도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만났더니 무슨 회사인가에 취직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가 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됐건만도 자기가 술을 한잔 사주고 싶더랍니다. 고마우니까. 자기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니 나는 나대로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보살행이 아닙니까? 자기는 나쁘게 되고 남은 좋게 되고 또, 나는 좋게 되고 남은 나쁘게 되고 이런다면은 그건 보살행이 아니며 자기 마음에 자기 근본부처가 있는 줄을 모르는 중생들이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특별하게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근본을 항상 놓치지 말고, 주위에 인연이 있다면 나의 근본에 둘 아니게 맡겨서 나도 이익하게 하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보면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도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관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문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을이 동쪽으로 가길 바라면서 주인공에 을이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관하고, 반대로 을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며 갑과 함께 서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주인공에 관한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여러분은 지금, 본래부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주인공을 발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마음의 뜻으로 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량으로 헤아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관하지 않고 머리로 굴린다면 자칫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입니다.

자세히 지켜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하라고 하는 줄로 아시는 것 같은데, 관(觀)한다는 것은 되고 안되고를 다 놓기 위해서 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거짓된 나의 고정된 실체를 하나하나 놓게 하기 위해서 근본에 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근본을 발현하기 위해서,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나의 근본에 모든 것을 놓게 해서 자성을 발현하게 하기 위해서 관하라. 놓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불난 집에 아이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앞에서 장난감을 주며 '너 이거 줄테니 어서 나와' 하면서 내미는 우선의 장난감이 좋아서 아이가 그 불난 집을 빠져 나오는 방편을,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일의 해결만을 위해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머리로 따지고 옭아매려고 하지 말고 정말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나고 드는 모든 것을 근본에 밀어 넣으세요. 그래야 내 안의 근본,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조상인 나의 에너지 주장자를 발현해서 내 안의 자생중생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규합하여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인연된 모든 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게 이끌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놓아나갈 수 있는 실천 아닌 실천을 이루어 나가세요. 되는 것만이 법이 아니라 안 되는 것 또한 법입니다. 그 자유자재한 세계의 맛을 볼수 있도록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결혼 앞둔 예비불자의 자세

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불자 부부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치른다고 생각하니 새삼 삶이라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태는 느껴보지 못한 애틋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또 넉넉하지도 못한 살림살이에 괜히 사람 하나 데려다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저런 앞서는 두려움도 있고요. 새로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높으신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저 오직 하나,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탓이라고만 하고 사세요. 무조건 내 탓이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일어난 거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분란도 안 일어나고 자식을 기르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일러줄 수 있고 말입니다.

살기 힘든 건 누구나가 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젊어서 그런 건 추억이죠. 젊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써 모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거야 오다가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해먹으면 되고, 사실은 사는 데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산다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하나가 다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과거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고, 미래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지만 현재에 다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한 발 떼어놓을 때 잘 때 어놓으려고 애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되게만 떼어놓으면 그 한 걸음 떼어놓은 것 때문에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두들 어렵게 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면 걸음 떼어놓는 것도 가난하죠.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가난하고, 마치 일생을 살면서 지게를 무겁게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새삼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는데, 살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부모의 은혜를, 인연의 은혜를 자식되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속 하나도 안 썩였다고 어떤 이는 말하겠지만 부모는 일거수 일투족 다 자식들을 위해서 마다 안하고 고통이라는 소리 없이 자기의 인생을 바치죠.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기르는 거지만 그게 알고 보면 인연의 인과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잘 쓰고 관하면서 사셔야 정말 그 인연을 녹이고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정자 난자로 모습을 형성시켜 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집을 부모가 줘서 살기는 하지만 집 속에는 진짜 자기의 생명력이라는, 불성이라는 참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 믿어야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든 꼭 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이 살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관하고요. 이게 정신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자기는 정신력을 굴리고 보이는 자기는 상대방을 모두 주시하고 산다, 이런 거죠. 그러니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신용도 좋아질 수 있고 애들을 낳아 길러도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고, 또 자신이 첫째 좋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관하면서 사는 거죠.

생활이 도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의식과 생각하고 살고 하는 것이 자기라는 생명력에서 결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업이 되고 유전이 되고 영계성이 되는 것들이 때가 되면 다 나와서 현재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인공에 진짜로 믿고 관하세요. '너만이 구정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잖아' 하고요. 새 물이 들어가서 구정물이 맑은 물이 되니까 팔자 운명이란 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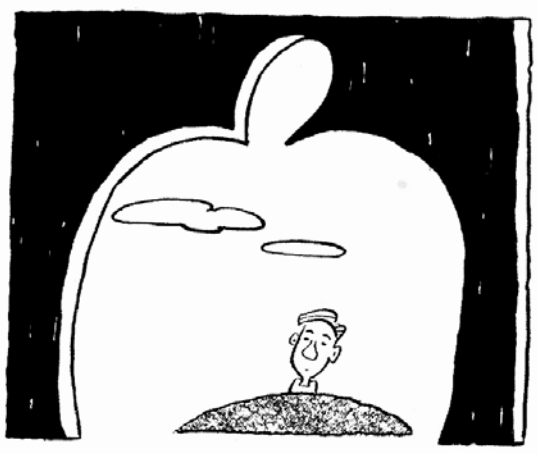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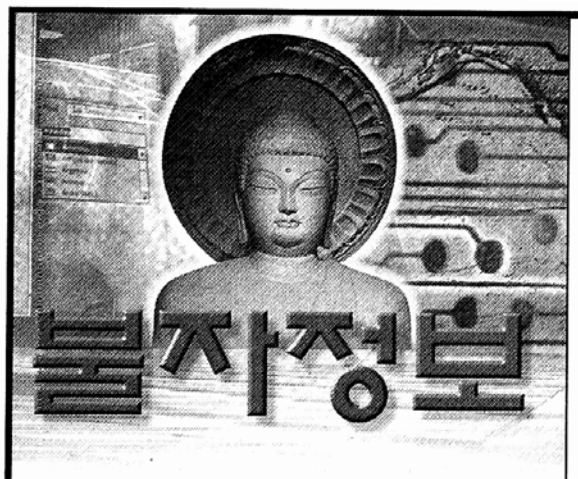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새 물 넣어주면 구정물이 맑은 물로

마음 가난하면 걸음 걷는 것도 가난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지리산 토굴 (황토방 신축) 안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채마을 위
● 대지 : 422평 건물 2채 건평 32평 탑 둘레 18m 석축 기초 완공 밭 183평 밭 165평 임야 2583평 총 3353평 완공일자 2001년 6월 6일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9542-9060 / 055-96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인양
● 대지 :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117-8번지 구덕마을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 가액 : 3천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 매매
● 경남 고성 대가면 황토방 2칸 분양 1칸 2000만원 자연 경관 환경 좋음
● 마산 무학산 완월동 내 암자 양도 매매
011)839-4862
055)674-2205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명기단법당 및 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3동
● 구조 : 3층건물3층38평(옥상사용가) (법당,대방, 중방,조리장, 화장실)
● 시설 : 청동석가모니불, 청동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51)333-0172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시내
● 대지 : 1500평 이상
● 건물 : 28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인천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위치
전망 좋은 명당임
011)321-0194

좋은터 안내
● 스님 : 암자 (토굴)
● 학자 : 서재 (연구실)
● 부자 : 별장
● 위치 : 경남 합천 삼가 부근
● 대지 : 287평, 전답 773평 전통 고옥과 수려한 자연
● 가액 : 2억 8천만원
055)573-8972

포교당 안내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방 3개, 부엌,욕실 및 다용도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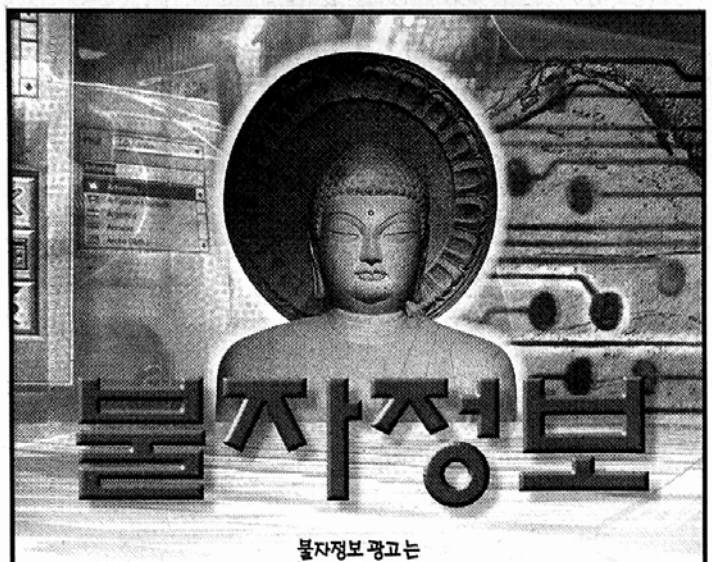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남골당불사주요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맞은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 3개)
053)565-0430 / 016-875-0934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대지 : 田 304평, 국유지 1000여평
● 건물 : 요사채 1, 황토찜질방1
● 가액 : 3000만원
● 특징 :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끼고 있음
016)779-947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니다.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현탑 현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 2억 5천
018)533-77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50평
● 건물 : 대웅전,산식각, 요사채 2동
● 위치 : 경남 합천 삼가 부근
● 가액 : 1억 2천
016)501-3671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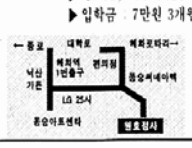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2000년 초발심 불자교육을 위한 (3개월 과정)
원효컹사 불교문화대학 게3기생 모집안내

1. 교육대상 불교공부를 하고자하는 모든분(초심자 환영)
2. 개강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지도법사 :세정스님
교육내용 ▶ 기초교리전반, 사원예절, 사경, 기도하는법
▶ 초심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실시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3. 모집방법 및 전형
초급반 ▶ 모집인원 소수 정예반(30명)
▶ 입학원서(본회양식) 명함판사진2장
▶ 특전 : 본과정 수료후 수료증 수계증 수여
4. 원서교부 및 접수
▶ 개강식 : 2000년 9월 19일 오후2시
▶ 본 문화대학 사무국
▶ T. 02)744-3413~4 F. 744-9686
▶ 입학금 : 7만원 3개월 수강료 교재비 포함



원 효 정 사 불교문화대학

易學講座
사주학 전문(단원선생 직강)
■개강 : 9월 15일 오전10시
(수시입학도 가능) 테잎도 배포함
※ 쉽게 배우고 특허 다른곳에서 배웠어도 이해가 않되는분, 통변의 달인
02)2275-7114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쾌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神秘한 자만 옥
▶ 당뇨, 고혈압, 비만·불면증, 두통
▶ 스트레스, 피로, 직장, 수험생, 교통사고, 후유증
▶ 40·50대 주부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북경 중의원 부속 중의 연구소 임상실험
불면증 96.9% 심장질환 92.9% 두통 83.3%
고혈압 77.8% 귀울림병 91.3% 관절염 60%
108 염주 1세트 = 8만원 수험생 팔찌 = 2만원
053) 982-6778 011) 813-3679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구인 · 구직

행자 모집
본 사찰에서는 불사가 완성되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 정법대로 바르게 수행 할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인원 : 00명 •학력: 고졸 이상
•연령 : 만 18세-40세까지
많은 큰 스님들이 수행하신 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사찰
011)9413-0055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 몸이 아파서 대중에 못나가는 스님
▶ 경제사정으로 병원에 못가는 스님
▶ 병원에서도 완쾌치 못하는 스님
▶ 걸망을 풀고 편히 쉴곳이 없는 스님
▶ 무료 침식 제공 해제비 지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
약사사
02)384-5060 / 011)9870-506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울 산)
052)245-9907

비구니 스님및신심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 역학을 잘하시는 분(포교원 있음)
▶ 운전을 잘하시는 분(승용차 있음)
▶ 스님을 평생동안 잘 모실 분
055)384-4688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결혼식을 올려줄 영가(女)를 찾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영가(女)를 찾으오니 연락부탁드립니다.
75년생 (을묘생) 26살(女)
76년생 (병진생) 25살(女)
78년생 (무오생) 23살(女)
031)353-6430
약사암 주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포교당-
법왕사 행자(男) 모집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청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고졸이상의 40세 미만으로 뜻이있는 분이면 됩니다.
(단 고졸 이하는 검정고시 교육 후 자격 부여됨)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20세전후 환영,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법왕사(법인출판부)탑탱 성판불교용역(복)이 반간되었습니다
(부처님탱화의 응상등양으로 많은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 053)766-3747
▸ 인터넷 : www.bubwangsa.or.kr

여(女)종무원 모집
봉선사 서울 포교당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에서는 여(女) 종무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고등학교이상 학력자로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면 됩니다.
· 문의 : 02)584-1108 016)217-0143
· 전송 : 02)587-3753
봉선사 서울 포교당 광명선원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외20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규격 26 × 40cm
■ 서산대사 肖像畵추정
■ 채색담채 (다딤장지)
■ 약200년전 추정
■ 양도가 : 백만원
053)982-6778 /011)813-3679
· 전화주시면 칼라사진 우송해 드림 ·


소원성취 안전운행 사업번창 결혼영혼 가정화목
부부화합 삼재소멸 관재구설 운수대통
각 간절한 소원을 알려 **시험합격**
(승진,소원성취)
八公山 갓바위 천일기도후 경명주사로 직접그린 달마
■보급가 : 3만원
■사업성취 : 금니로그린 달마 5만원
053)982-4976 / 011)813-3679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사찰안내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 중개사
- 급안내 -
사찰부지 헌 과수원 1,800평 평당 3만 8천원
사찰부지 헌 과수원 1,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헌 과수원 2,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헌 과수원 14,500평 평당 2만 9천원
법장 및 사찰 부지 2,500평 평당 15만원
중문관광 단지입구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30 건물 130
법장 대지 225평 지하 15평 지상 28평 1억 3천
064)738-7497~8
011)697-7496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읍내
◆평수 : 종교부지500평, 대지110평
◆법당18평 (삼포집, 콘크리트 저)
요사채116평 ,그외 건물2동
◆가격 :3억 8천만원
055)852-8348

사찰 안내
◆ 위치 : 관악산
◆ 평수 : 65평 (대지)
◆ 건물 : 지하 15평, 1층 50평 (요사채) 2층 25평(법당)
◆ 특징 : 산밑, 아파트인접, 등산로, 약수터, 마을버스 절 간판
◆ 가 액 : 2억 9천만원
011)241-0408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학생시험기도용 = 3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자리한 산세수려하고 임법당의 기도도량임
◆ 함께 기도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 보실님 식구분들 구합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분 수양 기도 가능함
◆전세 월세 매매가(4200만원) 절충 가능함
054)338-1237/018)510-1237
연혜스님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부지 55평
● 임법당 : 18평, 방2, 주방1
● 가액 : 1억 9천 (전세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사 찰 (급) 안 내
◆위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시 강북지역 (지하철역 10분거리)
◆부지 : 12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 도심 속 산밑에 있는 전통사찰임
· 텃밭 100평 별도로 있음
◆양도가 : 3억
◆위치 : 대구 광역시 근교
◆대지 : 50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영부전 : 40평
· 도심 속 정법도량이며 뒤는 산세 좋음
◆양도가 : 2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12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평
• 가액 : 3억 3천
• 위치 : 안성
• 법당 : 15평
• 요사 : 15평
• 부지 : 420평
• 가액 : 2억
• 위치 : 충남 연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시장 입구
● 법당 : 32평3층, 삼존불, 신중, 칠성, 후불, 산신
● 즉시 법회가능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
032)678-7464

토굴 안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2리
● 평수 : 356평 (실평수 약450평 산신각3층, 컨테이너 (3×6)1채
● 특징 : 서산에서 7분거리 토굴까지 포함, 중부내륙고속도로 5분거리 자두나무 30주 감나무60주
● 가액 : 1600 만원
011)522-9391
(오전9시~10시 통화할 수있음)

(급)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대지 360평 (포교당및 법장) 현건물 35평
220평 전3,300평 (절터)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2억 (절충가능)
기타 임야 종교부지 절터 벌장 좋은 위치에 있음 (천안)
본인 직접 전화 → 김 금년화 보살
031)264-3977 / 011)710-1873

포교원과 철학관
• 위치 : 대전 역전
• 법당 : 20평, 철학관 1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42)253-3545

토 굴
• 위치 : 충남 연기군 소정면
• 건물 : 25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41)553-1492

사찰 안내
◆위치 : 광주시 남구 월산동(시내중심가)
◆대지 : 325평
30년된 역사가 가장 깊은 유치원 있음. 2층 법당 고려청자기로 된 천불전 요사채 별도 포교로는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함.
※ 능력있는 스님 환영※
◆가액 : 8억
062)368-8450/011)633-84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내 165번지
◆ 평수 : 대지 500평, 법당 1개 요사채 2, 목조건물
◆ 가 액 : 1억 3천
※ 주차장 공간 가능
055)834-32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2천 월 70만원
● 특징 : 시설A급, 교통 요지
02)941-3195

사찰(급) 안내
• 위치 : 남해바다 (전남고흥)
• 부지 : 330평 (종교부지 입야) 종교부지는 1천평 토목공사 완공
• 건평 : 16평 2동
• 특징 : 정동향 남해바다와 100m 근접, 암반수 절도량까지 차량출입가능, 기도도량 연수원 고시원 적지
• 가액 : 1억 8천만원 (답사상담 후 결정)
02)488-0077 / 011)9058-7000

포교동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 1동 25-2호 3층
● 보증금 : 3천 월 4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 평수 : 27평
보 원 사
02)413-7180 / 3426-1100
016)272-8043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
● 평수 : 1,000평 (법당 1, 요사 1)
● 특징 : 포장 및 조경 완벽
● 가액 : 1억
017)804-358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8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전세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토굴 안내
• 위치 : 정읍
• 평수 : 법당 20평, 요사체 40평, 3.5m 미륵불
• 특징 : 주방, 세면장, 최상급 우물 두곳
• 가액 : 3,500만원
063)535-3846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시장 근처 (법원 앞)
• 대지 : 50평, 건평 46평 2층 법당(2층 위치) 요사채(1층 위치)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 8천
032)426-949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식수 있음
055)963-3068

포교동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42평 방3 주방1 2층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에어콘, 대형냉장고
• 가액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1)429-0222

사찰(토굴) 안내
• 대지 : 2435평 법당, 요사채 40평, 3억 7천
• 울산 근교, 위치 · 교통 좋음
052)257-150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건물 : 임법당, 방 3개, 입식부엌, 목욕탕 2개
• 가액 : 보증금 무, 월 13만원 (1년 150만원) 권리금1000만원
• 특징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뒷편
054)335-3746

사찰 안내
• 대 지 : 270평
• 위 치 : 경남 통영 근교
• 법 당 : 16평
• 지장전 : 47평
• 지하실 : 60평, 3층 건물
• 요사체 : 28평
• 가 액 : 2억 7천만원
011)9554-0509

장수에 용성스님 생가 복원

죽림정사 지난 29일 낙성법회
조사당·선원도 내년 6월까지 건립

한국 근대불교의 중흥조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인 용성 진종스님의 생가(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가 9월29일 복원됐다.

이번 용성스님 생가의 복원은 지자체가 '역사의 혼'과 다름없는 고승들의 얼과 정신을 선양, 지역뿐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는 일로서 지역주민들의 성원속에 이뤄져 의미가 깊다. 특히 생가터에 들어선 죽림정사(조실 및 주지 도문)는 3.1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용성스님의 10법계관심법을 받들어 스님의 탄생성지를 성역화해, 전국의 청소년 수련장과 국민정신고육장으로 만들 계획이어서 포교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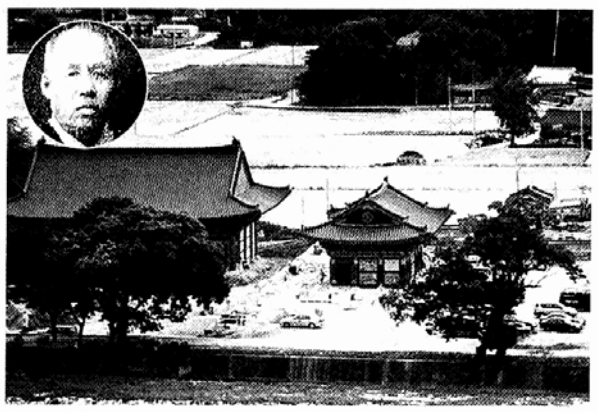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유종혁)와 장수군(군수 김상두)은 9월29일 용성스님 생가터인 죽림정사(조실겸 주지 도문)에서 지역주민과 불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영산재, 용성조사 행장 소개, 축사, 감사장(장수군수가 중국 하남성화교연합회 임설매 주석에게) 수여, 죽림정사 터다짐을 위한 농악공연, 승무 등으로 진행됐다.

국비 2억원과 도비 5천만원등 총 15억여원을 투입해 토지 5000여평을 매입, 죽림정사 대웅보전 33평을 이미 완공하고 이날 31평의 생가를 복원한 기념사업회는 내년 음력 5월8일(용성스님 탄생일) 준공을 목표로 31억원을 투입해 108평의 용성조사당(교육관, 90% 공정)을 비롯 선원과 종무소, 요사채, 전통찻집 등을 갖춘 죽림정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성역화사업의 또다른 한축은 기념관 건립 사업. 장수군은 최근 군비를 들여 죽림리 일대 1만5천평을 기념관 건립부지로 조성했다. 용성스님등 민족대표 33인의 영정과 사료 등을 전시해 국민모두를 위한 민족독립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 김상두 장수군수의 원력이 큰 몫을 했다. 김 군수는 성역화사업을 위한 장수군민 1만명 동참운동(전체 장수군민 3만명)을 전개, 최근 지자체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터에 시민들의 마음을 맑혀주는 신선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

1864년 5월 8일(음력) 탄생한 벽용성조사는 민족불교를 지키려고 식민지 불교에 정면으로 저항한 호법신장, 불교의 개혁과 혁신을 스스로 실천한 개혁가, 선농불교(禪農佛敎)를 몸소 실천한 선사, 일제치하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한 주역, 민중의 깨달음을 위해 대각사상을 제창한 사상가, 불경 한글번역의 창시자, 불교사상의 대 저술가로서 불교계 뿐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용성스님 생기터 5천여평에 자리잡은 죽림정사 전경, 오른쪽부터 생가, 대웅전, 용성조사당. 원내는 용성스님 영정.

용성스님의 법제자인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은 "깨침의 세계를 연 수행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 전형을 보여준 용성 조사는 이 시대 중생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사표"라면서, "죽림정사 불사를 비롯 장수군의 대대적인 성역화사업이 10년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용성 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정신세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사찰 정화시설 조사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찰 오수 정화 시설 및 계속 수질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밀양대학교 이병인 교수와 국립환경연구원 이영준 박사 등으로 구성된 사찰오수정화시설 정책연구팀은 계룡산 동학사와 갑사, 속리산 법주사,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지리산 화엄사 및 말사 등의 일정으로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했다.

자장율사 연고법회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주지 신허)는 5~6일 제1355주년 개산조 자장율사 연고법회를 봉행한다. 5일 입재법회에서는 스님의 부도앞에서 헌다의식이 봉행되며 통도사 산하 유치원 재롱잔치, 부처님 가사 친견 및 괘불이운, 산사음악회(불자연예인 공연)와 점등 순으로 진행된다. 6일 기념법회는 개산대재 법요식, 제4회 괘불탱특별전, 합창단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055)382-7182

천태종

삼광사 지장전 낙성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8일 오전 10시 지장전 낙성 및 옥 지장보살 점안식을 갖는다. 97년8월 기공식을 가진 지장전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총건평 264평으로 1층(132평)은 주방과 식당, 방 3개등이 들어서고 2층(132평)에는 옥으로 조성한 크기 4m의 지장보살상과 좌우협시인 도명존자·무독귀왕, 시왕, 동자상 10인, 판관 2인, 녹사 2인, 년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4인, 문입구를 지키는 장군 2인 등이 봉안된다.

삼광사는 지장전 낙성을 기념하는 영산재·및 생전예수재를 20~22일 3일간 봉행한다. (051)808-7111

조동종

17~19일 중앙연수교육

제6차 중앙연수교육이 17일부터 19일까지 종정 지명스님과 각 부 원장, 종무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교임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원효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사미계 수계, 입실건당식, 법계고시 등이 치러지며 종정스님과 각 원장스님들의 강의도 있게된다. (02) 713-0475

일붕선교종

총무원장·종회의장 취임

제6대 총무원장 장봉암 스님과 제5대 중앙종회의장 오현각 스님의 취임법회가 5일 오후 2시 종로구 일붕선원에서 봉행된다. (02)394-9468

화엄종

장학금 3천만원 전달

화엄종 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9월 23일 인천 약사사 대웅보전에서 2000년도 후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희수 이사장은 동국대 불교학과 2년 이혜정, 서울대 법과대 2년 이승훈씨등 대학생 12명, 대학원생 2명 고등학생 55명 등 모두 69명에게 장학금 3천1백50만원을 전달했다.

미륵종

영남불교의식硏 개원

9월 19일 부산 백양사(주지 명암)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중앙교육원 부설 영남불교의식연구원 개원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 연구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초급반과 상급반으로 나뉘어 사물 다루는 법, 도량석, 각단예불, 상주권공, 대령, 도량게 등 불교전통의식을 정업·지덕·법성·덕운 스님 등이 지도한다. (051)336-0408



◇도서실에서 책을 보는 향상선원 신도들.

부산불심 이끄는 도심포교당

교리 강좌·선방 개방·이웃돕기

향상선원·달마선원 등

부산시내 도심 포교당들이 참선·독서·교육·문화·복지 등 저마다 특색있는 포교 방편들을 활용해 불자들을 생활불교를 이끌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번화가인 서면에 위치한 통도사 부산포교원(주지 심산, 051-816-2241)은 기초교리, 기도 등 기본적인 신행외에도 한국무용, 영어특강, 사물놀이, 판소리, 한문강좌 등을 여는 한편 외국인 포교를 위한 국제포교부, 문화포교를 위한 한나래문화재단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을 불교로 이끌고 있다.

최근 포교공간이 전무했던 해운대 신도시 포교의 중심으로 떠오른 향상선원(주지 덕일, 051-747-7870)은 올해 초 8천여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열어 800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면서, 매주 2·3차례 열리는 교양불교대학을 통해 기초교리를 확실하게 지도하고 있다. 특히 보현복지회를 결성, 불우이웃돕기와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범어사 부산포교원(주지 정여, 051-853-5486)은 불교용품점, 불교한의원, 사찰음식점, 불교교육대학 등이 함께 들어선 불교회관에 들어서 있어 다양한 신도들의 신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해인사 원당암포교원인 달마선원(주지 대운, 051-468-8503)은 24시간 선방을 개방해 직장인과 주부, 학생들이 수시로 참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전 원광사 옹벽 붕괴

사고원인 놓고 지하철공사와 다툼

대전 동구 판암동에 위치한 염불종 원광사(주지 청봉) 소유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원인을 놓고 원광사와 지하철공사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14일 원광사 소유 텃밭을 지지하고 있는 길이 27.3m, 높이 4m의 옹벽이 무너져 10년생 나무 10여 그루가 부러지고, 밭의 일부가 내려 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두고 원광사측은 도시철도 1-2공구 판암동 구간 공사의 잦은 발파 작업과 기타 수반 작업으로 인해 지지기반이 약해짐과 동시에 옹벽에 무리가가 사고가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봉스님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측은 "이번 사고는 경사지 밑에 T자형 바닥을 설치해야함에도 불구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옹벽을 쌓은것이 비로인해 연결부분이 끊어져 나간 것이다"는 입장이다.

원광사는 현재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등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백두산부대 법당 기공

강원도 양구 백두산부대는 9월25일 신병교육대 법당 기공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사 정행스님과 부대장, 불자회장 장천봉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총 공사비 1억 3천만원 가운데 청도 운문사 북대암 주지 법춘 스님이 1억원을 보시해 만들어지는 법당은 76평의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외벽에는 불화를 그려 넣어 전통미를 살릴 계획이다. 법당은 11월 4일 완공되며, 불자들의 물품 후원이 절실하다. (033)481-5806

김두식 기자

춘천 소양로 7층탑 이전복원

보물 제77호 춘천 소양로 7층석탑 이전·복원공사가 마무리 돼 9월28일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향법회가 봉행됐다.

청평사주지 청화, 석왕사주지 백운, 삼운사주지 월도스님이 공동위원장인 봉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회향법회는 청화 스님의 법문, 백운·월도스님이 봉축사, 밀본스님(정법사주지)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회향법회를 가진 소양로 7층석탑은 기존의 위치에서 안쪽으로 10m 정도 이전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과 땅속에 묻혀있던 1m50㎝ 가량의 탑 하단부를 지상으로 들어올려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되살렸다.

김재경 기자



목포 유달산 반야사 대웅전 삼존불 봉안

목포 유달산 반야사(주지 삼홍)는 9월22일 대웅전 삼존불 봉불식 및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불사를 봉행했다.〈사진〉

백양사 조실 서옹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이날 법회는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의 법문, 용화사 수진스님의 복장 및 점안의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포운전불자회 회원등이 참석했다.

조윤오 목포지국장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군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정리며비용은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E-mail: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TEL. 733-4277(代) FAX. 733-4279 명상

묘굿과 진오귀굿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신국판/값 7,500원

저자와의 만남 031-921-5445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민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선몽받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접신이 이루어져 웬만해서는 제대로 김당하지 못하는 묘굿과 진오귀굿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야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진다고……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서울」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녀로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자 승무원 세 사람이 무꾸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괌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별곡」 중에서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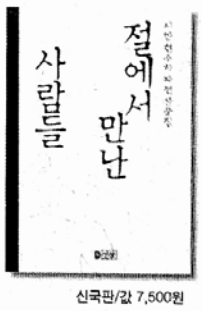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 스님…….

명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문 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하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훈훈하게, 때로는 뭉클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신국판/값 7,500원

마구잡이식 증·개축

도로·주차장 등 공사

정부 토지 강제수용

일본식 조형물 예사

몸살앓는 전통사찰

정원학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대책요구

'마구잡이식' 건축행위를 규제해 전통사찰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자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 등 관련 연구자들은 9월23일 열린 정원학회 창립20주년 세미나에서 최근 전통사찰의 증·개축과 주변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사례 등이 늘어나는데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에 따르면 스님의 생활과 신도의 신행 환경 개선에 따른 '증·개축이 늘고 있으며, 전통사찰과 그 주변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진입도로나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울산 석남사·청룡암, 김천 직지사, 완도 신흥사, 안동 연미사, 구미 원각사, 수원 청련암, 문경 봉암사 등은 사찰 수행 환경에 해를 입었다. 또 합천 해인사와 부산 백양사 등의 사찰 자연 환경 역시 잃어버렸고, 불국사의 일주문과 천왕문, 해인사의 구광루, 용주사의 요사채(스님 거처) 등은 전통사찰의 원형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잘못된 시공과 공사장 관리 소홀로 전통사찰 주변의 수질이 악화되고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통 조경 및 건축 양식을 무시한 채 일본식 조경과 조형물 등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 억제 △관련법 정비 △불사위원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사위원회'는 건축·조경·불교미술 등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기구로, 전통사찰의 경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불사의 범위·방법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특별기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이날 '전통사찰의 보존'을 발표한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전통사찰은 경내뿐 아니라 경외의 환경까지도 바라보는 총체적인 틀 속에서 보존·관리되어야 한다"며 "전통사찰의 건축불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는 9월28일 명동성당에서 2천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명동일대에서 가두 서명과 홍보 스티커 배포 활동을 벌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학인 76% "기본교과 통일 바람직"

조계종 691명 의식조사

전국의 강원 학인 76.4%가 기본교육 교과과정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혀 기본교육 교과과정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과 조계종 경학원이 8월 한달동안 전국의 사미 사미니 강원 학인을 대상으로 지방 승가대학 교과과정 통일 및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691명(사미 221명, 사미니 470명)의 강원 학인들은 현재의 강원교과가 사교입선(捨敎入禪)을 위한 이력과정으로 편성된 것을 개편해야 한다(388명, 56.2%)는 견해를 보였으며 불교일반을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346명, 50%)고 응답했다.

또 강원교육이 내전에 치우쳐 외전의 결여로 스님들이 현대문명을 계도하거나 포교활동에 벌다른 도움을 주지못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368명, 52%)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255명, 36%)는 대답보다 높았다.

외전과목중 선호하는 교과목으로는 종교학개론(258명, 37%) 비교종교학(92명, 13.3%) 서양철학사(75명, 10%)순이었다.

외국어교육 시행에 대해서도 반대(221명, 32%)보다 시행해야 한다(446명, 64%)는 응답이 높았으며 선호하는 외국어로는 영어(241명) 산스크리트어(89명) 중국어(58명) 일본어(51명) 순이었다. 기타과목과 관련해 예식의괘(588명, 98%), 좌선실수(586명, 98%), 컴퓨터(501명, 84%)순으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강원 학인들은 중관, 유식 등 주요 내전과목과 외전과목을 재가불자가 강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인 420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224명(32.2%)이 반대한다고 밝혀 승려중심의 보수성을 드러냈다. 김원우 기자

문화재사범 전담반 촉구

호남 본말사 주지 결의문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본·말사 주지 182명은 9월 26일 문화재 도난사건 근절을 위해 각 경찰청에 문화재사범 전담반을 구성해 문화재 도난사건의 예방과 도난범 조기검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광사에서 개최된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연수회에 참석한 주지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사면복권 운동본부 발족

수 차례의 조계종 분규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 운동본부'가 9월25일 서울 대각사에서 발족됐다. 이 날 운동본부의 상임대표에는 분원정사 주지 원성스님, 공동대표에는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인 진관·지원스님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진묵스님, 수좌출신 법성스님이 선임됐다.

사면복권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져 가는 이 때에 일대사 인연을 깨닫고자 출가한 우리들이 서로를 외면하고 시비만을 분별한다면 중생의 사표가 될 수 없다"면서 "초발심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사면 및 복권을 위한 승가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모든 시비는 율장에 근거해 처리할 것 등을 결의하고 각 교구본사 주지 면담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지리산 국민행동 낙동강 1300리 순례

민족의 성산 지리산과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자는 발원을 안고 1300리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걷는 도보순례가 10월16일 낙동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 황지에서 시작된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 외 3인)은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을 단장으로 원불교 천지보은회와 녹색연합 등 종교·환경·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환경순례단을 구성, 낙동강 500km를 한달간 답사하며 환경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례단은 대구, 안동, 부산 등의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토론회 등을 가질 계획이며, 주요지점에서 수질검사 등 생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경스님은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이 발표한 환경평가서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낙동강 수질 개선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2천만 서명운동

11·21일 국민행동의 날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공동상임대표 법장스님 등 5명)는 9월 28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회복을 위한 2천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방한준비위는 선포식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평화애호와 인류적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국의 부당한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려는 정부의 무력함과 사대의식을 극복하고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정부는 당초에 약속한 아시아·유럽정상회(ASEM)의 이후 달라이 라마의 방한허용 입장을 실천해야 하며, 중국정부는 주권국간에 존중되어야 할 외교적 원칙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정신·문화적 풍요를 위해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방한준비위는 강원용목사와 백창기 조계종신도회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을 마친뒤 명동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했다.

방한준비위는 30일 부산과 광주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여성계, 법조인 등 각계 대표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한편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11일과 21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10월말에는 종교지도자 합동기자회견과 방한허용 촉구 종교인집회 및 촛불행진을 통해 달라이라마가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찬성" 시민 10명중 9명

일반 시민 10명중 9명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합뉴스 인터넷 사이트(www.yonhapnews.co.kr)가 최근 실시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나타난 것.

9월26일 현재 총 3896명이 투표해 이중 3350명(86%)이 찬성하고 546명(14%)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들이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평화·인권·영성의 세계적 지도자로서 종교를 떠나 그의 방한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중국불교협 반대입장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부회장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술인 부회장은 9월 26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불교계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도 부회장은 또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 입장을 담은 중국불교협회 티베트분회와 티베트불교계 인사 명의로 작성된 서한을 원택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원택스님은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서한에는 "만일 한국에서 달라이 라마를 접대한다면 두 나라 관계에 해롭고, 두 나라 불교계의 교류에도 해롭다"는 경고성 내용도 담겨 있다. 정성운 기자

1일 '세계 채식인의 날' 사회·종교단체 행사 다채

10월1일은 '세계 채식인의 날'. 불자들은 이 날을 계기로 '고기시체'를 먹는 것을 지양하고 채식을 통해 생명의 경외와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면 어떨까.

스님들은 "채식을 하면 화를 적게 내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난다"고 말한다. 물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육식을 하는 이는 채식자에 비해 발암율이 3배이상 증가한다. 유방암의 경우 3.6배, 전립선암은 3.8배에 달한다. 암뿐만 아니라 동물지방으로 인한 혈관 막힘현상은 심장마비 가능성을 10배나 증가시킨다.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이 생명존중과 기아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매년 인간의 음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17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매년 1000여종의 동물이 멸종), 목축으로 인한 숲의 사막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료용 곡물을 줄임으로써 기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푸른생명한국채식연합은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원형무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SM명상, 제7안식일교회, 개고기 반대운동본부 등 환경·종교·동물보호 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채식헌장(동물의 생명존중, 환경보호, 건강증진, 기아해결, 생명사회 등) 발표, 채식관련 동물연극, 퍼포먼스, 무료 채식 시식회, 가두행진(명동성당까지), 한국 채식인의 날 선포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처님의 기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봐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 석씨향방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색색 수놓은 가을산은 '한폭 만다라'

백두대간 속으로 〈22〉

하늘재-대미산-황장산-저수령

가을이다. 서정주 시인의 절창마냥,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때다. 그래서 가을은 슬프게 아름답다. 계절이 저물녘으로 접어든 때문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계절이야 매양 뒤바뀌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다가올 겨울을 예감하기에는 아직 대지는 너무 싱싱하다. 그런데 왜?

남은 모든 기운을 모조리 쏟아낼 듯 이글거리는 태양의 몸짓이 내 마음 한 자락을 숙연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련없음'이란 바로 저와 같아야 하리. 그리고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색색으로 피어나는 꽃들 또한 참으로 옹골차다. 모름지기 남의 은덕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받은 것 갈무리하기를 저와 같이 하여야 하리.

이로써 가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의 궁극을 한 폭의 만다라로 펼쳐 보인다. 하여, 가을의 아름다움은 처절하고도 처절하다. 그래서 가을은, 그것도 문턱에 선 가을은 슬프게 아름답다.



◇초가을 햇살을 빗질하듯 늘어선 강아지풀들의 실루엣이 환상적이다.

고추잠자리 한가로운 문경의 들판을 가로질러 하늘재를 오른다. 아직 가을걷이를 하기에는 이른 때인지라 들판엔 구실이 의심스런 허수아비만이 한껏 계으름을 피우고 있다.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도 시름에 겨운 제 주인의 처진 어깨를 닮은 듯, 황금 들녘이라는 상투적 표현 따위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투다. 이제 우리에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너무도 잔인한 언사다.

하늘재 마루에서 바투 다가서 바라보는 포암산(961.8m)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다. 이 산은 달리 베(布)바우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암릉으로 이루어진 정상의 모습이 마치 베로 덮어 놓은 듯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또한 이 산은 희게 우뚝솟은 모습이 껍질을 벗겨놓은 삼대같다 하여 마골산(麻骨山)이라고도 불리었고 계립산(鷄立山)이라는 옛 기록도 가지고 있다.

하늘재에서 포암산 정상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나, 중턱쯤에서 만나게 되는 몽양화풍의 소나무와 어우러진 바위 기슭에서 주흘산쪽으로 열린 조망을 즐기거나 순백의 꽃잎을 피워올린 구절초와 눈인사라도 나누려면 좀더 넉넉한 시간을 잡는 게 좋다.

포암산 정상을 벗어나서 충주시 상모면으로 길을 열어두고 있는 관음재에 이르기까지는 풀계단을 놓은 듯한 암릉을 지나야 한다. 짧긴 해도 오르내림이 잦아 두 다리에 꽤나 부담을 안겨야 한다. 그러나 관음재를 지나 제천시계를 만나면서는 순한 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부터는 대미산(1,115m)의 품을 걷는 셈이지만 정상까지는 꼬박 반나절은 다릿품을 팔아야 할 거리다. 더욱이 무성한 참나무가 시야를 장악하고 있어서 먼눈으로나마 대미산의 자태는 가끔씩밖에 볼 수 없다.

관음재 바위능선 구비구비 넘다
눈물샘 물한모금 갈증 풀리고



◇참 맑은 햇살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가을볕 아래 심신을 내려 놓는 취재진.

대미산의 정상은 '크게 아름다운 산(大美山)'이라는 이름과 달리 둘레에 억새만이 무성한 밋밋한 형국이다. 그러나 정상을 지나 북쪽 기슭에 걸린 눈물샘에 이르면,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조선시대에 펴낸 〈문경현지〉에 '문경 여러 산의 할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적혀 있는 '검푸른 눈썹 산(黛眉山)'이란 한자 이름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진다. 눈물샘이라는 이름은 뭣시 후대의 말솜씨 좋은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인데, 어쨌거나 눈썹 아래서 솟아나는 산이니 눈물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겠고, 목마른 산꾼들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운 샘이기도 하다. 대간의 마루에서 보랏빛 물봉선화가 이끄는 내리막으로 조금만 내려서면, 한 바가지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맞는 산 속의 아침은 각별하다. 벽공(碧空)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려지는 하늘의 본 때깔과 순도 100%의 투명한 공기, 그리고 어린아이의 귓볼을 뺨에 부비는 듯한 느낌의 따스한 햇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황장산 넘어 벌재를 지나 저수령까지. 족히 하루해를 바쳐야 할 길이다. 하지만 햇살 좋은 가을 하늘 아래서라면 결코 재촉할 일이 아니다. 더딘 걸음이어서 길이 끝나기 전에 해를 보내야 한들 그게 무슨 대수랴. 석양이 장엄하는 하늘 한 귀퉁이를 엿볼 수 있다면 그 또한 행운일 터.

황장산(1,077.3m)은 흔히 춘양목이라 불리는 금강송에 버금가는 질좋은 소나무인 황장목(黃腸木)이 많았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나이테에 누런 송진이 베어든 모양을 일컬어 황장(黃鰾)이라 한 것인데,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어 궁궐의 목재나 입금의 관, 또는 배를 만드는 데 주로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황장산에는 질좋은 소나무가 거의 없다. 대부분 참나무로 숲의 천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숙종 때 봉산(封山)으로 지정돼 나라에서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표석은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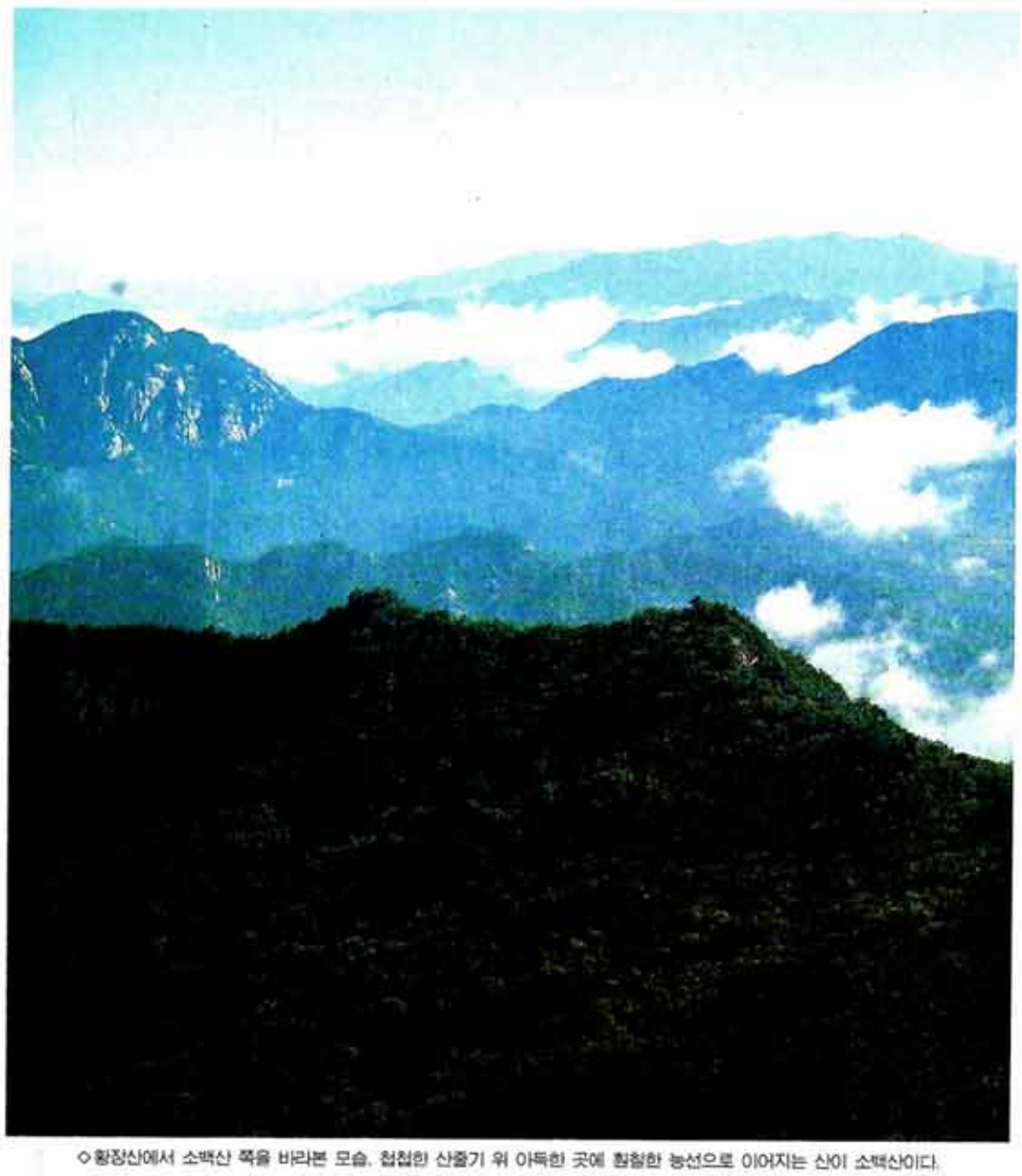
황장산의 정상 직전은 아슬아슬한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의 근접을 막는 정도는 아니다. 황장산 정상에서의 조망도 꽤나 근사하다. 동북쪽으로는 첩첩한 산줄기 위 아득한 곳에 소백산의 훤칠한 능선이 허리에 구름을 두르고 서 있다.

황장산을 내려서면 암릉을 지나자 말자 급전직하의 낭떠러지에 가까운 내리막을 달려 벌재(620m)에 이르게 된다. 문경시 동로면과 단양군 대강면을 잇는 고개로, 이 고개의 북쪽 너머 대강면 방곡리는 도예촌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벌재에서 저수령(848m)까지는 서너 시간이면 족한 만큼 그리 힘든 길이 아니다. 저수령이 워낙 높은 곳에 자리한 탓에 산이 허리를 크게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 예천군 상리면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을 잇는 이 고개의 이름은, 큰 길이 나기 전 험난한 산길 속으로 난 오솔길이 워낙 가팔라 길손들의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底首)'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비굴이 아닌 고개 숙임. 찾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황장산에서 소백산 쪽을 바라본 모습. 첩첩한 산줄기 위 아득한 곳에 첩첩한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이 소백산이다.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1. 달마자기
▶ 가격 : 30,000원
고급나무 케이스 : 15,000원 (별매)
※ 작가 : 이순길



2. 청자 당초 5인다기
▶ 요장 : 경기도 여주
구분 : 청자
소재 : 청자토 + 재유 (천연유)
가격 : 42,000원



8. 홍화가공식품
▶ 홍화씨 – 용량 : 500g (1봉지) 가격 : 25,000원
▶ 홍화분말 세트 – 용량 : 200g*3병 가격 : 90,000원
▶ 홍화정 세트 – 용량 : 200g*3병 가격 : 120,000원
▶ 홍화액기스 세트 – 용량 : 80ml*60포 가격 : 1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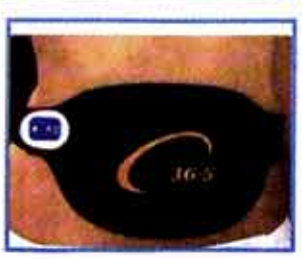
4. 참선명상방석
▶ 크기 : 39cm × 43cm
가격 : 참선명상방석 30,000원
숲 참선명상방석 35,000원
황토 참선명상방석 35,000원



5. 백화향 선물세트
▶ 구성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꽃이
가격 : 50,000원
※ 사은품으로 천연한방약향 복주머니를 드립니다



6.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 스탠드형
규격 :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가격 : 97,000원
▶ 액자형
규격 :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 가격 : 107,000원



7. 玉온열건강벨트
▶ 구성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색상 : 검정, 회색, 베이지
가격 : 105,000원



3. 코스모스 머그잔
▶ 수량 : 2개
요장 : 경기도 여주 가격 : 5,7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단체명 인쇄
- 500개 이상 주문시 10% 할인 및 단체명 인쇄
- 1000개 이상 주문시 15% 할인 및 단체명 인쇄



10. 향적원 선물세트
▶ 1호 – 용량 : 고추장, 더덕장아찌 (각 1kg), 가격 : 42,000원
2호 – 용량 : 오이, 감, 무우장아찌 (각 500g), 가격 : 20,000원
3호 – 용량 : 된장, 고추장, 더덕, 마늘종, 무우장아찌 (각 500g) 가격 : 39,000원
※ 모든 향적원 선물세트에는 간장 900ml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